

PAJU CULTURE 2012

파주문화 研究

26



파주문화원

파주문화연구소

문예중흥선언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문화창달의 사명을
民族中興 歷史的轉捩期 文化創造 使命

절감한다.
切感

한겨레의 운명을 결정 짓는 근원적 힘은 그 민족의 예술적 문화적
運命 決定 根源的 民族 藝術的 文化的
창의력이다. 예술이 창조력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문화가 자주성
創造力 藝術 創造力 文化 自主性
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신라통일의 위대한 업적과 세종시대의 문화
新羅統一 偉大 業績 世宗時代 文化
창조는 이를 증명한다.
創造 證明

우리는 길이 남을 유산을 개발하고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 받아 오늘의
遺產 開發 民族的正統性
새 문화를 창조한다. 맹목적인復古경향을 경계하고 분별없는 모방행위를
文化 創造 盲目的 復古傾向 警戒 分別 模倣行爲
배척하며 천박한 퇴폐풍조를 일소하여 우리 예술을 확고한 전통 위에
頹廢風潮 一掃 藝術 傳統
꽃 피우고 우리 문화를 튼튼한 주체성에 뿌리 박게 한다.
文化 主體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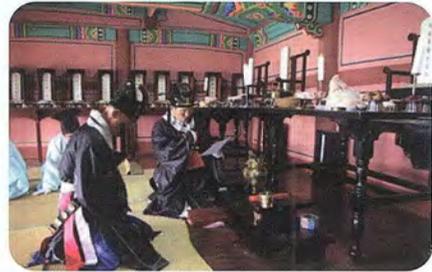
우리는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영광된 겨레의 내일을 위하여 가치의식
祖國 現實 直視 榮光 榮光 來日 價值意識
과 사관을 바로 잡고 표현의 자유와 문화의 자주성을 함께 누리며, 곳곳
史觀 表現 自由 文化 自主性
마다 문화의 전당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예술을 즐기도록 한다.
文化 殿堂 藝術

우리는 자신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세계에 부각
自身 姿勢 世界
되도록 힘쓰며, 문화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인류문화에 이바지 할
文化 國際交流 人類文化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예술가 모든 문화인들은 온 국민과 동참하는 대열에 서서
藝術家 文化人 國民 同參 陣列
예술과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정성을 다해 문예중흥을
藝術 文化 風土 造成 文藝中興
이룩할 것을 선언한다.
宣言

2012년 제26호

파주문화 研究



파주문화원
파주문화연구소

발간사



파주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곳곳에 중요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 수집과 연구 결과를 잘 정리하고 기록하여 책으로 묶어내는 일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마다 파주문화원에서는 한 해 동안 파주문화예술 소식을 정리하고 역사적, 문화적 연구자료 수집과 정리를 통해 한권의 책으로 엮어내는 『파주문화연구』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파주문화연구』제26호에는 2012년 파주문화원에 다양한 문화예술 소식들을 화보와 함께 소개하고 또한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를 알고 지켜나가려는 여러 연구자료들을 싣고 있습니다.

DMZ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보존과 활용방안을 찾아본 연구와 광탄면의 지명과 문화유산을 통한 지역발전방향을 모색해본 연구, 파주 세거문중 시제의 절차와 진설 형태 등을 조사한 연구, 황정욱 선생의 파주관련 한시에 대한 연구, 방촌 황희, 율곡 이이, 우계 성혼의 문학세계를 관류하는 시대정신에 대한 고찰, 파주 진동면 서곡리 묘소 벽화와 광탄면 보광사 단청에 관한 연구와 사례편람을 중심으로 살펴본 제사에 대한 연구, 임진강에서 벌어진 국제전쟁과 임진강 철교 등에 관한 글, 영조의 친모가 잠들어있는 소령원과 영조의 후궁 정빈이씨의 수길원에 대한 글 등 파주지역의 향토문화유산과 관련된 귀중한 조사 연구 기록들을 실었습니다.

또한 파주를 소개하는 책자 중 오류를 찾아내 정리한 글과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바로 알고 가꾸고 지켜나가기 위해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율곡고등학교 <예터밧기>에 대한 소개글과 파주문화연구소의 관의답사기로 강원도 지역을 다녀온 기행문을 문화사랑방에 펼쳐놓았습니다.

『파주문화연구』제26호가 파주 지역 역사와 문화의 기록물로서 파주시민들의 정신과 문화의 깊이에 작은 흔적이라도 남길 수 있기를 바라며, 되도록 많은 시민들에게 널리 읽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향토문화 연구의 결과물을 옥고로 만들어 제공해 주신 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 12

파주문화원장 우 관 제



Contents

발간사

26호를 펴내며 우관제 2

화보와 단신

2012년 파주문화 이모저모 / 문화예술 단신 편집실 4

향토문화 연구

황정욱선생의 파주관련 漢詩에 대하여	이동륜	9
방촌과 율곡, 우계의 문학세계를 관류하는 시대정신에 관한 고찰	박재홍	21
DMZ 역사문화자원의 현황과 보전 및 활용방안	이윤희	35
지명과 문화유산을 통한 지역발전방향 모색	김희병	56
제사에 대한 연구	신용면	70
경기 파주지역 시제 연구	권호숙	90
임진강에서 벌어진 국제전쟁	한성희	105
임진강 철교	오순희	110
파주 고분벽화와 단청에 관한 연구	이진숙	118
파주의 능과 원·소령원, 수길원	강근숙	130
파주 안내 책자 오류 정정 제안	김선희	137

문화사랑방

선(線)의 이름, 그 길에서 만난 겨울 속 겨울	권혁임	143
율곡고 문화재 지킴이 동아리-에터밭기	구종형	151

제25회 율곡문화제 수상작품

제25회 율곡백일장	161
사임당 미술제	168
휘호대회	170
전국 한시백일장	171
전국율곡서예대전	172



파주문화 26호 ▶

발행일: 2012년 12월 / 발행처: 파주문화원 / 발행인: 우관제 / 편집: 권호숙 / 인쇄: 승림디엔서
※ 이 책은 비매품이며 시비보조금으로 발행되었습니다.

파주문화원 행사



문화원 총회 2월 28일



역사문화대학



파주문화원장 이취임식 3월 29일



파주문화원장 이취임식



짚, 풀 작품 외부전시 (롯데백화점)



짚, 풀 작품 해외전시(호주)



짚풀문화 공예품 대상작 이재환 작



짚풀문화 공예품 전시 3월 2일~6일



짚풀문화 공예품 시상

파주문화원 행사



2012 군장병 투어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활동



어르신 사물놀이



울곡학술강연회



이야기할머니



신도시 시민 '첫만남' 답사



청소년유적지순례

2013 향토문화체험 참가안내

- 일자 : 4월-10월 매주 2주차 토요일
- 장소 : 테마별 유적지
- 접수 : 매월 1일(공휴일은 다음 날)
- 인원 : 선착순 40명
- 참가문의 : 031-941-2425

파주문화 학교



헤이리소리 배우기



가야금



단소반



문예창작반



문인화반



POP



서예수요반



서예목요반



어린이서예교실

파주전통문화 제향



풍년기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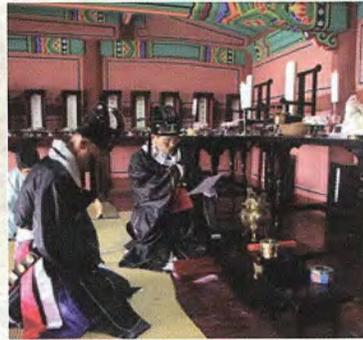
방촌영당 춘향제



파산서원 제향



자운서원 춘향제



교하향교 석전대제



월계단 제향



헌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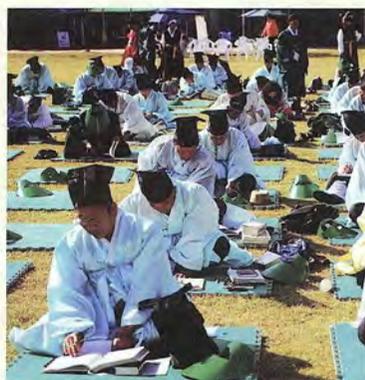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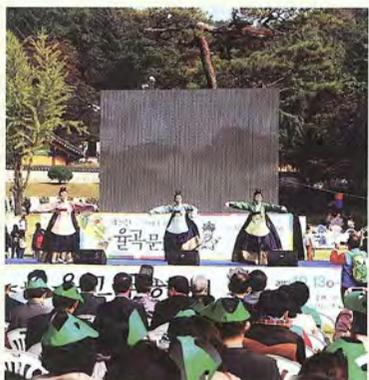


우계사당 제향



용주서원 추향제

제25회 율곡문화제



황정욱선생의 파주관련 한시漢詩에 관하여

이 동 루*

1. 서론
2. 황정욱의 문집
3. 황정욱의 생애
4. 황정욱의 파주관련 시
5. 결론

1. 서론

황정욱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대 문장가. 명필가이다. 1532년 출생하여 1607년 76세로 사망하였다.

선생의 문장은 당시 관각삼걸館閣三傑 또는 호소지湖蘇芝(湖音- 정사룡, 蘇齋- 노사신, 芝川- 황정욱)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며, 우리나라 해동 강서시파江西詩派의 시인으로 천년 이래 절창으로 평가 받는 분이다.

특히 선생의 가문은 파주지역의 명문거족인 장수 황씨黃氏로 7대조는 청백리로 유명한 황희黃晞 선생이다. 파주 탄현면 금승산金蠅山에는 선생과 부인 순창 조씨의 합장묘가 있으며, 부모를 비롯한 선영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지역에서 선생이 살아온 생애와 시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본 주제를 설정하고 심층 연구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선생의 문집 『지천집芝川集』에 수록된 한시 중 파주관련 시 몇 편을 재조

* 파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명하여 파주坡州와 금승리金蠅里라는 지역적 배경이 그의 시에 있어 어떤 역사성과 개인사적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 연구함으로써, 파주 고전문학의 정체성을 밝히고 문화유산 해설과 스토리텔링 자료로 삼고자 하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2. 황정욱의 문집

먼저 본론을 펼치기 위해 선생의 문집을 열람하였다. 선생의 문집 『지천집芝川集』은 1632년 외손인 이후원이 단양군수로 나갈 때 편찬 간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고전번역원 오세옥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지천집芝川集』초간본은 아들 황혁黃赫이 수집, 편찬하였는데, 황혁이 1612년 무고誣告로 투옥 되어 옥사할 때에 가장문적家藏文籍이 모두 압수되는 속에 이 유고도 들어 있었다. 그 후 금중禁中에서 한 귀인貴人이 고지故紙 여러 묶음을 우연히 발견하고 다른 이에게 주어 벽을 바르는데 쓰도록 하였는데, 그 가운데 있던 유고를 저자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발견하고 저자의 사위 이욱李郁에게 알려 주어 이욱이 비싼 값을 주고 구매하여 가장家藏해 두었다.

그 뒤 인조 즉위 후 저자의 관작이 회복되자 이욱의 아들이자 저자의 외손인 이후원李厚源이 1632년 단양丹陽 군수로 나갈 때 유고에다 장유張維에게 부탁하여 지은 서문과 저자의 아들 황혁이 지은 행장, 기타 부록문자附錄文字를 첨부하여 3책의 목판木板으로 처음 간행하였다.”

책의 구성은 책머리에 서문이 있고, 권1에 오언절구 6수, 칠언절구 75수, 오언율시 28수, 권2에 칠언율시 84수, 칠언배율 1수, 권3에 교서敎書 1수, 서계書契 1수인데, 서계는 1591년 도요토미豊臣秀吉의 서신에 대하여 의리로써 힐책하여 보낸 글이다. 의서擬書 2편은 도요토미를 설득 시키고자 작성했던 글로 모두 당시 임진왜란 직전의 대왜對倭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상도당서上都堂書는 임진왜란 중 항복문서와 관련하여 그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사건의 본말과 실상을 해명한 글로, 소 2편과 함께 당시 난중의 국내사정을 살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그의 서書 3수, 차자箚子 1수, 소疏 2수, 전箋 5수, 권4에 서序 1수, 기記 2수, 명銘 1수, 발跋 2수, 애사哀辭 2수, 제문祭文 5수, 묘갈명 4수, 묘지명 2수 등이 수록되어 있다.

부록 상에는 행장行狀으로, 윤근수가 지은 수서壽序와 기영사계축시서耆英社稷軸詩序, 그리고 차운시 4수가 있다. 하에는 제문 4수, 만시 20수, 신원소伸冤疏 1수, 금부회계禁府回啓 1수, 대신의大臣議 1수, 개제주축문改題主祝文 1수 등이 있다.

그러나 선생의 명성에 비해 율시律詩의 편수가 적은 것은 임진란 후 저자와 아들 황혁이 당한 불운한 처지에서 상당부분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 194수 가운데 파주관련 한시는 이수정二水亭 등 5편이다.

二水亭

金蠅山下 廳杜鵑有感

題李應教綏祿交河亭子

題李綏之綏祿網橋新亭

登烏頭城 錄示同游

물론 당시 파주와 연고가 있는 율곡 이이, 우계 성혼, 송강 정철, 중봉 조헌, 간이 최립, 청련 이후백, 소재 노수신, 신암 이준민, 곤재 윤근수, 현곡 조위한, 현주 조찬한, 우송당 황윤길 등과 관련 된 시는 본문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3. 황정욱의 생애

한편의 시와 문장은 그 글을 쓴 작자가 살아 온 인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우선 선생의 연보를 살펴보기로 했다

선생은 1532년 4월 26일 부친 행호분위부호군行虎貴衛副護軍 열悅과, 모친 양천 허許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장수이며, 자는 경문景文, 호는 지천芝川이다.

선생의 생애에 대해서 홍서봉이 쓴 선생의 신도비문에 의하면, 선생은 어릴 때부터 특이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 여러 아이들과 섞여 놀지 않았으며, 이를 본 조부 찬성공께서 “이 아이의 기지와 도량이 범상치 않으니 장차 나라의 큰 그릇이 되리라(此兒氣度不凡終必爲國器)하였는데, 자라서는 역시 총명이 남보다 뛰어났고, 침착하여 여러 경전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여 1552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558년에 또 식년문과에 급제했다.



〈황정욱 초상〉

이어 예문관검열·시강원설서·호조좌랑·부수찬·지평 등을 역임했다. 1567년 선조가 등극 하자 명유名儒들을 불러들여 경연에서 강의하게 하니 선생께서 경연에 나아갔는데 경전에 충실하고 논리가 정연하여 소재 노수신은 “논강관論講官 가운데 황 공의 학문이 가장 으뜸이다.” 하였고, 기대승도 “당세에 있어 강학講學이 정밀한 자는 황 공 뿐이니, 후일에 도성에 들어가 스승으로 모실 자는 바로 이 분 뿐이다.”라 하였다.

1570년 모친 허부인의 상을 당하여 양결養乞(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부모의 연고지에 관직을 요청함)하여 양주목사를 자청하였다. 1579년 기묘년에 진주의 지방 실력자들의 횡포가 심하여 덕망 있는 관리를 선발하여 보내야 된다는 정부 방침에 진주목사로 나갔다가 다시 해주

로 옮겼다. 다음 해 다시 진주로 전보되었으나 병으로 나가지 못하고 파직되었다.

1982년 율곡 이이선생이 경연 중에 건의하기를 “황모가 신병으로 관직에 부임하지 못했습니다. 관직에 부임하지 못한 것은 법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나, 그의 문한文翰은 당세에 비교할 자가 없으니 애석히 여기는 바입니다.” 이에 임금께서 받아들여 좌통례左通禮를 배수하였다.

그해 명나라 사신 황왕량黃王兩의 접반사로 율곡 이이가 임명되었는데 황정욱이 종사관으로 도왔다.

1583년 봄에 왕께서 춘당대에 임하여 경시대회를 베풀었는데 이때에 「축단배대장이십운樂壇拜大將二十韻」이라는 시를 써 장원하였다.

1584년에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임무를 완수하였으니, 바로 종계변무주청사宗系辨誣奏請使로 명나라에 파견된 일이다.

종계변무란 조선 건국 초기부터 선조 때까지 200여 년간 명나라에 잘못 기록된 태조 이성계의 세계世系를 시정해 달라고 주청했던 사건을 일컫는다.

즉 고려 말 1390년(공양왕 2) 이성계에게 밀려나 명나라로 도망간 윤이尹彝·이초李初는 그 분필이로 이성계의 아버지가 이성계의 정적인 간신 이인임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명나라는 이 잘못된 사실을 기본 법률책인 대명회전大明會典에 그대로 기록해 버린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성계는 곧 사신을 보내 사실을 알렸지만 명에서는 한술 더 떠 명나라의 태조실록에까지 잘못된 사실을 기록한다.

더욱이 이인임은 이성계의 정적이었기 때문에 조선왕실로서는 매우 모욕적인 일이었다. 따라서 조선 왕실은 이 기록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당시의 조선은 명나라를 상국으로 모시고 있었으므로 잘못된 기록에 대해 따진다는 것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다. 다만 ‘변무’ 즉 무고에 대해서만 변명을 하면서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그 기록을 고쳐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1584년 주청사 황정욱 등이 가서 정정하기로 확정을 보고, 1588년 유흥俞泓이 고쳐진 대명회전을 가지고 돌아와 일단락되었다. 선조는 이것을 종묘·사직·문묘에 친히 고하였다. 그 뒤 1589년에 성절사 윤근수가 대명회전 전부를 받아오으로써 200년간의 종계변무의 외교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된 일을 말한다.

이와 같이 오랫동안 조선의 정통성 문제로 문젯거리였던 종계변무에 성공하고 돌아온 황정욱은 동지중추부사·호조판서로 승진했다. 1589년 정여립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가 곧 복직했다. 이듬 해 종계변무의 공으로 광국공신 1등으로 장계부원군長溪府院君에 봉해지고 예조판서가 되었으며, 이어 1591년 병조판서로 전임되었다. 이때가 황정욱선생의 일생에 있어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현실은 심각한 안보 위협상태에 빠져 있었으니, 나날이 강해지는 중국의 사대주의적 패권과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엿보는 일본 사이에서 동·서 양당의 당파싸움에 급급했던 조정은 ‘일본이 곧 쳐들어 올 것이다’는 소문이 나돌고, 조정에서는 1590년 통신

사 황윤길과 김성일을 일본으로 보내 정세를 파악해 오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연히 병조판서인 황정욱에게 황윤길의 밀장密狀이 올라오고 풍신수길의 서가도 도착했는데, 분명히 일본이 명나라를 침입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보고였다. 이에 선조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불러 대책을 문의하니 대사간 윤두수가 “전하께서는 지성으로 사대事大의 예로 명나라를 섬겨왔으니, 이일을 명나라에 알리지 않을 수 없다” 했고 선생 역시 이 말이 옳다 하고 군비강화, 군사훈련, 장수우대 등을 주장하였으며, 때 마침 결원 상태이던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을 겸임하게 되었으나, 이때 명나라에 보내는 진주문奏注文 사건으로 반대당 동인으로부터 견책당하여 그해 7월 영평永平 지천芝川으로 낙향했다. 영평은 지금의 포천시 영중면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천은 선생의 부모가 살았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도 선비가 살았던 고장이라 해서 거사리居士里라는 마을이 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이란 한순간에 최고의 영광에서 최악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불행도 있는 법, 황정욱선생에 있어 그 고비가 임진왜란이 아니었나 싶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영평에서 쉬고 있던 황정욱선생은 의주로 파천하던 임금을 좇아 장단 동파점에서 알현했다. 그리고 이때에 왕명을 받아 호소사號召使가 되어 강원도로 들어갔다. 왕자 순화군과 임해군 등 왕자들을 배종陪從하여 강원도에 들어가 의병을 소집하는 격문을 돌렸으나, 왜군의 진격으로 회령會寧에 들어갔다가 모반자 국경인鞠景仁에 의해 임해군·순화군 두 왕자와 함께 잡혀 안변 토굴에 감금되었다. 포로로 있을 때 왜장倭將 가등청정加藤清正(가토기요마사)으로부터 선조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글을 쓰라는 강요를 받고 이를 거부했으나, 그의 손자와 두 왕자를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고 아들 혁이 대신하여 썼다.

선생의 아들 혁은 선조의 왕자 순화군의 장인이었다. 이에 황정욱은 항복을 권유하는 내용이 거짓임을 밝히는 또 한 장의 글을 썼으나, 이를 입수한 체찰사가 항복 권유문만을 보내고 다른 한 장은 묵살함으로써 이듬해 부산에서 석방되어 돌아온 뒤, 앞서의 항복 권유문 때문에 반대파인 동인들의 탄핵을 받고, 1597년 길주에 유배되었으며, 이 때 선조는 어제시御題詩를 내려 위로하고 유배지에서 방면하였는데, 또 간관들이 엄한 법조문을 내세워 부당하다 막으니



〈황정욱 묘소〉



〈신도비〉

“황모는 바로 태조의 공신이요, 나의 공신이 아니다.”하고 유배지를 가까운 기내幾內(경기도내)로 옮겨 자유롭게 하고 미곡과 약을 내리시니, 이로부터 10년 동안 선생은 노량진에 임시 거처를 정하고 주로 파주와 영평을 내왕하며 시문을 지었다. 그러나 끝내 억울한 누명은 벗지 못하고 1607년 8월 76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 후 1624년 인조가 왕이 된 후 신원되었는데 이 때에 황이징, 황부, 홍명일 등이 선생의 죄를 씻어주고 벼슬을 회복시켜 줄 것을 상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의 고조인 신 황정욱은 두 조정을 차례로 섬기면서 영광과 총애가 견줄 데 없어 지위는 높은 벼슬에 오르고 이름은 훈적勳籍에 실렸으나 지하에서 억울한 마음을 품고 눈을 감지 못하고 있으니, 자손에게 끝없는 아픔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반드시 흠전欠典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함당하고 화禍를 받은 까닭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대략 소疎 가운데에 언급했고 또 위에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당초 묘당廟堂에 바친 글을 이미 예람하셨으면 그 사이의 곡절에 대해 성명聖明께서 이미 통촉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급히 격문檄文을 띄울 즈음에 말이 당로자當路者를 범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침 그 일을 기회로 삼아 앙갚음을 하려고 사용된 단어를 트집 잡은 데 불과한 것인데, 진장眞狀을 없애버리고 가장假狀만을 끄집어내어 베껴 쓴 뒤 죄주기를 청함으로써 진위眞僞를 어지럽힌 것이었습니다. 이에 언관言官으로 있던 자들이 그 풍지風俗에 따라 반드시 죽을 처지에 두고야 말려고 사사로이 인척을 감쌌다는 말까지 하여 위로 신청宸聽을 어지럽혔는데, 선조께서 그 말이 억지라는 혐의를 갖고 계시면서도 마침내 멀리 귀양보내라고 명하시어 그 억울함을 아뢰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선한 곡절은 왕자를 호랑虎狼의 입에서 보전하여 위임받은 책무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적과 항변하여 급하지 않았던 정상으로 말하면 적의 주장이 여덟 살 되는 손자에게 화풀이를 하여 사지를 자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같이 잡혀간 사람들이 목격할 일입니다. 그리고 진장과 가장 두 가지로 했던 것은 군중軍中에서 속임수를 쓰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설사 가장을 진장이라 하더라도 일단 ‘일본의 장군 청정淸正’이라 하였고 보면 이른바 ‘관백전하關白殿下’라고 한 것은 저들 적이 자기 임금을 스스로 칭한 말로서 우리가 곧바로 보낸 서장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디 죄를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인데, 더구나 속여서 쓴 가장만 들춰내고 진정으로 아뢰 본장은 숨겼음이겠습니까. 그런

데 그 가장이라는 것 역시 보내졌던 본문이 아니고 베껴 써서 보낸 관제로 그 말이 준열하게 된 것인데, 언서諺書로 밀통한 왕자의 수찰手札마저 아울러 습겼으니, 아,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교묘하고도 참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당시 판부사이던 이정구·김류 등이 선생의 신원을 청원한 글에 “황정욱의 일은 다만 그의 장계狀啓 가운데에 ‘관백전하關白殿下’라고 칭한 것을 죄안罪案으로 삼은 것인데, 국외局外의 사람 중에는 혹 의심하여 분노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황정욱이 공초한 말과 묘당에 올린 글이 나와서야 비로소 그가 신臣이라고 한 것과 전하라고 한 것은 모두가 가장假狀이고 바로 저 적들이 자기 임금을 스스로 칭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상달한 본장本狀 및 왕자의 수찰은 본디 별건이 있었으나 다 아뢰지 않았다 하니, 그가 원통함을 말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여덟 살인 손자를 눈앞에서 사지를 잘랐으나 신복臣服하지 않은 정상도 알 수 있습니다. 의논하소서.”

하고 탄원하였다. 이리하여 30 여년이 지난 뒤에야 신원되었다.

4. 황정욱의 파주관련 시

파주 관련 한시는 다음과 같다.

二水亭 이수정

白石之川廣灘水 (백석지천광탄수)	백석리의 지천인 광탄수 물줄기는
合歸長浦洛河潭 (합귀장포락하혼)	장포에서 합류해 낙하도로 흘러간다
欲將清濁皆吾有 (욕장청탁개오유)	나에게도 청·탁이 어찌 없으리오만
却恐泥沙汚了人 (각공니사오료인)	두려워라, 진흙탕 속에 생이 끝이 날까 봐

纔到門前須揭厲。(재도문전수게려)	문전에 다다라 잠깐 올려다 보니
時憑亭上翫塗津。(시빙정상완도진)	정자위서 읊어대네, 진흙탕에 나루가 덮였다고
路人只見分流異。(로인지견분류이)	길가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물줄기라 말 하지만
未省汪洋度量均。(미성왕양도량균)	넓은 바다에 가면 한물로 섞임을 미처 모르네

이수二水란 글자 그대로 두 물줄기를 말한다.

여기에서 이수란 파주 고령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와 장지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합류해 광탄수가 되어 다시 장포에서 임진강 물줄기를 만나 낙하도로 흘러든다 하여 이수二水라 했다. 그러나 위 시에서의 두 물줄기는 임진왜란 중 임금에게 올린 진장眞狀과 가장假狀의 이중적 내용을 함의含意하고 있다. 하나는 흐린 물 또 한줄기 물은 맑은 물, 하나는 가짜 항복문서, 하나는 진짜 글, 그러나 사람들은 진실도 모르고 정자위에 앉아서 떠들어댄다. 진흙탕에 더럽혀진 나루터가 구경거리인양, 정자 위에 앉은 사람들은 국가 초유의 위기상황 속에서 편안하게 구경만 하는 높은 벼슬아치들을 상징한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비록 강물은 청漣, 탁濯의 물줄기가 함께 섞여 흐를지라도 드넓은 바다로 가면 함께 뒤섞여 푸르고 무량한 물이 되듯 역사라는 도도한 흐름에 어찌 내 편과 네 편이 있을 수 있으랴? 종묘사직을 지키고 두 왕자를 위기에서 구한 일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인가?

이수정二水亭은 파주읍 백석리에 있던 정자이다. 파주시지에는 이사정二酒亭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정자의 위치에 대해 『파주지명유래집』에 “파주 주내 남쪽 10리 백석리 광탄천의 응암과 현암 절벽위에 정자가 있었으며, 현재도 정자동이라는 지명이 있다” 하였다. 현재는 터만 남아 있다.

題李應教綏祿交河亭子 이응교 수록 교하정에서

天翻地覆山河異 (천번지복산하이)	천지가 뒤집힌대도 산과 강은 서로 다르고
物盡人銷風景留 (물진인쇄풍경유)	만물이 다하고 사람이 가도 풍경은 여기 남아
得見高亭俯滄海 (득견고정부창해)	높은 정자에 올라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
能令老子快雙眸 (능령노자쾌쌍모)	이 늙은이 두 눈동자 상쾌하게 트이누나

青紅疊暈樓臺壯 (홍진신휘누대장)	청홍색의 휘황한 누대는 장관을 이루고
縹緲星槎河漢修 (표묘성차하한수)	아득히 흐르는 별빛 은하수로 흐르는데
自笑問津猶未已 (자소문진유미사)	아직도 삶의 방향을 몰라 혼자 웃으며
須君同泛剡溪舟 (수군동범엽계주)	모름지기 그대와 함께 한배를 타고 싶네.

題李綏之綏祿網橋新亭 이수지녹강교 신정

金蠅里絕網橋庄 (금승리절강교장)	금승리에 얽어 놓은 농막에 묶으며
欲往從之 道阻長 (욕주종지도조장)	어찌 먼 갈 길 어렵다 말을 하리

桃李春風含懊惱 (도이춘풍함오뢰)	봄바람에 오얏꽃도 괴로움을 머금었고
蒹葭秋水問舟航 (염하추수문주항)	갈대꽃 가을물에 뱃길을 물어보나니
分留物色新篇在 (분류물색신편재)	새 문장에 꼭 알맞은 인재를 찾는 날에
一辦權娛老興狂 (일변환오오노흥광)	말년을 유쾌히 지나며 즐기려 했거늘
可笑江山違宿債 (가소강산위숙채)	우습고나, 이 강산에 진 빚도 못 갚았는데
風流休托少年場 (풍류휴탁소년장)	풍류는 잠시 접고 소년처럼 살고 싶다니

현재의 탄현면 금승산金蠅山은 당시 교하현에 속했다. 그곳에는 백강 이경여 선생의 부친 이수록李綬錄이 건립한 교하정交河亭이 있었다. 이수록은 세종대왕의 6대손으로 호는 수지綴之 라 하고 여주목사, 서산군수 등 여러 벼슬을 한 청백리로서 임진왜란 후 민심 수습에 노력하였다. 후손 이관명, 이후지 등 4대가 재상을 역임한 명문으로 이들 가문의 교하장사交河莊舍, 또는 새로 지었다 해서 신정新亭은 이 교하정을 말하는데, 이때 이수록과 친교가 있던 황정욱이 이정자에서 머무르며 마음을 다스리고 시를 남겼다.

金蠅山下 廳杜鵑有感 금승산 아래서 두견새 우는 소리 듣고

滿山明月不如歸 (만산명월불여귀)	온산에 달빛 내린 밤 슬피 우는 두견새는
血赤心丹盡夜啼 (혈적심단진야제)	가슴속 붉은 피를 다 말리며 울어대는데
河上晚歸歸便好 (하상만귀귀편호)	물위에 늦게 돌아온 배 무사히 돌아가고 싶거든
莫教驚覺待晨鷄 (막교경각대신계)	기필코, 새벽 닭 울기만 참고 기다리게나

인생에 있어 가장 기쁘거나 가장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를 찾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니던가. 금승산은 선생의 부모 묘소가 있는 산이기도 하여, 온산에 달빛 내리는 밤 두견새 울음소리에 피눈물을 참는 대인大人의 시 한 편에 뛰어난 절조가 엿보인다.

登烏頭城 錄示同游 오두성에 올라 함께 노니는 사람에게

三岐水合一眉橫 (삼기수합일미횡)	세 줄기 물이 합쳐 눈썹처럼 흐르는 곳
拔地烏頭見古城 (발지우두견고성)	까마귀 머리 모양의 옛 성이 보이는데
鳥去鳥來 天界白 (조거조래천계백)	새들은 날아가고 날아오며 하얗게 날고
潮生潮落島分靑 (조생조락도분청)	조수물은 들고 빠지며 파랗게 섬 하나 띄운다

神遊八極樓居好 (신유팔극루거호)	신선이 노니는 곳 팔각루처럼 거처도 좋은 곳
目送千帆海道清 (목송천범해도청)	눈길은 천 척 배를 보내고 바닷길은 맑고 맑아
多少同游俱興逸 (다소동유구흥일)	같이 노니는 우리들의 흥취 이 즐거움은
依然風詠舞雩行. (의연풍영무우행)	의연히 풍월을 읊던 무우행이 아니던가

오두산성鳥頭山城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교하(현 탄현) 오두산에 있는 백제시대 성으로 일명 관미성關彌城이라고도 한다. 표고는 119m, 총 길이 620m의 조그만 성이지만 삼국시대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현재 통일전망대가 있는 곳이다.

3. 결론

가) 황정욱선생의 시에 대해서

장유는 지친집 서문에서 “지천의 원고로 말하면 근체시近體詩도 2백 수를 미처 채우지 못하고 고시古詩에서 뽑아 낸 가행歌行- (한시의 한 체體로서 고악부古樂府의 장가행·단가행처럼 가歌와 행行을 겸한 것)은 하나도 전하지 않는 등 적막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남아 있는 시들만 읽어 보더라도 자유분방한 가운데 기위奇偉하기만 하여 그 뛰어난 장구章句들이 읽는 이를 압도하며 놀라게 하였는데, 이는 바로 그가 독자적으로 이루어 낸 경지로서 그야말로 두 명의 대가 즉 호음 정사룡, 소재 노수신과 서로 각축할 만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니 ‘부시賦詩가 어찌 꼭 많아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한 자미子美, 두보杜甫의 말이 당연하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공의 산문으로 말하면 남아 있는 원고가 더더욱 적기만 하다. 그러나 도당都堂에서 쓴 하나의 글만 보아도 거리낌 없이 필력筆力이 발휘되고 있는데, 고기 한 점만 맛보아도 술 전체의 국물 맛을 알 수 있는 것인 만큼 한 번 음미해 보면 각자 그 경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고 극찬하였다.

김석주는 『식암시평』에서 황정욱의 시를 날쌔 송골매가 바람을 만난 듯(쾌골박풍快鶻搏風), 건강한 아이가 독수리를 쏘듯(건아사조健兒射鷹)하다 평했다.

나) 특히 문장의 구성과 표현법에 있어 객체客體의 대비적對比的 이중구조二重構造를 활용함으로써 시적 효과를 극대화한 점이 독창적이다. 그 옛날에도 현대시 작법의 은유법을 유효하게 활용한 점이 뛰어나다. 시 二水亭이 대표적인 작품으로 뛰어난 기교가 엿보인다.

다) 파주시지에 정자에 대한 기록이 수정되어야 한다.

※ 현재의 기록

이사정二泗亭-파주읍 백석리에 위치하였다. 신태동이 퇴관후 아들 신치복이 파주목사로 있던 때에 백석산 남 맥 절벽 아래에 정자를 세워 고령산과 장지산에서 흐르는 물이 합류한다. 하여 이사정이라 이름 짓고 이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지금도 백석리에는 정자동 자연부락명이 남아 있다.

※ 수정할 내용

이수정二水亭- 또는 이사정二泗亭. 건립 연대는 조선 중기 임진란 이전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신태동(1659-1729), 신치복(연대 미상) 이 건립했다’ 는 부분은 수정하여야 함.

※ 현재의 기록

칠송정七松亭-적성현지에 보인다. 이천二川 위 큰 길 옆에 어사魚沙라는 흙으로 이루어진 둔덕이 있는데 이를 칠송정이라 하였다. 고려 태조가 왕래했던 곳이며, 궁예가 철원에 도읍을 정했을 때 쉬던 곳이다. 위치는 탄현면 갈현리로 추정되는데, 백강 이경여가 광해군 때 낙향하여 운둔하였던 곳이라 한다.



〈여지도〉

※ 수정할 내용

칠송정七松亭- 여지도與地圖(18세기 중반 제작)에 칠송정은 적성 파산서원 북쪽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위치는 탄현면 갈현리로 추정되는데, 백강 이경여가 광해군 때 낙향하여 운둔하던 곳이다.’는 삭제 되어야 함.

상기 2편의 시로 볼 때 탄현 칠송정은 교하정交河亭이 아닌가 생각이 들며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두어야 하겠다.

라) 임진왜란 당시의 상도당서上都當書를 쉽게 번역하여 국사교과서의 보조자료로 활용함을 건의 함.

마) 임진왜란과 6.25를 대비시켜 국난극복의 정신교육 자료로 활용함을 건의 함.

◎ 참고문헌

- 한국고전번역원 문집총람
- 파주금석문대관, 2000, 파주문화원
- 파주군지, 1995, 파주군
- 파주시지, 2009, 파주시
- 국사대사전, 2001, 민중서관

방촌과 율곡, 우계의 문학세계를 관류하는 시대정신에 관한 고찰

박재홍*

1. 들어가는 글
2. 방촌과 율곡, 우계의 철학
3. 무소유와 무집착의 문학세계
4. 나오는 글

1. 들어가는 글

파주를 대표하는 선현으로 방촌과 율곡, 우계성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파주를 대표하는 이 분들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많은 연구와 저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 행장(行狀)과 정치적 생애, 학문적 성과 등이 중심이 되었다. 그동안 중심으로 다뤄지지 못했던 세분의 문학세계를 분석해 보고 작품 속에 투영된 시대정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옛 선비들은 학문과 문학을 동일시하는 바가 있어서 남겨진 글을 통해 세분이 추구했던 정신적 유산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방촌(龐村) 황희(黃喜)정승은 1363년 개성에서 태어나 1452년 89세로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무려 19년간을 영의정으로 재임하면서 백성을 사랑하고 청빈낙도(淸貧樂道)를 실천한 명재상(名宰相)으로 후대에까지 널리 알려진 분이다. 방촌선생은 17편의 한시와 5편의 시조를 남기셨는데 한결 같이 청빈하고 여유로우며 인간을 배려한 성품을 살펴 볼 수 있다.

* 파주문화연구소장, 국민대행정대학원 교수

율곡(栗谷) 이이(李珣)는 1536년(중종31년) 강원도 강릉 오죽헌에서 덕수(德水) 이(李)씨 원수공과 평산(平山) 신(申)씨 사임당(師任堂) 사이의 7남매 중 3남으로 태어났다. 8세때 화석정시, 10세때 경포대부를 지었고 23세때 장원 한 이후 29세까지 아홉 번이나 장원하여 구도장원공으로 불리신 분으로, 그의 교육사상은 ‘입지(立志)’다. 그의 저술 자경문(自警文)과 성학집요(聖學輯要), 격몽요결(擊蒙要訣)을 통해 자립교육의 중요성을 살펴 볼 수 있고 이기일원론의 철학사상과 민본사상으로 압축되는 정치관, 정의로운 경제활동과 부국강병 등을 주장하여 임진란이 일어나자 유성룡(柳成龍)이 ‘율곡은 참으로 성인이다’고 할 정도로 극찬한 인물이었다. 율곡전서에 기록된 작품 중에 ‘고산구곡가’와 연비의 시문을 통해 성리학과 불교, 도교 등의 정서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무집착의 세계관을 이해 할 수 있다.

우계(牛溪) 성혼(成渾)선생은 1535년 서울 순화동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파주 파평(坡平)의 우계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금의 파산서원 뒷산이 소를 닦았다하여 그 앞을 흐르는 늘노천의 옛 이름을 소개울(牛溪)이라고 불렀는데, 율곡 이이 선생의 본향인 율곡리(栗谷里)와는 지척이다. 선생은 1551년 생원 진사의 양장 초시에 모두 합격하였고 1568년부터 수십 차례 조정에서 벼슬을 주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는 의리를 중히 여기는 가문에서 성장하여 의리실천을 위한 수행으로 일관한 우계의 이른바 순수도덕주의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임진왜란 때 잠시 대사헌과 좌, 우참찬을 지낸 것을 빼놓고는 오직 후학 양성과 성리학의 탐구에 평생을 바친 것 또한 바로 이 의리사상을 실천하고자 한 것이었다. 우계 선생은 율곡 보다 한 살 위다. 임진강변에 남아있는 반구정과 화석정, 파산서원은 역사상 유명한 세 분의 채취가 배어 있는 곳이다. 특히 우계 성혼과 율곡 이이는 임진강변 율곡리와 늘노리를 번갈아 오가며 아홉 차례나 서신을 주고받았다. 이 때 두 사람의 사단칠정(四端七情)과 인심도심(人心道心) 논쟁을 통해 한국 성리학의 수준을 한 차원 높게 끌어올렸는데, 이를 두고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기호학파의 전성기로 평가하기도 한다. 당시 사상계의 거목이었던 두 분의 철학적 관심과 과제 역시 의리(義理)의 탐구와 실천이었다. 이 글은 이미 세분의 학문적 배경이나 철학관, 정치적 이념 등 많은 문헌 연구를 통해 밝혀졌던 사실들을 생략하고 오직 순수한 문학작품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관류하는 시대정신을 확인하고자 한다.

2. 방촌과 율곡, 우계의 철학

율곡의 철학사상은 도학사상의 맥을 잇는 성리학의 입장을 견지 하면서도 양명학과 불교, 노장철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를 합치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율곡의 학문적 태도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합리적 판단을 구하되 그 본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율곡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을 근본으로 인격이나 학문을 닦고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성리학에서 리(理)란 우주와 인성의 근본원리로서 리(理)가

기(氣)에 의해서 삼라만상이 형성되는 것으로 理와 氣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본 반면에 理와 氣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氣가 발하려면 理가 따라야 하는 것으로 理와 氣는 결국 하나라는 이른바 이기(理氣)일원론(一元論), 또는 이기호발론(理氣互發論)을 주장하였다.

우계 성혼의 사상은 「우계집(牛溪集)」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데, 우계는 의리를 “물(物)에 있는 것은 리(理)가 되고, 일(事)을 처리함에서는 의(義)가 된다”고 말한다. “물(物)은 인위적 의지나 가치가 개입되지 않은 자연적 상태를 말하며, 객관적이며 자연적인 이치인 리(理)에 따른다. 이치에 바탕을 둔 인간으로서의 행위가 ‘일(事)’이다. 또한 행위는 주체와 어떤 대상과의 특정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게 되는데, 이 특정한 상황에서 그것에 적합한 행위와 판단을 찾아내는 것이 ‘의(義)’다. 리(理)가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것이라면 의(義)는 한시적이며 인위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리(理)는 의(義)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의(義)는 리(理)가 구체적 행위로 표출된 것이다”라고 한다. (우계학보, 제19호, 김낙진, 2000. 10)

조선조의 시대정신은 성리학이다. 율곡의 시대는 성리학이 아니면 모두 이단시하여 다른 학문이 받을 붙이기 어려웠던 시기에 불교의 무집착(無執着) 과 도교의 자연합일(自然合一), 무소유(無所有) 정신을 성리학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율곡을 퇴계와 달리 창조적 지식인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이런 점 때문이다. 율곡과 같은 시대를 산 우계 성혼 선생의 학문적 관심과 철학적 과제 역시 의리의 탐구와 실천이었다. 그가 쓴 상소문과 편지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 의리의 문제가 주된 화제로 등장하고 있다.

방촌의 삶 역시 사람에 대해 한없는 애정을 지닌 휴머니스트(Humanist)로서의 삶을 사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누렁 소와 검정 소’ 사건은 방촌을 박애주의자로 만든 계기가 되었다. “비록 미물(微物)인 소라 할지라도 남보다 못하다고 하면 어찌 불평스럽지 않겠는가?” 라는 촌부(村夫)의 힐책이 평생의 가르침이 되어 겸후(謙厚)한 인품을 갖게 한 것이다. 어느 날 선생을 찾아온 제자 앞에서 노비의 아이들이 선생의 수염을 붙들고 놀았으나 꾸짖지 않았다. 제자가 깜짝 놀라 왜? 천하디 천한 종놈의 자식들을 꾸짖지 않는지를 여쭙자 선생께서 오히려 제자를 꾸짖으며 “사람이 날 때부터 귀천이 있겠는가? 모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일진데 노비라 하여 천대한다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제도는 후대에서라도 반드시 고쳐져야 할 걸세” 하며 진노하였다고 전해진다. 그 외에도 ‘매일 마당에 들어와 복숭아를 따먹는 아이들을 꾸짖지 않았고 아침저녁으로 몰려들어 선생의 밥을 훔쳐내어도 다만 웃을 뿐이었다.’는 일화에서 우리는 그의 고매한 인품과 넉넉한 도량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방촌(龐村)의 방(龐)은 두텁다. 크다. 친절하다. 많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 선생의 행장과 잘 어울리는 호가 아닐 수 없다.

3. 무소유와 무집착의 문학세계

(1) 율곡 이이의 문학세계

魚躍鳶飛上下同 這般非色亦非空
等閒一笑看身世 獨立斜陽萬木中

물고기가 뛰놀고 소리개가 나는 것은
위와 아래위가 같은 자연현상이니,
그것은 색도 아니요 공도 아니로다.
무심히 한번 웃고 이내 몸을 돌아보니
석양의 숲 속에 홀로 서 있네.

율곡이 금강산을 주유(周遊)할 때 풍악산의 작은 암자에 있는 노승을 만나 문답을 주고받으며 지어준 시다. “고기가 뛰고 소리개가 날아 본래 아래 위가 하나인데, ‘색즉공(色卽空), 공즉색(空卽色)’ 이라” 『반야경』에 나타난 ‘색즉공(色卽空) 공즉색(空卽色)’의 원리로 본다면, 행복이 곧 불행이고 번뇌가 곧 보리(菩提: 깨달음 혹은 “앎”의 경지)다. 따라서 부처와 중생과 보살은 그 이름만 다를 뿐, 실상은 차별 없이 평등하다고 한다. 율곡은 한 때 불교에 심취하여 금강산에 입산하였는데, 이는 율곡이 성리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성리학의 학문적 원리에 유, 불, 선 합일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학동을 잠간 이별하고 백구주(白鷗州)를 구경하노라
이내 몸 신세는 구름 천리요, 건곤(乾坤)은 바다 한 모퉁이로다.
초당(草堂)에서 잘 자고 가는 도다. 매화에 비친 달이 풍류로다.

도(道)를 배움은 집착을 없애는 것이고 인연을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무집착을 노래하고 있다. 집착하지 않으면 본성을 알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드러나 있다. 이처럼 율곡은 불교나 노자를 배척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유, 불, 선의 원리를 해석하고 이를 자신의 철학과 신념으로 실천해 나갔다.

율곡의 유일한 시조인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연시조는 율곡이 해주 석담에 은거할 때 (1577년, 42세) 지은 것으로 주변의 수양산이 중국 수양산과 이름이 같고, 주자(朱子)가 무이산(武夷山)에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짓고 무이구곡가를 지은 것을 따라 자신

도 석담에 은병정사(隱屏精舍)를 짓고 고산구곡가를 지었다. 서시(序詩), 일곡(冠岩), 이곡(花岩), 삼곡(翠屏), 사곡(宋崖), 오곡(隱屏), 육곡(釣峽), 칠곡(楓岩), 팔곡(琴灘), 구곡(文山) 으로 이름 짓고 고산의 구곡 풍경을 노래하며 벗들과 모여 학문을 이야기하고 감회를 읊었다.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도산 12곡과 쌍벽을 이루는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1) 고산구곡가를 지은 동기

高山九曲潭을 사람이 모르더니
誅牙卜居하니 벗님네 다 오신다.
어즈버 武夷山을 想像하고 學朱子를 하리라
(고산 아홉 굽이의 경관을 사람들이 모르더니
때풀을 베고 집터를 마련하여 살아가니 벗님들이 모두 오신다.
아! 무이산을 상상하면서 주자의 학문을 배우리라.)

(2) 冠岩(갓바위)의 아침 풍경

一曲은 어데메오 冠岩에 해 비친다.
平蕪에 내 걸으니 遠山이 그림이로다.
松間에 綠縛을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일곡은 어디인가? 갓 바위 위에 해가 비치는 구나
잡초가 우거진 들판에 안개가 걸히니 원근의 풍경이 그림이로다.
소나무 숲 사이로 슬통을 놓고 벗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바라보노라.)

(3) 華岩의 저무는 봄

二曲은 어데메오 華岩에 春挽켜다
碧波에 꽃을 띄워 野外로 보내노라
사람이 勝地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찌리.
(이곡은 어디인가? 화암(꽃바위)에 봄이 저물었도다.
푸른 물결 위에 꽃을 띄워 들판으로 보내노라.
사람들이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모르니 알게 하면 어떻겠는가?)

(4) 翠屏의 여름 풍경

三曲은 어디메오 翠屏에 잎퍼졌다.

綠樹에 山鳥는 下上其音하는 적에

盤松이 바람을 받으니 여름풍이 없어라

(삼곡은 어디인가? 푸른 병풍인 듯 펼쳐져 있는 절벽에 나뭇잎들이 우거져 있다.

푸른 물 위로 산새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며 노래를 부를 때에,

키가 작고 가로로 퍼진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으니 여름 풍경이 따로 없구나.)

(5) 松崖에서의 황혼 절경

四曲은 어디메오 松崖에 해 넘거다.

潭心巖影은 언갓 빛이 잠겼어라

林泉이 깊도록 조으니 興에 겨워하노라

(네 번째 제곡은 어디인가? 소나무가 선 절벽 너머로 해가 지는구나.

물 위에 비친 바위 그림자는 온갓 빛으로 잠기었도다.

숲속의 샘이 깊을수록 좋으니 흥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6) 水邊精舍에서의 詠月吟風

五曲은 어디메오 隱屏이 보기 좋다

水邊精舍는 瀟灑함도 가이없다.

이 중에 講學도 하려니와 詠月吟風하노라

(오곡은 어디인가?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절벽이 보기가 좋구나.

물가에 지어 놓은 정사가 맑고 깨끗한 것이 그지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문을 연구하려니와 시를 읊으며 풍류도 즐기리라.)

(7) 釣峽의 풍류

六曲은 어디메오 釣峽에 물이 엷다

나와 고기와 낚야 더욱 즐기시고

黃昏에 낚시를 메고 帶月歸 하노라

(육곡은 어디인가? 낚시질하기에 좋은 골짜기에 물이 넓게 많이 고여 있다.

나와 물고기 중 누가 더욱 즐기고 있는가?

황혼녘에 낚싯대를 메고 달빛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오노라.)

(8) 楓岩의 가을 경치

七曲은 어데메오 楓岩에 秋色좋다

靑箱 옆에 치니 綠壁이 錦繡로다

寒岩에 혼자 앉아서 집을 잊고 있노라

(칠곡은 어디인가? 단풍이 물든 바위에 가을빛이 깨끗하구나.

맑은 서리가 얇게 드리우니 절벽(단풍에 덮인 바위)이 마치 비단처럼 아름답구나.

시원한 바위에 혼자 앉아서 집에 돌아갈 생각마저 잊었노라.)

(9) 琴灘의 아름다운 물소리

八曲은 어데메오 琴灘에 달이 밝다

玉軫金微로 數三曲을 노는 말이

古調를 알이 없으니 혼자 즐겨 하노라

(팔곡은 어디인가? 거문고 연주하는 듯 물소리가 흥겹게 들리는 여울에 달이 밝다.

훌륭한 거문고로 몇 곡을 연주하며 노니

은치 있는 옛 가락을 알 사람이 없으니 혼자서 즐겨워하노라.)

(10) 文山의 눈 덮인 경치

九曲은 어데메오 文山에 歲暮커다

奇巖怪石이 눈속에 묻혔어라

遊人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구곡은 어디인가? 기암괴석이 뒤섞여 아름답게 아름다운 곳에 한해가 저물었도다.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 보이지 않을까 걱정되는구나.

여행객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전반적으로 이 작품은 표현에 있어서 묘사가 배제되고 감정 표현이 절제되어 있기 때문에, 비서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충만한 정감을 담담함 속에 농축시키고 있다. 특히 4연과 5연에서 소나무 가지에 맑은 바람이 부는 취병의 시원한 정경과 맑은 물 위에 비친 해질녘의

산 그림자, 노을이 진 하늘빛을 배경으로 절벽에 선 소나무의 모습 등 정경을 섬세한 감정으로 노래하고 있다.

7연에서 깨끗한 물에서 낚시하는 작가의 모습에서 ‘物我一體’와 ‘物心一如’의 경지를 본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즐기다가 황혼녘에서야 낚싯대를 메고 환한 달빛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풍경이 여유롭고 정겹다.

8연과 9연에서도 높은 산의 가을 정취를 감상하며 절경의 아름다움에 고조되어 집에 돌아가는 것도 잊고 계곡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있는 작자의 모습과, 아름다운 물소리를 내며 흐르는 계곡 물가에서 거문고를 연주하며 홀로 즐거워하는 풍류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과 음악과 사람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몰아일체(沒我一體)를 느끼게 해준다.

<고산구곡가>에 등장하는 모든 소재들은 긍정적인 소재들이 주류를 이룬다. 고통과 절망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 구절인 ‘유인(遊人)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업다 하더라.’ 정도가 원망이 담긴 구절이라 할 수 있으나 이조차도 안타까워 할뿐 애써 포용하려는 태도가 엿보인다.

옛 선비들에게 자연은 학문 수양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었다.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학문의 즐거움을 스스로 깨닫는 공간으로 율곡의 <고산구곡가>는 생명력을 갖는다. 9연이 이런 측면에서 압권이다. 고산의 절경은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차용하여 명명한 경치지만 유독 9연에서 율곡은 글월 ‘문(文)을 써서 고산(高山)을 문산(文山)으로 표현 하고 있다. 문(文)의 의미는 학문을 뜻한다. 눈 덮인 문산을 보며 볼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2) 우계 성혼의 문학세계

우계선생은 의리를 중히 여기는 가문에서 성장하여 의리실천을 위한 수행으로 일관한 삶을 살았다. 임진왜란 때 잠시 대사헌과 좌, 우참찬을 지낸 것을 빼놓고는 오직 후학 양성과 성리학의 탐구에 평생을 바친 것도 이 의리사상의 현실적 실천이었다. 맑은 물과 울창한 숲, 고즈넉한 산허리를 감아 도는 구름을 보며 “何事人間浪得名”이라, 어찌 군자가 허명(虛名)을 쫓을 것인가? 조정의 부름을 거절하거나 벼슬을 사직하기를 수십 차례 거듭하면서 의리에 마땅한 시(時)를 찾아 번민하였을 고절(孤節)한 선비를 그의 문학을 통해 만날 수 있다.

南州晚步(남쪽 물가를 저녁에 거닐며)

度水穿林野望平 물 건너고 숲 지나서 넓은 들녘 바라보니

鳥歸山際暮雲生 새 돌아가는 산 위에 저녁 구름 엉기었네.

田園個是真閒處 밭과 동산은 진정 한가한 곳이니

何事人間浪得名 어찌 인간의 허량한 이름 얻기를 일삼으랴

山居卽事(산에 살며)

三月寒巖初見花 삼월 달 찬 바위에 꽃 처음 피어나니
 繁英寂寞照山阿 활짝 핀 꽃 적막히 산언덕을 비추네.
 天然春色自開落 꾸밈없는 봄 별 따라 저절로 피고 지지만
 不關朱門歌舞多 권세 집안의 춤 노래엔 아무 상관없구나.

溪上春日(봄날 시내에서)

三十年來臥碧山 삼십 년 동안 푸른 산 속에 살았으니
 是非何事倒人間 시시비비 무슨 일로 나에게 이르리오.
 小堂無限春風地 작은 집에 한없이 봄바람 불어
 花笑柳眠閒又閒 꽃 웃고 버들은 졸고 한가롭기 그지없네.

파평(坡平)은 언덕 파(坡)에 편평할 평(平)이니 마치 청빈(淸貧)한 선비가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잠긴 듯, 의연하게 앉은 모양의 파평산 자락에, 깊고 맑은 계곡과 낮은 구릉이 펼쳐져 있고 크고 작은 개천이 낮은 언덕을 연하며 임진강으로 굽이쳐 흘러드는 산자수명(山紫水明)한 땅이다. 이런 명승에 기거하며 인간의 의리를 찾아 끊임없이 탐색을 거듭한 우계 선생에게 권세는 무엇이며 인간의 시시비비 또한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산에 살며(山居卽事)의 4연이나 봄날 시내에서(溪上春日)에서의 2연이 모두 자연 속에 살며 속된 것을 배척하였던 선생의 매서운 의리(義理)와(無所有)를 살피는데 모자람이 없다.

峒隱來間 疾以詩爲訣(동은이 문병을 와 시로 예언함)

思君一見意淒淒 그대 한번 만나보니 내 마음 쓸쓸하고
 去入無窮萬象虛 한번 죽게 되면 무슨 일이 남으리오
 惟想年年山月好 해마다 산 위에 좋은 달이 떠올라서
 淸光依舊照牛溪 맑은 빛 옛날처럼 우계에 비칠 걸세

평생을 병약하였던 선생은 1598년 63세를 일기로 파산서당에서 지병으로 운명하게 되는데, 당시 선생을 찾아 문병을 온 동은(이건)에게 전해준 마지막 구절은 처연(悽然)하기까지 하다. ‘해마다 산 위에 뜨는 좋은 달’은 의(義)의 바탕이 되는 리(理)를 말함이요 마지막 연의 ‘맑은 빛 옛날처럼 우계에 비침’은 의(義)로써 세상의 바른 도리를 행함을 말함이다. 참으로 평생 궁리(窮理)를 쫓아 바른 도리를 행하고자 했던 위대한 철학자의 후회 없는 삶이 그대로 보이는

듯하다.

우계선생은 사상적으로는 의리(義理)를 추구하면서 생활에서는 선비로서의 청빈함을 향시
않았는데 이런 선생의 무소유의 세계를 잘 보여주는 시조 한편이 있다.

말 없는 청산(靑山)이요, 태(態) 없는 유수(流水)로다
값 없는 청풍(淸風)이요, 임자 없는 명월(明月)이라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分別)없이 늙으리라

이 작품의 소재는 대부분의 시조에서 보이는 산수풍월(山水風月)이다. 외형적으로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노래한 보통의 시조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유심히 들여다보면 여니 시조와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 ‘없는’라는 반복된 운율을 써서 있는 것의 기준을 삼은 작품상의 기교가 그 것이다. ‘없는’ 것은 ‘있는’ 것의 모체다. 초장, 중장, 종장마다 등장하는 ‘없다’는 표현이 없었다면 아마 이 시조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 진다’ 식의 자연 친화적인 교훈시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청산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말이 없고 흐르는 물은 흘러가면 그 모양이 없어지게 된다. 시원한 바람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 있으니 구태여 돈 주고 살 필요가 없고 밝은 달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비추니 주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자연의 이치일진데 우리는 이렇듯 평범한 사실을 느끼지 못하며 산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없는 것 같고, 정말 값진 것인데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그것이 청산(靑山)이요, 유수(流水)요, 청풍(淸風)이요, 명월(明月)인 것이다. 이런 자연 속에 어울려 사는 유한한 인간의 존재론적 가치를 종장에서 보여준다. 분별(分別)은 고어(古語)로 시름 또는 걱정을 말하는 것이니 인생도 자연과 같이 있는 듯, 없는 듯 속절없이 살다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고 있다. 앞서 한시(漢詩)에서 보여준 의리(義理)의 문제와는 다른, 문장 기교와 멋스러움을 보여준다. 본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자연 그대로이니 변함이 없는 것이 이치이고 이런 이치에 따라 분별없이 늙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의(義)의 실천이 아니겠는가? 이 시조의 본래 의도는 단순히 자연을 노래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병중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만물의 근원은 원래 ‘없는 것’이라는 철학적 테마를 던져주고 있다. 참으로 ‘무(無)로써 천지만물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노자의 우위자연(無爲自然) 사상과 일맥상통한다고나 할까? 그러나 우계는 도가(道家) 사상가는 아니다. 다만 전원 속에 묻혀 의리(義理)를 찾던 성리학자다. 이 시조에서 산수풍월(山水風月)은 바로 우계 그 자신이다. 평생 의리(義理)와 천도(天道)를 찾아 헤매던 그 자신이 바로 말없는 청산이요, 그가 찾던 궁리(窮理)가 바로 태 없는 유수(流水)였던 것이다. 모든 사물이 ‘있되 없는 것과 같고’ ‘인생은 유한한 것 같지만 무한’하며 ‘소유한듯하지만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소유(無所有)의 세계, 이 또한 하늘의 섭리와 자연의 이치다.

(3) 방촌 황희의 문학세계

방촌은 5편의 시조를 남기셨는데, 우리는 방촌선생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 한 만큼 자연과 농촌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강한 애착을 갖고 계셨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대추 불 붉은 꿀에 밤은 어이 뜬 들이며
벼 빈 그루에 계는 어이 나리는고
술 익자 채장사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대추의 불이 붉은 꿀짜기에 밤(栗)은 어이하어 떨어지며
벼를 베어낸 그루터기에서 계는 어이하어 기어 나와 다니는고,
술이 익었는데 마침 채 팔러 다니는 장사가 오니 술을 걸러먹지 않고 어찌하리)

가을 절기에 잘 어울리는 시다. 이 시조를 읽노라면 마치 밀레의 ‘만종’^(晩鐘)을 보는 것처럼 무르익은 가을의 풍요로운 농촌 풍경이 보이는 듯하다. 대추나 밤, 벼, 계와 같은 어휘들에서 보듯이 방촌 선생은 자연 속에서 여유를 찾고 자연 속으로 몰입하고자 했던 것 같다. 혹자들은 방촌선생이 큰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관직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너무나 쫓쫓한 처신 때문에 고초도 많이 겪은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선생에게 있어 시는 마냥 한가로운 여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달픈 관직에서 물러나 전원 에 파묻히고 싶은 바람이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황희 선생은 14세의 어린 나이에 음직(陰職)으로 복안궁녹사(福安宮錄事)를 제수 받은 이래, 87세 고령으로 영의정을 사임하기까지 오랜 기간 관직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모함을 받고 귀양을 가는 고초를 겪었다. 그럴 때마다 선생께서는 속절없이 자연 속에 묻혀 자연과 벗하며 지내기를 열망했을 것으로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몇 가지 파주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이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세종12년에 교하현감에게 둔전(屯田) 할애를 청하였다가 사간원에 호된 공격을 받아 궁지에 몰렸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 때 이미 선생은 파주에 정착하여 작은 농장을 돌보며 여생을 보내려고 했던 것 같다. 또 68세에 퇴관하여 임진강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반구정을 짓고 갈매기를 벗하며 지내셨다는 기록으로 보아 얼마나 관직생활이 어렵고 힘들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다.

대추가 빨갭게 익어가고 밤나무에 아람은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익어 떨어지는데 계들은 논바닥을 기어 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며 논두렁에 앉아 박주(薄酒) 한잔을 들이키는 모습에서 우리는 ‘오랜 관직생활에서 오는 피로’를 역설적으로 느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를테면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술은 호기 있게 벌컥벌컥 들이키는 ‘맛난 술’만은 아닐 것이다. 아마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서 태평성세를 갈망하던 노(老) 대신의 회한이 그대로 한잔 술에 녹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샷갓세 되롱이 낚고 세우중(細雨中)에 호의 메고
 산전(山田)을 훑매다가 녹음(綠陰)에 누어시니
 목동(牧童)이 우양(牛羊)을 모라다가 잠든날을 깨와다

이 시조는 더욱 적극적으로 농사일을 거들며 초야에 묻혀 지내는 노 정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초 불 붉은 골에..」가 보다 서정적인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면 이 시조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자에 「대초 불 붉은..」이 한 폭의 풍경화라면 이 작품은 6미리 동영상화면이다. 관직에서 물러나면 ‘전원 속에 집을 짓고 조그만 텃밭하나 가꾸면서 노부모 봉양하고 오순도순 살고픈 희망을 갖지 않은 공직자들이 어디 있을까 만은 아마도 방촌 선생은 잠시 한때 파주의 어느 산자락 초가에 머물며 밭에 나가 직접 김을 매셨던 것 같다. 힘든 농사일에 피곤하여 잠시 풀밭에 누웠다가 막 잠이든 것을 철없는 목동이 본의 아니게 시끄럽게 하였을지 모른다. 어느 한때 한가롭게 겪은 이런 사소한 경험도 노 정승에게는 잔잔한 감동으로 전해졌을 것이다.

은퇴 후 선생이 자연에 몸을 맡기고 서민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려 전원생활에 부산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시조가 또 한편 있다.

강호에 봄이드니 이몸이 일이하다
 나는 그물 잡고 아해는 밭출 가니
 뒷메해 업긴 藥을 언제 캐랴 하나니

파주 향교 지에 전하는 파주10경중에 반구어가(伴鷗漁歌)가 있다. 기러기 노니는 강가에 들려오는 어부의 노래가 열 가지 경치 중에 하나로 전하는데, 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선생이 임진강가에 반구정을 짓고 머무실 때 읊었던 시조가 아닌가 짐작해 본다. 봄이 되면 농촌은 정말로 눈, 코 뜰 새가 없다. 논과 밭을 갈아 씨 뿌릴 준비하랴, 볍씨 담그랴, 밭에 모종내랴, 뒷산에 올라가 약초까지 캐랴, 어린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도 빌려야 할 판이다. 오죽하면 68세가 된 노 정승의 일손도 이리 바빴겠는가?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으로 일컬어지는 영의정을 지내신 분이 그물을 잡고 있는 정황을 상상해 보라, 요즈음 한자리했다는 분들이 점잖게 거드름이나 피는 풍조로 볼 때, 귀천을 가리지 않으시는 선생의 소탈한 일면을 새삼 느끼게 된다. 선생에게는 작품마다 등장하는 ‘아해’나 ‘목동’이 결코 귀찮은 존재가 아니다. 흙에서 살며 농사일을 거드는 아이들의 순수함을 선생은 아끼신 것이다. 백성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한 만큼 자연과 어울려 살기를 열망하였던 방촌 선생의 시 세계는 역사상 가장 청렴하였던 관리로서만이 아닌 한사람의 위대한 휴머니스트로서의 모습을 살펴보면데 모자람이 없다.

그는 사람을 사랑했다. 그리고 산과 강도 사랑했다. 지금도 반구정(伴鷗亭, 仰止臺)에 서면 그때 그 어부의 노래가 있고 문산 사목리(沙鷺里) 뒷산에는 밭일하다 춘곤증을 못 이겨 깜박 잠든 노인을 만날 수 있다. 술 익는 계절이 오면 이곳저곳 동네 어르신들의 격양가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선생께서 남기신 시조 몇 수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소박하면서도 진한 감동을 전해 주고 있다.

4. 나오는 글

세분은 파주가 낳은 위대한 선현으로 존경을 받는 분들이다. 세분의 높은 학문적 성과와 명망보다 오히려 문학을 통한 인간적 고뇌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세분의 사상이 더 빛을 발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방촌 선생의 인간사랑과 소박함, 율곡의 무집착과 심즉시불(心卽是佛), 우계의 義理와 무소유가 그것이다. 율곡은 금강산에서 우계는 소개울 강가에서, 방촌은 낙향한 반구정 강가에서 자신을 가다듬고 완성하는데 전념하였다. 배움을 오직 출세와 경제적 성공을 위한 잣대로만 이용하려는 현실에서 볼 때 선현들의 이런 자세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파주문화의 연구’라는 측면에서 볼 때 파주를 기반으로 성장하신 선현들의 문학작품을 해석하고 작품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어 이를 널리 알리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후학을 기르고 재능 있는 작가를 발굴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 * 고산구곡가의 詩句는 파주문화(제14집)에 수록된 이석규(경원대교수)의 ‘율곡과 고산구곡가’의 주해서를 인용하였다.
- * 시 해석은 박재홍의 「彫村 黃喜 선생의 詩 세계와 휴머니즘」과 「義理와 無所有의 探究, 牛溪 成渾의 詩 世界」 일부를 옮겼다.

「파주문화연구」 시민참여가 필요합니다.

박재홍*

파주에는 일종의 공, 사립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향교’와 ‘서원’이 여섯 군데나 있습니다. 울곡 이이선생이나 우계 성혼선생 같이 학문이 높은 경지에 이른 선현을 많이 배출했고 지금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문향(文香)파주의 전통이 면면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문화란 옛것을 통해 새로움을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전통은 이 땅을 지켜온 선조들로부터 왔고, 창조는 이 땅을 지킬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독창성과 다양성이야말로 ‘파주문화’의 원동력이고 지역 정체성을 지켜내는 에너지입니다.

파주만의 독창적인 전통의 기반 위에서 새롭고 역동적인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일을 파주 문화원과 파주예총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주문화원 내에 설치된 ‘파주문화 연구소’가 문을 연지 9년이 되었습니다. 연구소는 주로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옛 문헌을 찾아내어 규명하는 일 외에도 전승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복원하며 새롭게 조명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문화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진강변 정자 찾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6월경이면 첫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전문 인력 확보나 재정 등 미흡한 것이 많지만 내 고장 문화를 새롭게 정립해 나간다는 사명감은 아주 높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갖춘 분들이 많이 참여 하셨으면 합니다.

파주문화에 대한 시민,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후원을 기대합니다.



* 파주문화연구소장

DMZ 역사문화자원의 현황과 보존 및 활용방안 - 경기도 파주시를 중심으로 -

이윤희*

1. 들어가는 말
2. DMZ 역사와 문화
3. DMZ 문화유산 현황과 실태
4. DMZ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1953년 휴전협정 체결로 현재의 휴전선(중앙분계선, MDL)이 그어졌다. 지난 50여년간 남북한의 분단을 고착시킨 휴전선은 폭4km, 동서 248km에 이른다. 공산권 붕괴 이후 유일하게 남은 냉전의 현장, 고통의 현장으로 DMZ는 남아있다.

50여년을 잠자던 땅, DMZ는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50여년이란 세월을 천연의 상태로 보존되어진 DMZ 구역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생태 자원의 보존이다. 수많은 자연 생태계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지난 50여년간 끊임없이 성장, 순환되면서 생태계의 보고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또 하나의 특징은 시·공간적 단절로 인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이다.

* 파주지역문화연구소장

이제 DMZ의 생태자원을 비롯한 역사문화자원을 일깨워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대한 자원활용에 앞서 이들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자원의 현황과 실태 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할 선행과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그동안 이 지역의 자원활용에 대한 많은 연구 용역들이 있었지만 특히 역사문화자원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실질적 조사는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DMZ지역에 대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에 앞선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문헌자료 및 기존에 조사된 DMZ를 포함한 민통선 접경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해 보고 이를 현 시점에서 보존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 글의 성격상 전체 DMZ 구역 중 경기도에 해당하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히 현재 이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활용의 가장 유리한 측면에 있는 경기도 파주시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파주시 지역의 DMZ 구역으로 명명되는 민통선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 논의가 현재 가장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미 정부의 국책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지역이 파주시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이 지역 또한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시 구체적인 현황파악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본 글은 먼저 DMZ 전체권역의 역사와 문화유적 분포현황을 개괄적으로 고찰해 보고 DMZ 구역 중 파주시에 해당하는 지역인 옛 장단군지역(파주시, 연천군, 개풍군)의 역사와 이들 지역의 문화유산 분포상황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지역 문화유산들에 대한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해 보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2. DMZ의 역사와 문화

(1) DMZ의 역사와 문화

민간인 통제구역이 설정되고 그 곳에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것은 불과 반세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전 그곳에서도 한반도의 다른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상의 삶이 이루어졌고 대대로 인간의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따라서 민통선지역에도 우리 선조들의 삶의 흔적들이 잔존하고 있으며 이들 문화유적을 다른지역과 비교할 때 우리 문화유산의 기본적인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반면 이들 지역의 지역적, 지형적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민통선지역인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서 출발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수만년전의 전기 구석기 유적이 임진강, 한

탄강 유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로 확인되며 이것은 연천 전곡리, 파주 금파리 구석기 유적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고대국가 시기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던 요충지였으며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하면서 마지막으로 차지하였던 땅으로 삼국의 문화가 모두 녹아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후삼국시대에는 궁예가 민족통일의 용지를 품고 터전을 잡았던 곳이기도 하다. 삼국시대 이 지역은 중앙세력의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 아래 일정의 자치권을 지닌 지방세력이 존재하였고 그들의 문화역시 중앙과 구별되는 강한 지역색을 띠었다. 고려시대에는 개경의 외곽지역으로 왕도의 문화가 고스란히 젖었던 곳이며 조선시대 또한 수도 한양의 북쪽에 인접하여 그 곳의 문물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였던 땅이다. 따라서 고려와 조선시대를 특징짓는 불교문화와 유교문화가 융합된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지역에는 유교이념이 농축된 향교, 서원, 사우, 누정, 분묘 등과 불국정토의 신앙이 표출된 사찰, 석불, 마애불, 사지 등이 산재해 있다.

이렇듯 민통선 지역에도 다른 지역과 조금도 다름없는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단지 이들 지역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한 일반인들이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 진다면 우리나라 중부지역에 대한 지역사를 더욱 알차게 복원 할 수 있을 것이며 허리잘린 한국의 고고학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민통선 지역의 문화유산이 지닌 민족사적 가치라 할 수 있다.

(2) DMZ 주요 문화유적 분포현황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보호구역내에는 수많은 유적들이 밀집 분포하고 있다. 이는 국립문화재 연구소가 91년부터 10년간 실시한 ‘군사보호구역내 문화유적 지표 조사’에서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의 9개 시군에서 무려 740여 곳의 문화유적이 확인된 점으로 쉽게 추측 할 수 있다. 이 740여건의 유적중에서 민통선 지역내에서 확인된 유적의 숫자는 정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300여건이 존재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연천군의 조사에서 확인된 128건의 문화유적 중에서 민통선 내의 것이 55건인 점으로 미루어 추측할 수 있다. 현재까지 민통선 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전체적인 현황파악은 어렵다. 단지 주요 유적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MZ 지역 및 민통선 주변 문화유적 현황〉

○ 선사유적

유적명	소재지	위치	비고
철원 장흥리 구석기 유적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철원 외촌리 고인돌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	민통선 이북	
양구 해안면사무소내 선돌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해안면사무소	민통선 이북	
양구 현리 선사유적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민통선 이북	
김포 시암리 고인돌군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1301번지	민통선 이북	
연천 삼거리 주거유적	경기도 연천군 군내면 삼거리 722-1번지 일대	발굴유적	
연천 학곡리 고인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273-3	구 민통선 지역	경기도기념물 제158호
파주 동파리 구석기 유적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88·89번지 일대	민통선 이북	
파주 금파리 구석기 유적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산5-1번지 및 158-3번지	발굴유적	

○ 고분유적

유적명	소재지	위치	비고
철원 양지리 고분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양지리	민통선 이북	
전골총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성재산 기슭	비무장지대 내	
창원황씨 묘역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하길리	민통선 이북	
김응하 묘 및 신도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하길리	민통선 이북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5호
김응해 묘 및 신도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하길리	민통선 이북	
이구원 묘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76-4번지	민통선 이북	
연천 삼꽃리 적석총	경기도 연천군 증면 삼꽃리 421번지	구 민통선지역 발굴유적	경기도기념물 제146호
정발장군 묘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백석리		경기도기념물 제51호
경순왕릉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교량포리 산18-2번지	민통선 이북	사적 제244호
박진장군 묘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구 민통선지역	경기도기념물 제110호
연천 학곡리 적석총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20	구 민통선지역	
박태정 묘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부령골	민통선 이북	
정래주 묘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윗공장골	민통선 이북	
허목 묘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산 48번지	민통선 이북	연천군 향토유적 제7호
박종우 묘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반정리 산 55번지	민통선 이북	연천군 향토유적 제4호

유적명	소재지	위치	비고
이양소 묘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신포동	민통선 이북	
임구 묘	경기도 연천군 중면 합수리 정촌말	민통선 이북	
팔효문	경기도 연천군 중면 황산리 168	민통선 이북	연천군 향토유적 제5호
연천 황산리 적석총	경기도 연천군 중면 황산리	민통선 이북	
남양홍씨 묘역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파부리 고릉동 산24번지	민통선 이북	
서문중 묘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민통선 이북	
윤세기 묘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산117	민통선 이북	
파주 점원리 고려석실묘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민통선 이북	
홍낙성 묘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민통선 이북	
서명선 묘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민통선 이북	
서곡리 고려석실묘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산 104번지	민통선 이북	
서곡리 고려벽화묘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산 112번지	민통선 이북	파주시 향토유적 제16호
조석문 묘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민통선 이북	
정곤수 묘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민통선 이북	
안동권씨 묘역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민통선 이북	
사재 김정국 묘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민통선 이북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22호
허준선생 묘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산 129번지	민통선 이북	경기도기념물 제128호
파주 범흥리 고분군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범흥4리 산11번지 일대	접경지역	
파주 성동리 고분군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7008번지	접경지역	

○ 유교유적

유적명	소재지	위치	비고
백기수 불망비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민통선 이북	
유림 대첩비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천동	민통선 이북	
홍명구 총렬비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천동	민통선 이북	
김좌근 기실비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민통선 이북	
총렬사지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천동	민통선 이북	강원도기념물 제72호
박병 청백애민선정비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	민통선 이북	
북관정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중리	군사시설 내	
철원향교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4리 산14번지 (구 철원읍 율하리 향교골)	원래의 향교터는 현재 민통선지역 내에 소재	

유적명	소재지	위치	비고
포총사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5리 산1-1 (구 철원읍 화전리 역촌동 278번지)	원래의 향교터는 현재 민통선지역 내에 소재	
김응하 묘정비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5리 산1-90 (구 철원읍 화전리 역촌동)	원래는 포총사가 있던 민통선 내에 소재	
한재당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224번지	민통선 이북	경기도기념물 제47호
권상 신도비, 정려, 사당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143번지 일대	민통선 이북	
송의전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7번지		사적 제223호
임강서원지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서원말	민통선 이북	
이서 선정비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민통선 이북	
교동향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148번지	구 민통선 지역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8호
연미정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242번지	민통선 이북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4호

○ 불교유적

유적명	소재지	위치	비고
건봉사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	구 민통선 이북	강원도기념물 제51호
두타사지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비무장지대	
철원 천불암지 및 미륵불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근지리	민통선 이북	
철원 운장리 석불상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운장리 삼신산	민통선 이북	
도피안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450 화개산	구 민통선 이북	
철원 이평리 마애불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산142번지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33호
철원 안양사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울리리 215번지	민통선 이북	
철원 복해암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울리리	민통선 이북	
문수사 품담대사 부도 및 비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성 내	군사보호구역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1호
심원사지 부도군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72번지	군사보호구역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8호
연천 북삼리 마애석불입상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2반 34번지	민통선 주변	
파주 동파리 마애사면석불	경기도 파주군 진동면 동파리 산31-1번지	민통선 이북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6호
화개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구 민통선지역	

○ 관방유적

유적명	소재지	위치	비고
성산성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성산	민통선 이북	
소이산봉수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읍이리	민통선 이북	
궁예도성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흥원리, 동송읍, 월정리, 중강리 일대	비무장지대	
동주산성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중리	민통선 이북	
중군봉수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민통선 이북	
삼슬봉 봉수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삼송동	민통선 이북	
오두산성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51번지	군사보호구역	사적 제351호
덕진산성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산13번지	민통선 이북	
도라산 봉수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산14번지	민통선 이북	
조량진 보루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하리 조량진	민통선 이북	
두루봉 보루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용산리 산7번지	민통선 이북	
호로고루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 3리 1,259번지 일대		경기도기념물 제174호
문수산성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일원의 문수산	민통선 이북	사적 제139호
월곶돈대 외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산1번지 일원	민통선 이북	
교동읍성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577	구민통선 지역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3호

○ 생산유적

유적명	소재지	위치
양구 방산 도요지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칠전리, 장평리, 금악리, 송현리, 현리, 오미리, 자월리 일대	군사보호구역

* 참조 : 「분단반세기 비무장지대 대탐사 DMZ는 살아있다」, 경인일보사, 2001

(3) 파주시 민통선구역(DMZ포함)의 역사와 문화

1) 파주시 민통선 구역의 범위

파주시 민통선 구역은 총 139.08km²로 파주시 전체 면적의 20.5%에 해당된다.

△군내면 지역 : 백연, 조산, 정자, 읍내, 송산, 점원, 방목리 등 7개리 등 46.59km²

△장단면 지역 : 노상, 노하, 거곡, 도라산, 석곶, 강정, 정동리 등 7개리 35.21km²

△진동면 지역 : 동파, 용산, 하포, 서곡, 초리 등 5개리 43.37km²

△진서면 지역 : 금릉, 마장, 어룡리 등 3개리 13.91km²

2) 옛 장단군(長湍郡) 연혁 및 역사적 배경

파주시 민통선 북방 지역은 옛 장단군으로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1945년 8.15 광복 후 국토분단으로 인하여 장단면, 군내면, 진동면, 장남면, 진서면이 남한지역이 되고 대강면, 강상면, 대남면, 소남면, 장도면이 북한지역이 되었다. 1962년 장단, 군내, 진동, 진서면이 파주시로 편입되었고 장남면 지역은 연천군으로 편입되었다.

장단군은 경기도 서북쪽에 위치하며 동쪽은 연천군, 서쪽은 개풍군, 남쪽은 파주시, 북쪽은 황해도 금천군과 접하고 있다.

동경 126°34'~126°53', 북위 37°49'~38°13'에 위치하며 전체 면적은 724km²로 1937년 당시 인구가 6만 8,293명에 달했다. 군청 소재지는 장단면 도라산리이다. 이 지역의 시대별 역사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고대

고대 이 지역은 내륙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임진강이 남단을 경계하고 있어 선사시대부터 문화가 발달 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장단 백학에서 신석기 시대의 석기가 출토된 바 있고 인근 지역에서 편석기 등이 발견되어 이미 이 지역에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한시대에는 습천군(濕川郡)으로 불리다가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에서 장천성현(長淺城縣), 또는 장성(長城), 야성(夜城)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인 757년(경덕왕 16) 현재의 지명인 장단으로 개칭하여 우봉군(牛峰郡)의 영현으로 삼았다.

② 고려

995년(성종 14) 송림(松林), 임진(臨津), 임강(臨江), 토산(兔山), 적성(積城), 파평(坡平), 마전(麻田), 정주(貞州), 덕수(德水), 강음(江陰) 등과 같이 적현(赤縣), 기현(畿縣)으로서 개성부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1001년(목종 4)에는 시중(侍中) 한언공(韓彦恭)의 고향이라 하여 단주(湍州)로 승격되었으며 1018년(현종 9) 다시 현으로 환원되어 송림, 마전 등 7개현을 관리하게 되면서 상서도성(尙書都省)의 직할이 되었다.

③ 조선

1410년(태종 10) 송림현을 폐합 하였고 1414년 임강현이 혁파되면서 장단으로 개칭되었다. 같은 해 다시 송림, 임강현으로 분리되었다가 재편되어 임진현에 병합되면서 임단현(臨湍縣)으로 불렸다. 1419년(세종 1) 다시 송림, 임강현이 분리되어 장단현이 되었고 장단현은 세조때 정희왕후 윤씨의 선영이 있는 곳이라 하여 군으로 승격되었고 치소를 도원역(桃源驛)으로 이전 하였다. 1469년(예종 1) 도원역 치소에 진이 설치되면서 도호부로 지정되었으며 1621년(광해군 13) 방어사를 겸하면서 부치(府治)는 백악산(白岳山) 남방인 옛 임

진현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1866년(고종 3) 일시 현(縣)으로 강등 되었다가 부(府)로 복구 되었다.

④ 근대

1895년 행정구역 개편때 장단군으로 개칭되었다.

1949년 국토분단으로 인해 장단면,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 장남면이 남한지역이 되고 대강면, 강상면, 대남면, 소남면, 장도면이 북한지역이 되었다.

⑤ 현대

1972년 법률 제2395호로 장단군의 장단면, 군내면, 진서면, 진동면이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1979년 파주군 조례 제610호로 군내면 통일촌에 군내출장소가 설치되었다. 현재 군내면 백연리(통일촌)와 조산리(대성동 마을), 진동면 동파리(해마루촌)등 3개리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 21개리는 미수복 지구로 주민 미거주 지역이다.

○ 장단군(長湍郡) 연표

시대	연 대	주 요 사 항
고대	757	신석기시대-석기출토 삼한시대,습천군이라 함 고구려의 장천성현 신라 경덕왕 16년, 장단으로 개칭,우봉군의 영현이 됨
고려	995 1001 1018 1062	성종 14년,개성부의 기현이 됨 목종4년,단주로 승격 현종9년,현으로 환원되어 상서도성의 직할이 됨 문종16년,지개성부사의 관장하에 들어감
조선	1410 1414 1469 1621	태종10년,송림현을 폐합 태종14년,장단으로 개칭 예종1년 진이 설치되면서 도호부로 승격,강화,풍덕등 6개현을 관할 광해군13년,방어사 겸무,부치를 백악산 남방의 옛 임진현으로 이전
근·현대	1866 1895 1949 1972	고종3년,일시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부로 복구 고종32년,장단군으로 개칭 국토분단으로 군이 남북으로 나누어짐 장단면,진서면,군내면,진동면이 파주군에 편입

3. DMZ 문화유산 현황과 실태

(1) DMZ 문화유산 분포현황

1)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 읍내리 유물산포지 - 군내면 읍내리 일대
- 와야두골 유물산포지 - 군내면 읍내리 와야두골 일대
- 삼거리 유물산포지 - 장단면 노하리 일대
- 통일촌 유물산포지 - 군내면 백연리 통일촌 일대
- 한수동 유물산포지 - 장단면 석곶리 한수동 일대
- 향교동 유물산포지 - 군내면 읍내리 향교동 일대
- 동파리 유물산포지 - 진동면 동파리 462.463 일대
- 오룡동 유물산포지 - 진동면 동파리 일대
- 전진교 유물산포지 - 진동면 동파리 산2 일대

2) 교통/관방유적

- 도라산 봉수 - 장단면 도라산리 산14
- 덕진산성 - 군내면 정자리 산 13 (고구려성으로 확인)
- 조랑진 보루 - 장단면 노하리 조랑진
- 두루봉 보루 - 진동면 용산리 산 7

3) 분묘유적

- 서문중 묘역 - 군내면 읍내리
- 윤세기 묘역 - 군내면 읍내리 산117
- 흥낙성 묘역 - 군내면 점원리
- 김정국 묘역 - 진동면 하포리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2호)
- 서명선 묘역 - 진동면 동파2리 16
- 정곤수 묘역 - 진동면 하포리
- 조석문 묘역 - 진동면 하포리
- 허 준 묘역 - 진동면 하포리 산129 (경기도 기념물 제128호)
- 한 수 묘역 - 진동면 하포리 (경기도 기념물 제187호)
- 안동권씨 묘역 - 진동면 하포리

4) 고려고분유적

- 점원리 고려 석실분 - 군내면 점원리
- 서곡리 고려 석실 고분군 - 진동면 서곡리 산104
- 서곡리 고려벽화 묘 - 진동면 서곡리 산112 (파주시 향토유적 제16호)

5) 기타유적

- 이서 선정비 - 군내면 정자리
- 동파리 구석기 유적 - 진동면 동파리 산31-1
- 초리 지석묘 - 진동면 초리
- 장단향교지 - 군내면 읍내리
- 마애사면석불 - 진동면 동파리 산31-1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6호)
- 덕진당지(德津堂址) - 군내면 정자리 산13
- 창화사지(昌化寺址) - 장단면 도라산리
- 하포리 지석묘 - 진동면 하포리

6) 근·현대유적

- 구 장단면사무소 (등록문화재 제76호)
- 구 장단역지 (등록문화재 제77호)
- 경의선 죽음의 다리 (등록문화재 제79호)

7) 자연문화재

- 독수리월동지 - 장단반도 일대(천연기념물)

(2) DMZ 문화유산의 보존 실태

민족사의 산 교육장이며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인 민통선 지역이 지난 50여년간의 깊은 잠에서 깨어 최근 남북 경협사업과 남북관계의 완화에 따른 각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민족분단과 동족상잔으로 얼룩진 우리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상징이며 수많은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지역임을 감안 할 때 각종 개발 요인은 문화유산의 심각한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

1) 남북 경협사업 추진

최근 남북협력에 따른 경협사업이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면서 파주시 민통선 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환경은 물론 이들 지역의 문화유산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 남북경협사업에 따른 개발 계획(정부정책)

- △ 남북공동 농업경영사업
- △ 개성공단 건설
- △ 물류유통센터
- △ 자유무역지대

2)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남북화해 및 경협사업의 기반 조성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는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은 이미 민통선내 DMZ 중앙을 관통하는 공사가 완료 되었으며 이 노선은 한국전쟁 이전까지 옛 장단군의 행정 중심지 부분으로 근·현대 유적 및 각종 문화유산의 심각한 훼손이 이미 진행되었거나 향후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

○ 경의선 및 도로 복원 구간의 근·현대 문화유산(조사 확인된 유산)

- △ 옛 장단면 청사
- △ 옛 장단역사(플랫폼)
- △ 옛 경의선 열차 화통
- △ 옛 경의선 죽음의 다리
- △ 옛 장단 금융조합 건물

○ 증언에 따른 미확인 유산

- △ 신사(神社) :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곳으로 장단면 청사 남서쪽 산 정상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영집 궁시박물관 유영기씨 증언)
- △ 장단군 청사 및 장단초등학교 건물지(옛 장단역 남쪽 부근으로 문헌사진 기록이 있음)

3) 평화신도시 건설 및 정착촌 건설

남북 협력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이 지역 인근에 DMZ 평화생명마을 및 평화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최근 민통선내 정착촌이 추가 건설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심리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 DMZ 평화생명마을, 평화시 건설
- 정착촌 건설

기존 대성동 및 통일촌 마을 외에 최근 동파리에 실향민 정착촌인 해마루촌이 조성 완료되었다.

4) 영농지의 확대

최근 남북관계 완화로 인해 민통선내 출입 영농인들이 영농지를 확대 개간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이 지역에 대규모 인삼재배 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장차 출입 영농지의 확대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장단 콩 재배단지 확대(파주시)
- 개성 인삼단지 추가 조성(파주시)

5) 관광지 개발 및 관광객 출입의 증가

현재 파주시 민통선내 통일, 안보 관광지 개발로 인해 하루 평균 1천여명의 관광객이 이 지역을 찾고 있다.

또한, 남북경협이 구체화되면 정부에서는 이 지역에 DMZ 철새탐조 관광열차, 도라산 평화 생태공원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어 민통선 지역의 관광 수요는 날로 증가 할 추세에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성 육로관광이 본격 실시되면 이 지역 출입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이미 정부는 도라산역 인근에 남북출입국사무소(CIQ) 시설을 완료하였다.

- 현재 운영중인 문화관광 자원
 - △ 도라산역
 - △ 제3땅굴, DMZ 영상관
 - △ 도라산전망대
- 현재 개발중인 문화관광 자원
 - △ 허준 선생 묘
 - △ 해마루촌

4. DMZ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1) 민통선내 문화유산 보존대책

1) 고려문화유적권 종합 학술조사

정부의 7대 문화유적권 개발 사업에 포함 체계적인 유적 발굴 및 보존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 파주시 민통선 지역은 고려의 수도 개경의 외곽 지역으로 고려문화권에 속하며 이들 지역에는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고려시대 문화유적이 산재한 지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고려시대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발굴과 정비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남북 공동 학술 조사단 구성)

○ 민통선 지역(DMZ 북측지역 포함) 고려시대 유적 분포 현황

△ 능·묘 유적

- 영릉(英陵): 고려 15대 숙종(肅宗)의 능으로 진서면 판문리에 위치
- 지릉(智陵): 고려 19대 명종(明宗)의 능으로 장남면(長南面)에 위치
- 경릉(景陵): 고려 11대 문종(文宗)의 능으로 진서면에 위치. 개풍군과 인접
- 허흥 묘(許映 墓): 송남면 허능골에 있음. 첨의중찬(僉議中贊)역임
- 염제신 묘(廉梯臣 墓): 송남면 대골원에 있음. 문하시중(門下侍中)역임
- 안유 묘(安裕 墓): 송남면 감암리에 있음. 첨의중찬(僉議中贊)역임
- 한악 묘(韓渥 墓): 서도면 하리에 있음. 첨의정승(僉議政丞)역임
- 안종원 묘(安宗源 墓): 진동면 서곡리에 있음.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역임
- 윤안숙 묘(尹安淑 墓): 장현내면 구절판에 있음.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역임
- 윤승례 묘(尹承禮 墓): 장현내면 구절판에 있음. 판도판서(版圖判書)역임
- 한수 묘(韓修 墓): 진동면 서곡리에 있음. 밀직제학(密直提學)역임
- 권중화 묘(權仲和 墓): 장서면 신릉동에 있음. 총재(冢宰)역임
- 송송례 묘(宋松禮 墓): 서도면 흥릉동에 있음.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책봉
- 송분 묘(宋份 墓): 하도면 백암교에 있음. 낙랑부원군(樂浪府院君)에 책봉
- 박상충 묘(朴尙衷 墓): 송서면 대사현에 있음. 우문관제학(右文館提學)역임
- 우현보 묘(禹玄寶 墓): 장북면 향동리에 있음.

* 이상은 「長湍郡誌」 참조

△ 불교사찰

- 화장사(華藏寺): 진서면 대원리 화장동에 있었던 사찰로 조선시대 양주의 회암사에 버금가는 큰 규모의 사찰이었던 것으로 기록 <「東國輿地勝覽」>
- 창화사(昌化寺): 도라산리에 있었으며 후에 영수암(永守庵)이라 부름. 신라 경순왕과 낙랑공주가 머물던 사찰이라 유래
- 영통사(靈通寺): 오관산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 고려 문종의 화상이 있었음.
- 기타 사찰로 극락사(極樂寺), 흥성사(興聖寺), 성등암(聖燈菴), 낙산사(落山寺), 안적사(安積寺), 증각사(證覺寺), 심복사(心腹寺), 불일사(佛日寺)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 <「東國輿地勝覽」 / 「長湍誌」佛字條>

2)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대책

현재 민통선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가장 심각한 문화유산의 훼손 우려는 한국전쟁 이후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져 있던 근, 현대 전쟁관련 유적이다. 그러나 최근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사업으로 인해 이미 상당부분 훼손이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훼손이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급한 보존 대책 마련과 아울러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① 근·현대 문화유산의 지정 등록

현재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구간 주변에 남아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해 근·현대 문화유산(등록문화재)으로 지정 등록해야 할 것이다.

○ 기지정(2004년)

- 구 경의선 열차 화통(京義線 列車 火筒) 1량
- 옛 장단면 청사 건물(舊 長湍面 廳舍 建物) 1동
- 옛 경의선 죽움의 다리(一名 平和橋) 1교
- 옛 장단역 플랫폼(長湍驛址)

○ 추가지정 대상

- 옛 장단군 청사지
- 구 장단초등학교터

② 근·현대 문화유산 실태 종합조사

민통선 지역내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종합 지표조사 실시

○ 대상범위- DMZ 및 민통선 전 지역

○ 조사단 구성

- 대학박물관, 경기도, 경기도 제2청, 파주시, 해당 軍 관계기관등으로 조사 실무팀 구성
- 문화유산 분포 현황 및 분포지도 제작
- 보존대책 마련의 사실 자료로 활용

③ 전쟁관련 유물 및 관련자료의 수집

민통선 지역내에서 출토 또는 수거된 모든 유물에 대해 한 곳으로 수집 정리하여 박물관 건립시 전시자료로 활용

○ 수집대상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시 출토 또는 발견된 유물 일체 (열차레일, 침목, 화탄(火炭), 각종 지뢰, 기타 경의선 열차 관련 장비 및 도구품 일체)
- 민통선내 군사관련 장비 및 시설물 일체 (철조망, 철모, 개인휴대장비, 총기류 및 의복류등)
- 주민 거주지에서 발견되는 민간 생활도구 (맷돌, 절구, 다듬이 돌, 농경도구 및 생활용품 일체)
- 영상 및 사진 자료
민통선 및 DMZ 관련 영상물/사진 자료, 軍관련 영상 사진 자료, 경의선 철도, 도로 복원 사업 관련 영상 사진 자료 등

- 기타자료
 문헌자료, 옛 지도류, 증언자료 등
- 추진단계
 - 1단계(자료의 소재 파악)
 경의선 복원 사업 과정에서 수거된 유물의 소재 파악 및 파주시로의 이관 협조 의뢰 ⇒ 1군단 공병여단, 사업단, 철도청, 1사단, 기타 공사 참여 기관 및 업체
 - 2단계(유물의 정리 및 보관)
 수집된 유물 및 자료를 한 곳에 정리 보관
 현재 수집된 자료는 군내출장소 주차장 부지내 보관 중(임시 컨테이너 박스 2개동 설치)
 - 3단계(박물관 건립시 자료의 선별 전시)
 도라산역 인근 생태공원내 박물관 건립시 유물 및 자료의 선별 전시
 야외전시: 레일 및 침목
 전시관 구성: 전쟁유물전시관/영상관/사료관(사진자료 및 기타 사료)/생태관/특별전시관(경의선 복원 공사 관련 軍의 활동상)등

(2) 민통선내 문화유산의 활용방안

1) 현장보존 원칙

문화유산의 가치는 현장에 그대로 있을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장에 보존 가능한 유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장 보존을 원칙으로 하여 정비 및 복원을 통해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경의선 개통시 관광자원 코스로 개발

도라산역 → 도라산 전망대 → 제3땅굴 → 죽음의 다리 → 경의선 열차화통 → 장단역 → 장단면청사 → 도라산 생태공원(DMZ 역사박물관)

2) DMZ 역사박물관 건립

현장에 보존 할 수 없는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박물관을 건립 산 교육장으로 활용
△ 도라산 역 인근 생태공원 내 DMZ 역사박물관 건립(경기도 중점사업으로 추진)

3) 역사문화자원과 안보관광 자원의 복합적 활용

- △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일, 안보관광지와 문화유적지를 결합한 문화자원의 활용
- △ 덕진산성, 허준선생 묘, 동파리 마애사면석불, 김정국 묘, 한수 묘, 서곡리 고려벽화묘, 읍내리 석조여래입상, 장단향교지 (이상 파주)

△ 경순왕릉, 호로그루성, 김신조 침투로(이상 연천)등을 연계

4) 옛 의주로(義州路) 탐사 관광루트 개발

고려, 조선시대 중북부 지방으로 연결하는 유일한 국도인 의주로 구간(서울 - 고양 - 파주 - 임진나루 - 장단 - 개성 - 평양 - 의주)의 루트를 복원, 개발해 관광도로로 활용

△ 조선시대 한양과 개성을 잇는 도로망은 파주의 임진강을 건너는 구간으로 현재 민통선 파주지역의 장단을 거쳐 개성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수많은 여행객과 외국 사신 등이 나들던 도로로 풍부한 역사문화 요소(정자목, 여관, 주막, 민가, 나루터 등)가 깃들어 있음

△ 구간

서울 - 무악재 - 홍제원 - 구파발 - 고양동 - 혜음령 - 광탄 - 파주목 - 임진나루 - 동파나루 - 장단(임진나루 뱃길 재현, 동파 주막거리 복원)

5. 나오는 말

민통선 지역과 DMZ는 한반도의 현대사를 50년간 응축시킨 유일한 곳이다. 이 곳은 소중한 생명들이 쉽 없이 움직이고 수많은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간직된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개발과 개발 움직임들은 더 이상 이곳이 통제(보존)의 지역이 아닌 자유(훼손)의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의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와 문화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철저한 보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이들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정비해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번 훼손된 문화유산은 영원히 복구되지 못하며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별첨 > 2. 관련사진



〈사진 1. 허준 선생묘〉



〈사진 2. 동파리 마애사면석불〉



〈사진 3. 읍내리 석조여래입상〉



〈사진 4. 사재 김정국 묘〉



〈사진 5. 서곡리 고려벽화 묘〉



〈사진 6. 유항 한수 묘〉



〈사진 7. 구 장단면사무소〉



〈사진 8. 구 장단역지〉



〈사진 9. 죽음의 다리〉



〈사진 10. 도라산역〉



〈사진 11. 대성동 마을〉

지명과 문화유산을 통한 지역발전방향 모색 - 광탄면을 중심으로

김희병*

1. 머리말
2. 역사 속의 광탄면
3. 광탄면의 지역여건
4. 광탄면의 지역발전방향
5. 맺음말

1. 머리말

사람에게는 성명 즉 이름이 존재하듯이 지역에도 지명이 존재한다.

그 지명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유래되었는지 대부분의 지명은 나름대로 보편타당한 사실성과 지형의 현상학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지역 고유지명을 통해 그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아울러 그 지역의 지명과 함께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살펴보면 그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개발 잠재력을 살펴볼 수 있어 향후 지역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반을 엿볼 수 있다.

본 글은 파주시 동북면에 입지한 광탄면을 중심으로 지명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통한 지역 발전방향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파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파주시 입장에서 볼 때 광탄면은 과소지역(過疎地域)이며 중산간지역(中山間地域) 여건을 보유한 지역으로 현재 지역의 집적이익이 점점 감소하고 투자의 효율성이 낮아져서 재화와 서비스 공급기능이 쇠퇴하고 있어 결국 타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누적적 악순환을 겪고 있는 면소재지다.

따라서 광탄면은 지역의 고유 지명과 문화유산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 수립이 절실한 지역이다.

2. 역사 속의 광탄면

① 광탄면의 지명.....

현 광탄면 지역은 삼국시대에는 술이홀현에 속한 곳이었으며 그 후 통일신라 때에는 한주의 봉성현, 고려 전기에는 양주, 후기에는 양광도의 서원현, 그리고 조선 말기까지 파주군에 속한 곳이었다.

1983년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의해 양주군 백석면의 기산리와 영장리를 편입, 2개리가 늘어 현재 면 소재지인 신산리를 비롯 9개리로 구성되어 있다.

1) 기산리(基山里)

- 조선시대, 양주군 백석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기곡리·내고령리 전부에 중산리 일부를 편입하여 기곡(基谷)의 ‘기’자와 중산(中山)의 ‘산’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 자연마을 : 우장동, 중산동

2) 마장리(馬場里)

- 조선시대 광탄면 지역으로, 이 지역을 1504년(연산군 10) 전국에서 군마를 집결시켜 사육하고 기마훈련장으로 이용하게 되어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마장골 또는 마장동이라 하기도 한다.
- 자연마을 : 마장동, 보월동, 샘골, 울리동, 야광동

3) 발랑리(發郎里)

- 조선시대 광탄면 지역으로, 이곳 뒷골짜기에 절이 있어 이 마을을 지나는 중들이 등에 바랑을 지고 다녔다 하여 붙은 이름으로 바랑골·바랑골·바랑동·발랑동이라고도 한다.
- 자연마을 : 능발, 대고령동, 야광이

4) 방축리(防築里)

- 조선시대 광탄면 지역으로, 우두산 밑에 분포된 마을로서 광탄천이 흘러 홍수때에 전·답의 매몰 등 극심한 피해를 입게되어 하천옆으로 방축이 있어 방축말 또는 방축동이라 하기도 한다.
- 자연마을 : 검전동, 방축동, 새터, 제평동(굽부리)

5) 분수리(分水里)

- 조선시대 광탄면 지역으로, 용미리와 분수3리가 만나는 작은 고개가 있는데 이곳을 기점으로 임진강과 한강으로 흘러드는 물이 갈라진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또 역원인 분수원(焚脩院)에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1361년(공민왕 10) 11월에 왕과 노국공주가 홍건적의 난을 피하여 남쪽으로 도망가는 길에 이곳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다.
- 자연마을 : 분수원동, 부석동, 점촌, 후촌동, 내동(안골)

6) 신산리(新山里)

- 조선시대 광탄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신점리·두만리 전부와 조리면 화산리 일부를 병합하여 신점(新店)의 ‘신’자와 화산(花山)의 ‘산’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광탄면의 중심지로 면사무소·경찰지서·학교·우체국 등이 있다.
- 자연마을 : 동거리동, 신탄막동, 내화산동, 외화산동

7) 영장리(靈場里)

- 조선시대 양주군 백석면 지역으로, 보광사 주위 일대에 걸쳐서 임진왜란 당시 서산대사가 이끌었던 승병 수백 명이 목숨을 잃어 원한에 사무친 영혼들이 헤매고 있는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자연마을 : 능말, 대고령동, 야광이

8) 용미리(龍尾里)

- 조선시대 광탄면 지역으로, 조선시대에 무학대사가 풍수지리학설로 개성에서 한양으로 도읍 할 즈음 한양근교인 고양시 신도읍 용두리를 용의 머리로 보고, 용의 몸체를 현 대자리 부근을 이야기하였으며 해음령 고개를 넘어 광탄면으로 와서 용의 꼬리가 아홉 갈래로 나누어졌다하여 구룡리라 명명하였다고 전해진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구룡리·호미리 전부에 분수원 일부를 편입하여 구룡(九龍)의 ‘용’자와 호미(虎尾)의 ‘미’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 자연마을 : 양지동, 옥교동, 석방동, 세류동, 진지동

9) 창만리(倉滿里)

- 조선시대 광탄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환곡을 쌓아 두었던 곳인 사창리 일부 지역과 두만리를 병합하여 사창(社倉)의 ‘창’자와 두만(斗滿)의 ‘만’자를 합쳐 붙인 이름이다.
- 자연마을 : 두만동, 신기동, 송라동, 별만동, 사창동, 도만산동

2] 광탄면의 문화유산....

광탄면은 선현이나 왕실관련 유적만이 아니라 불교·유교유적 등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화재를 살펴보면 먼저 국가지정문화재로 용미리에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坡州龍尾里磨崖二佛立像), 분수리에 윤관장군묘(尹瓘將軍墓), 영장리에 소령원(昭寧園)과 유길원(綏吉園)이 있다. 도지정문화재로 영장리에 보광사대웅전(普光寺大雄殿), 분수리에 심지원묘(沈之源墓) 및 신도비(神道碑)가 있다.

그밖에도 불교유적으로 영장리에 도솔암, 용미리에 용암사, 영장리에 보광사가 있고, 유교유적으로 마장리에 성사영묘와 이수별묘, 분수리에 여충사 등이 있다. 이외 관방유적으로 용미리에 용미리성지가 남아 있으며 원(院)으로는 현재 발굴중인 고려 예종 18년에 창건한 혜음원이 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신앙으로는 용미리 진대굿과 방축1리 산치성이 있다.

1) 파주 용미리마애이불입상

- 용미리에 있는 석불입상은 마애이불로서 고려 때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천연암벽을 동체로 삼고 그 위에 목·머리·갓 등을 따로 얹은 놓은 2구의 불상이다.
- 거대한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했고 조각 각부마다 토속적인 색채가 가미되어 있다. 두 조각 중에 왼쪽 등근 갓을 쓴 것은 원립불(圓笠佛), 오른쪽 사각형 갓을 쓴 것을 방립불(方笠佛)이라고 부른다. 주민의 구전에 의하면 원립불은 남자상, 방립불은 여자상이라 한다. 1963년 1월 21일 국가지정 보물 제93호로 지정되었다.



2) 윤관장군 묘

- 윤관장군 묘는 고려 예종 때 여진정벌로 공을 세운 대원수 윤관의 묘이다.
- 분수리에 있는 이 묘역은 규모가 크고 손질이 잘 되어 있으며, 봉분 전면 가운데 상석, 왼쪽에 묘비가 서있다. 상석 앞에 장명 등을 중심에 놓고 동자상·문무인상·석마 등이 정열해 있어 위엄을 느끼게 해준다. 1988년 2월 27일 국가지정 사적 제323호로 지정되었다.



3) 소령원

- 영장리에 있는 소령원은 숙종의 후궁 숙빈(淑嬪) 최씨(崔氏)의 원소(園所)이다.
- 숙빈 최씨는 최효원(崔孝元)의 딸로 1694년(숙종 20) 영조를 낳고 1718년 병환으로 사가에서 조리하다가 49세의 나이로 돌아갔다. 원역(園域)은 산록 중단부에 동향으로 조성되어 있고 장명등·석마 등을 통해 조선 후기의 석물양식을 알 수 있다. 1992년 2월 13일 국가지정 사적 제358호로 지정되었다.



4) 수길원

- 소령원과 함께 영장리에 있는 수길원은 영조의 장자 효장세자(孝章世子)의 사친(私親) 정빈(靖嬪) 이씨(李氏)의 원소이다.
- 정빈 이씨는 이준철의 딸로 1719년 효장세자를 낳고 1721년(경종 1) 돌아갔다. 원역은 산

록 중단부에 서남향으로 조성되었고 봉분 후면에는 곡장, 전에는 비석·상석·장명등, 그 좌우에는 망주석·문인석이 놓여 있다. 소령원과 같이 국가지정 사적 제359호로 지정되었다.



5) 보광사 대웅전(普光寺 大雄殿)

- 영장리에 있는 보광사는 신라 진성여왕 8년(894) 왕명으로 도선국사가 창건한 후 고려 고종2년(1215) 원진국사가 중창하였고 우왕 14년(1388) 무악대사가 3창하였다.
- 대웅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양식(多包系樣式)의 팔작집이다. 장대석의 높은 기단 위에 자연석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지름이 대략 1자 5치 정도는 굽은 기둥을 세운 조선 후기의 건축양식을 띠고 있다. 1979년 9월 3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3호로 지정되었다.



6) 심지원묘(沈之源墓) 및 신도비(神道碑)

- 윤관장군묘와 인접한 분수리에 있다. 묘역은 합장묘인 봉분과 묘비·망주석·문인석·상석·향로석·댓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도비는 묘역 아래쪽으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1992년 12월 31일 도지정 기념물 제137호로 지정되었다.



7) 혜음원지(惠陰院地)

- 용미4리에 있는 혜음원의 창건에 대해서는 동문선(東文選)에 기록되어있다. 혜음사는 개경과 남경의 교통의 요지에 여행자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려 예종 18년(1122년 2월)에 세워진 원(院)으로 추정된다.
- 혜음원은 일종의 국립숙박기관 또는 자선소의 역할을 한 것으로 크게 법당, 숙박시설, 주방, 창고, 행궁(별원/別院)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한 약 4,000평 정도의 부지규모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하였으며 전체규모의 약 1/3정도 조사되어 있다.



8) 용미리 진대굿

- 용미리 진대굿은 광탄면 용미4리 진지동에서 벌어진다. 이 부락제는 산치성과 무속형이 혼합된 형태를 띠고 진대(장대)고사가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가을에 치러지는 굿이므로 추수감사·제액초복·마을단합이 그 목적이다. 1962년도 이후 음력 10월 3일로 고정하여 고사형식으로 간단히 지냈으나, 그 뒤 마을에 우환이 생겨 1988년부터는 대동굿을 한다.

9) 방축1리 산치성

- 광탄면 방축1리 검전마을에서 행해진다. 그 목적은 마을의 무병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며, 매년 음력 10월 1일 밤 9시경에 산치성을 올리는데 이를 위해 9월 27일 대동회의에서 제의 1인·축관 1인 등 제의관을 결정한다.

3. 광탄면의 지역여건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에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여건 즉 긍정적인 여건이든 부정적인 여건이든 적극 고려해야 한다.

- 광탄면이 가지고 있는 여건 중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북측(금병산 293M)과 동측(개명산 620M, 앵무봉 622M), 남측(명봉산 248M)의 산악지형으로 위요된 지형형성과 동서축으로 잘 발달된 하천 등 양호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 둘째, 서울에서 국도1호선과 국도39호선에 의해 진입이 가능하며 서울 북쪽지역에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 셋째, 파주시 남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교적 타지역에 비해 지정문화재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 보유지역이다.
- 넷째, 고양시와 연결한 용미리 지역을 비롯하여 신산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서울시립공원묘지, 천주교묘지 등 8개 공원·공설묘지구역이 산재하고 있으며 임야 면적 중 약 2.6km²(약 785,600평)가 묘지지역으로 조성되어 있다.
- 다섯째, 신산리 내 2007년도에 이전될 미군부대를 비롯하여 한국 군부대가 관내에 다수 분포하여 입지하고 있으며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산 4,5리, 창만 1,2,3리, 분수1리 지역 약 12.7km²에 대해서는 고도제한 5.5m, 8m에서 45m로 완화될 수 있도록 군조치가 요구되어야 할 실정이다. 또한 미군부대 이전시 본 지구는 파주시는 물론 광탄면의 경쟁 우위적인 사업부지로 변화되어야 한다.
- 여섯째, 파주시 동남부쪽의 내륙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휴양업 성격의 유일레저가 입지하고 있으며 또한 서서울골프장, 서원골프장, 베스트벨리골프장, 프리스틴벨리골프장이 입지하고 있고 고령산에 산악자전거코스가 개발되어 있는 등 레포츠시설이 여타 지역에 비해 잘 조성되어 있다.
- 일곱째, 관내를 관통하면서 지역간연결 기능을 하는 도로가 대부분 동서방향으로는 잘 개발되어 있는 반면 남북방향측의 지역간 연결 기능을 담당할 도로 개설이(국지 86 계획도로) 시급한 실정이다.
- 여덟째, 지역 내 대표농업특산물인 파주팽이버섯 재배지가 입지하고 있어 퓨전(Fusion) 농업의 시범사업지 조성이 가능하다. 아울러 광탄면 대표투자상품개발로 승화시킬 수 있다.

- 아홉째, 광탄으로 주진입되는 국지 56, 국지 78호선이 기존 시가지를 관통하게 되므로 효율적인 교통소통이 곤란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대체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하다. 또한 기존 시가지 내에 집단공용주차장의 확보가 안되고 있어 교통혼잡 가중은 물론 기존 상권확대도 곤란한 실정이다.
- 열 번째, 면소재지 지역인 신산1리(2,3,9,10반), 신산2리(10,11,12,13반)의 29%인 407가구가 종종소유토지로서 건축물의 신·증축불가 등에 의해서 시가지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열한 번째, 수도권 인접지역으로서 1일 관광객과 숙박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거점(Honey pot) 관광지로의 변환이 요구된다.

4. 광탄면의 지역발전방향

①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마련

• 추진방향

: 현재 ‘광탄’ 하면 용미리 묘지공원이 먼저 이미지로 떠오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광탄면의 상징물과 이미지 구성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부존자원이 별로 없었던 일본 이시카와현 노도마치(石川縣 能都町)는 해안에 세계에서 가장 긴 벤치(연장 460.9M, 1,346명이 앉은 기록이 있음)를 만들어 기네스북에 등재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추진방법

- 광탄면의 공설 및 사설묘역을 점진적으로 수립이 있고 조경공간을 갖춘 공원화(납골공원) 하는데 정책적인 대처방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확산되는 산발적인 분묘 집단지는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기존의 묘지공원을 장사법에 근거한 납골공원으로 재정비해 나가도록 유도한다.
- 파주시내 골프장 4개소가 광탄면에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형 운동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층에게 운동과 휴양의 집적효과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운동·휴양시설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요한다. 예를 들면 유일레저 등의 체류형 휴양시설을 확충하여 거점식 체류지에서 숙박을 하면서 골프, 산악자전거, 등산, 승마, 축구, 게이트볼 게임, 테니스 등의 종합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종합레크리에이션 지역으로 변모해 간다.
- 기존의 팽이버섯 재배지를 이용하여 팽이버섯 중심으로 이미지를 강화한다. 팽이버섯뿐만 아니라 각종 식용버섯을 재배하여 버섯축제를 통해 외국, 외지 버섯과의 비교품평회를 개

최하고 전국 여행사 등에 홍보자료를 보내고 파주 출신 연예인 홍보행사도 기획한다. 또한 지역이미지 연출을 위해 도시 곳곳을 버섯의 이미지 연출을 위해 기네스북에 등재할만한 대형 버섯모형설치와 전화부스, 가로등 등의 모양도 버섯모양으로 연출한다. (이시카와현 노도마치(石川縣 能都町)은 마와키유적(眞脇遺跡)에서 출토된 송문토기의 복원을 계기로 마을 젊은이들이 세계제일의 송문토기를 만들었다. 순수 아마추어 손으로 중량 4,000kg, 높이 4.4M, 직경 2.5M의 세계제일의 토기를 만들어 기네스북에 등재하고 시내 일부의 광장에 전시하며 고대토기의 이미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 분수리에 한강과 임진강의 분수지(分水地)를 상징하는 상징광장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분수지의 이야기를 계획시나리오로 하여 상징광장과 상징조형물, 이벤트를 만들어서 광탄면의 새로운 이미지를 선보인다.



〈납골공원〉



〈유일레저〉



〈농산물재배단지〉

② 향토문화연구회 운영

● 추진방향

: 지역공동체를 굳건히 할 수 있으려면 지역주민에게 광탄면 고유의 향토문화 등의 교육을 통해 관내주민들에게 지역문화의 자부심을 고취시킴으로써 향토애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파주시 관내 시민 및 외지인(관광객·군병사 및 면회객), 학생들에게 향토문화를 소개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주민이 문화해설사로 양성되고 지역문화를 향토문화행사로 진행되도록 한다.

● 추진방법

- 광탄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광서, 학교, 각종단체의 대표자를 구성해 광탄면의 향토문화유산 연구회를 구성하고 연구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매년 관내 문화해설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문화홍보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파주시 문화원의 협조를 통한 광탄면 문화해설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시도하여 관내주민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한다.
- 용미리 진대굿과 방축1리 산치성을 광탄면 주민전체가 참여하는 이벤트로 승화시켜 문화의 자부심을 갖는 것과 동시에 관광문화 자원화를 도모한다.



〈보광사〉

③ 보광사를 불교문화체험의 장으로 조성

● 추진방향

: 불교문화자원을 불교문화체험의 장으로 하여 지역공동체를 굳건히 할 수 있으며 지역문화 창출을 도모한다. 사찰을 관광의 장소로만이 아니라 사찰의 건축양식, 단청, 탕화, 석탑, 독경 소리 등을 이용하여 교육 및 명상의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 추진방법

- 광탄면은 불교분위기가 강한 지역으로 옛 지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랑리가 존재하듯 보광사를 비롯하여 용암사와 석불입상, 청룡사, 등 지명도가 높은 불교유적지를 연계하여 불교체험의 장으로 조성한다.
- 보광사를 중심으로 불교음악연주회, 산사음악회가 공연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국인 참선도장을 갖추어 관광지가 아닌 진정으로 한국불교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불교의 교리를 전하는 공간으로 개발한다.

④ 관광루트 개발

● 추진방향

: 관광사업은 공해 없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외래인을 유인하고 지역주민에게 자부심을 불러 넣어주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지만 파주시의 관광사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광탄면의 문화 및 자연환경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파주시 전역과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과 독특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새로운 문화·관광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특히 광탄면은 내륙산간지역으로서 특별히 주도해야 할 산업도 없고 주변의 양주시와 고양시에 국민관광지가 조성된 상태에서 지역간 연계 관광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 추진방법

- 현재 광탄면에 유일하게 관광지화 된 곳인 유일레저를 파주시 동북부지역 내륙거점 체류 관광지(Honey Pot)로 보완 정비함으로써 주변 문화·관광자원 및 체육시설(서원골프장, 서서울골프장, 고령산 일대의 산악자전거코스, 마장 1,3리 일대와 방축 1,2리 일대의 하천부지를 활용한 종합체육공원 등)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 테마여행 1 : 조선 제20대 임금으로 조선왕조의 르네상스를 이룩한 영조대왕과 그의 가족을 만나보는 코스 [공순영릉 - 소령원 - 수길원 - 화평옹주묘 - 화완옹주묘] / 연계 볼거리
 - 용미리마애이불입상, 윤관장군묘, 자운서원, 보광사, 유일레저, 분수리, 혜음원
- 테마여행 2 : 파주를 대표하는 파평윤씨의 탄생설화와 고려의 명장 윤관장군을 만나보는 코스 [파평용연 - 응담과 상서대 - 윤관장군묘] / 연계 볼거리 - 용미리마애이불입상, 보광사, 유일레저, 소령원, 분수리, 혜음원지
- 테마여행 3 :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옛 국도 1호선(한양~의주)을 따라 선인들의 선명한 자취를 만나보는 코스 [혜음령 - 혜음사(혜음원지) - 윤관장군묘 - 용미리마애이불입상(분수리) - 자운서원 - 임진나루] / 연계 볼거리 - 공릉관광지, 유일레저, 소령원, 보광사, 화석정 등



〈유일레저〉



〈용미리마애이불입상〉



〈윤관장군묘〉



〈분수리상징광장〉

⑤ 한강과 임진강의 분수지를 상징하는 장소 조성

● 추진방향

: 분수리(分水里)의 지명에서 볼 수 있듯 한강과 임진강의 분수지를 상징할 수 있는 장소를 구현하여 광탄면의 새로운 테마가 있는 관광요소로 선보인다.

● 추진방법

- 용미리와 분수3리가 만나는 작은 고개의 주변부지를 확보하여 임진강과 한강으로 흘러드는 물이 갈라진다는 주제를 담은 분수지의 장소를 구현하는 상징광장과 상징조형물 등을 조성하여 관내 새로운 관광명소로 구현한다.

⑥ 경마장 유치

● 추진방향

: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차원에서 경마장 유치가 절대적이다. 마장리(馬場理)는 1504년(연산군 10년) 전국에서 군마를 집결시켜 사육하고 기마훈련장으로 이용하게되어 붙은 이름이다. 그래서 마장골 또는 마장동이라는 지명이 유래된 지역이다. 한수이북의 경마장 유치라는 차원에서 본 지역에 지역주민과 파주시가 협력하여 경마장을 유치함으로써 과천시와 경마장 입지에 따른 재정자립도 90%를 넘을 수 있는 좋은 지역사업을 유지할 수 있듯이 파주시는 물론 광탄면 지역에 폭발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요한 지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추진방법

- 경마장 사업실현을 위해 주민들의 지역가꾸기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한수이남은 과천, 한수이북은 광탄이라는 명제를 갖고 파주시와 협력하여 지역의 힘으로 해결한다.
- 고양시에서도 고양사랑회에서 그린벨트 내에 경마장사업 유치를 계획하고자 노력한 적이 있으며 그 이전에 파주시도 탄현면 내 사유지에 경마장 사업을 유치하는 사업계획을 수립(1997년)한 바 있다.
-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단결을 촉진하는 충분한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아울러 지역주민이 스스로 건설적인 사업부지확보방안 등을 수립하고 파주시는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 정부에 본격적으로 유치의사를 타진해 나아가도록 한다.



〈마장경마장〉

5. 맺음말

지역의 고유지명과 문화유산을 통해 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계획 기법이다.

보통 대규모 국가 또는 지역발전모델은 새로운 정책적 사업으로 인위적이며 적극적인 사업 유치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만들어 간다. 그러나 이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정책과 맞물릴 때만이 가능하기에 상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지역의 발전방향으로 제시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 중심의 중소규모 지역발전모델은 지역의 고유지명과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안정적이며 지역특성에 맞고 지역민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사업실천이 용이하기에 현실적인 지역의 발전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다.

본 글은 광탄면을 중심으로 지역의 고유지명과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면단위 시범적 지역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기에 향후 파주시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 즉 정주성 확보 여건, 지역산업 여건, 입지적 여건, 파주시 도시발전방향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해 실질적이고 전체적인 면단위 지역의 발전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사에 대한 연구 - 사례편람 중심 -

신용면*

1. 들어가는 말
2. 제사의 의의와 기원 및 제례서의 전래
3. 제례의 목적과 대상 및 제례의 마음가짐
4. 『사례편람』의 제사와 현대의 제사
5. 말을 맺으며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제사(祭祀)는 예(禮)로 전하는 미풍양속 중 으뜸이라 생각한다. 인간이 창조된 이래 살아가는 과정에서 시대가 변화되며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생활과 문화가 변천한다.

우리는 출생하여 일생을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거치는 과정이 있으니 이를 일컬어 통과(禮)라고 한다. 이는 출생하면 축하를 받고, 삼칠일(三七日) 동안 금(禁)줄을 문(門)에 걸고 산모(產母)와 출생아(出生兒)의 건강을 위해 많은 통제를 하였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아기의 배꼽이 아물어 떨어지고 산모는 건강이 회복되어, 외부 사람에게 아기를 보여주는 등 기쁨을 나누었다. 생후 백일(百日)이 되면 이제 아기와 산모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백일 떡을 해먹으며 이를 축하한다. 첫 생일이 돌아오면, 첫돌이라 하여 돌잔치를 하여주며 축하하고 건강하게 자라

* 파주문화원 자문위원

기를 빌어준다. 자라서 서당書堂에 다닐 때는 책을 한 권씩 다 배울 때마다 책례冊禮를 하였다, 남자는 15세에서부터 20세에 이르면 관례冠禮¹⁾를 하여 주고 어른으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였으며, 여자에게도 15세에 이르면 계례笄禮를 하여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성인成人의 예禮를 지키도록 하였고 또한 이들을 성인으로 대하였다.

성년으로 남자가 16세에서 30세가 되고 여자는 14세에서 20세가 되면 서로 혼례昏禮를 올리고 한 가정을 이루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살게 하였다. 늙어 61세가 되면 환갑還甲(또는 회갑回甲)이라 하여 환갑연還甲宴을 베풀어 축하하였다. 마침내 늙어 죽게 되면 상례喪禮를 치루고 제사祭祀를 지내게 된다. 한 사람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을 통칭統稱하여 통과 의례라 한다.

사람이 죽으면 혼백魂魄이 분리된다고 하는데 장례葬禮 때 분리된 육신(肉身: 魄)은 땅에 묻고, 영혼(靈魂: 魂)은 신주神主에 의지하여 집으로 돌아와 반혼례(返魂禮)로 액곡哀哭하고 신주神主와 혼백魂帛을 교의(交椅: 靈座)에 안치 후 초우제虞祭²⁾를 지내고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라며, 조석朝夕으로 상식上食을 드리고 출입할 때 고告하는 등 살아계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며 생활하였다.

이후 첫 유일柔日³⁾에 재우제再虞祭를 후일 중 첫 강일剛日⁴⁾에 삼우제三虞祭를 지내고 삼우제 후 한 달(30일)을 지나 첫 강일剛日에 졸곡제(卒哭祭)⁵⁾를 지내고 다음날 신주를 사당에 부위附位(安置)하고, 1년이 되면 소상(小祥), 2년이 되면 대상(大祥)의 예(禮)에 따라 제사(祭祀)하며, 대상 한 달이 지나 날짜(초상 후 윤달을 빼고 27개월 째 丁일 또는 亥일)를 잡아 담제(禫祭)⁶⁾를 지내므로 상례喪禮를 마치게 된다. 이후 사당에서의 제사를 지낸다.

현손(玄孫)이 죽으면 고조(高祖)는 오대조고(五代祖考)로 불천지위(不遷之位)가 아니면 위폐를 사당에서 출주(出主)하여 묘(墓) 앞에 매안(埋安)하고, 1년에 한번 음력 시월十月에 날짜를 정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시향時享, 시제時祭, 시사時祀 등으로 칭稱한다.

이러한 제사는 남송南宋의 주희朱熹가 편찬한 『주자가례朱子家禮』⁷⁾가 우리나라에 전하여진 이래 이에 따랐고, 오늘날에는 시대의 변천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정리한 『가례집람家禮輯

1) 관례冠禮는 남자가 15세에서 20세가 되면 상투 들고 갓 등 관冠을 쓰는 관례冠禮, 예禮로 술을 마시게 하는 초례醮禮, 이름대신 자字를 부르도록 자字를 지어주는 자관자례字冠者禮를 하는 것을 관례라 한다.
 懸吐註解『四禮便覽』全 世昌書館 編輯部 編纂、發行, 관례편 1~32쪽.
 『禮記』(개정증보판 신안역李玉玉譯著 명문당 발행) 上卷 곡례편 53쪽

2) 초우제: 治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지내는 제사, 『주자가례』 임민혁 옮김, 예문서원발행 상례편 16 초우제, 380쪽, 현토주해『사례편람』 전(이제 저, 세창서관 발행) 상례편 196쪽

3) 유일柔日: 일진을 보아 天干 中: 乙, 丁, 己, 辛, 癸가 해당하는 날자

4) 강일剛日: 일진을 보아 天干 中: 甲, 丙, 戊, 庚, 壬이 해당하는 날자

5) 졸곡제: 삼우제 후 한 달(30일) 후 첫 강일에 제사함, 이후 곡을 하지 않음, 『주자가례』 임민혁 옮김 예문서원발행 상례편 17졸곡 390쪽, 『사례편람』; 이제李紱 저술 1746년, 현토주해 『사례편람』 전(세창서관 발행) 상례편 졸곡 203쪽

6) 담제: 대상 후 仲月(초상부터 윤달 빼고 27개월)에 택일하여 지내는 제사, 『주자가례』 임민혁 옮김 예문서원발행 상례편 17졸곡 390쪽, 『사례편람』; 도암 이제李紱 저술 1746년, 현토주해 『사례편람』 전(세창서관 발행) 상례편 졸곡 203쪽

7) 『주자가례朱子家禮』: 중국 남송南宋 때 주희朱熹(1130~1200)가 편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는 원회元晦, 중화中晦이고 호는 회암晦菴이다. 정이程頤의 제자인 이정(二程: 程顥, 程頤)의 리기설理氣說을 계승발전, 리학理學을 집대성하였으며 이것이 후세에 정주학이라고 하며 성리학에 이르게 되었다. 주자가례는 『가례家禮』, 『문공가례文公家禮』,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 등으로도 불린다. (『주자가례』任敏赫 옮김, 예문서원 원전총서 주자가례 해제11쪽)

覽』⁸⁾ 과 『사례편람四禮便覽』⁹⁾을 주로 참고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편람』의 제례 편에 따른 제사를 고찰하여, 오늘날 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제사와 거의 잊혀져가는 제사를 구분하고, 존속되는 제사의 절차인 제사홀기祭祀笏記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제사를 지낼 때 제사순서 및 제사차림 등에 따른 참석자들의 각자 주장으로 인한 다툼을 없게 하여, 제사가 선조에 대한 공경을 다하고 참석자 모두가 화합하여 미래 지향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2. 제사의 의의와 제사의 기원 및 제례서의 전래

1) 제사의 의의

먼저 예禮의 의의意義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감사의 뜻을 표하는 말 또는 사례謝禮로 보내는 금품이라 하였다.

여기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도 있겠으나, 이를 지켜야 할 상대가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일상생활은 탄생하는 순간부터 상호관계에 따라 예禮가 성립되고 일생을 살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예의 관계를 지속하며 산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예禮로 시작하여 예로 끝난다고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의 관계는 개인과 개인적인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인 관계가 있고, 보다 확대한다면 천지자연天地自然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며 접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호 예의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지킬 예禮는 관습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져 내려오는 미풍양속도 있으나, 많은 부분이 고대 중국의 요순시대堯舜時代로부터 역사를 기록한 『서경書經』이나, 공자孔子가 그 전에 내려오던 여러 가지 예의禮儀에 관한 것을 수집 정리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을, 공자의 제자들이 이를 수집 정리하고 보완하여 오늘에 전하여 지는 『예기禮記』가 저술되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오늘에 이어오고 있다. 이 『예기禮記』의 연원은 다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기禮記』는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윤리 도덕으로 난세를 바로잡으려 노심초사하던 공자孔子(BC551~479)의 이상과 포부가 가득 담긴 철학적이고 경제적인 경전이다. 그러므로 유가儒家의 윤리 도덕의 이론과 그 실천방법에 의한 여러 가지 절차 과정 문제와 사상에 기초한 역사의 정당한 실용적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¹⁰⁾ 고 하였으며 또한 이 『예기禮記』의 유래는 『사기史

8) 『가례집람家禮輯覽』: 사계 김장생 저술 1599년, 사계선생 전서 권지23-30.

9) 『사례편람』: 도암 이재李穰 저술 1746년, 현토주혜사례편람 전(세창서관 발행).

10) 이상옥 역저(李相玉 譯著) 개정증보판 신원역 『예기』 상권(改訂增補版 新完譯 禮記 上卷) 명문당 신선명문동양고전대계9. (明文堂 新選明文東洋古典大系9, 2003.10.31.발행) 서문 6쪽

記』 공자전孔子傳에 공자가 예의 책을 지었다는 뜻을 기록하고 있고,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보면 한漢나라 무제武帝 말에 노魯나라 공씨구택孔氏舊宅에서 『상서尙書』 『논어論語』 『효경孝經』 등과 함께 『예기禮記(예의에 관한 기록이란 뜻)』가 발견되었다 하였으며, 이것을 근본으로 전한前漢 시대의 소제昭帝로부터 선제宣帝에 걸쳐 기원전 1세기 중기에 대덕戴德과 대성戴聖이 지은 예서가 기준 예서가 되었고, 다시 후한에 이르러 대성戴聖이 만든 『소대례小戴禮』가 기준이 되어 이 후 『예기』라면 이 『소대례』를 이르게 되었고 오늘날의 『예기』도 이것인 것이다. 한나라 정현(鄭玄: 127~200)의 『육례론六禮論』에는 그 당시 세상에 행하여지고 있는 예는 대덕과 대성의 학문이라 하였고 대덕은 『대대례』(85편)를 하였다. 대성은 『소대례』(49편)를 하였는데 이것이 『예기禮記』라 하였고 이것이 문헌에 보이는 제일 오래된 『예기禮記』란 책이름이다. 『육례론』의 원본은 산실散失되었고 이 글은 공영달(孔穎達: 574~648)의 소疏를 인용한 것이라 하였다.

또한 「정현이 『주례周禮』 『의례儀禮』 『소대예기小戴禮記』에 주註를 달아 삼례三禮라 한 후부터 『예기』라면 『소대예기小戴禮記』를 지칭하는 것이 되었고 대대의 책만은 『대대예기大戴禮記』라고 부르게 되었다.¹¹⁾

예禮란 『예기禮記』의 곡례曲禮에 말하기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어 단정하고 엄숙하기를 무언가 생각하는 것 같이 하며 말을 안정하게 한다면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 하였다. 거만한 마음을 자라게 해서는 안 되며, 욕심을 방종하게 해서는 안 되며, 뜻을 가득 차게 해서는 안 되며, 즐거움을 극도로 누려서는 안 된다” 하였다.

曲禮曰，毋不敬，儼若思，安定辭，安民哉，教不可長，欲不可從，志不可滿，樂不可極。¹²⁾

또한 예에 대하여 송宋나라의 범조우范祖禹는 경례經禮 3백百과 곡례曲禮 3천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무불경毋不敬이라 하였으니, 다시 말해 예의에 대한 성현 말씀 3백과 세칙 3천을 한 마디로 무불경이라 한 것으로, 예의란 매사에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무불경毋不敬” 이라고, 한 마디로 정의 할 수 있다 하겠다.

또한 예란 선왕들이 예를 제정함에 근본과 형식을 갖게 하였는데, 즉 예를 행하는 사람의 성의는 예의 근본이요, 예의법절을 규정함은 예의 형식이라 하였다. 근본 없이 예가 있을 수 없고 형식 없이 실행할 수도 없다, 따라서 예란 군자인 사람이 천시天時 변화에 맞추어 행하며, 땅의 생산력에 의해 물자를 비축하고, 귀신을 공경하고, 사람들과 화합함으로써 만사를 처리하고, 천하를 다스려 가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라 하였다.

공자도 예의법절은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각각 차이가 있어서 고르게 풍요해서도 안 되고 고르게 검소해서도 안 된다 하였고, 또한 예의는 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라서

11) 이상옥 역저 (李相玉 譯著) 개정증보판 신완역 『예기』 상권 (改訂增補版 新完譯 禮記 上卷) 명문당 신선명문동양고전대계9. (明文堂 新選明文東洋古典大系9. 2003.10.31.발행) 해설 14~15쪽.

12) 이상옥 역저 (李相玉 譯著) 개정증보판 신완역 『예기』 상권 (改訂增補版 新完譯 禮記 上卷) 명문당 신선명문동양고전대계9. (明文堂 新選明文東洋古典大系9. 2003.10.31.발행) 서문 37쪽

알맞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¹³⁾

따라서 예란 확실하게 기준을 정하고 이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시행 시기에 적중適中하고, 행동과 예물 등은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게 알맞아야 하겠다.

다음으로 제사祭祀에 대하여 상고上古하면, 인류가 탄생하며 일상생활에서 천지자연에 대하여는 풍우를 조절하여 풍년이 들고, 삶이 편안하기를 기원하며, 생활면에서 겪는 길흉화복吉凶禍福에 대하여 잘되고 복된 일은 지속되고, 흉사와 해악은 이를 가볍게 넘기거나 또는 닦치지 않기를 바랐다.

이 천지天地 자연自然과 기후변화를 주관하는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것에는 그를 주관하는 각각의 유형무형의 신神이 있어, 이들의 조화造化에 따라 우리의 행幸 불행不幸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따라서 이 신들이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도록 하자면, 항상 이 신들이 평안하여야 하겠고, 항상 평안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싫어하는 행동으로 심기를 거스르지 말고 항상 평안하게 잘 섬겨야 했다.

또한 이 신들을 잘 섬기자니 대상이 존재한다고 믿는 유형의 처소를 지정하거나, 형체가 없는 상상의 처소를 항상 신성시하고 청결히 하며, 신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믿는 양질의 제물이나 향기로 이들이 항상 평안함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것이 변천하여 오늘날의 제사가 되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의 대상이 함께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며, 그 대상이 선조일 때는 마치 살아서 봉양하는 것과 같이 하라 하였으니 이는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야 함을 말한 것이다.

2) 제사의 기원

제사의 기원은 원시 시대로부터 인간이 계절의 변화와 천둥, 벼락, 태풍, 우박 등의 기후 변동 등 천지자연의 변화를 두려워하였으며, 만물에는 신령이 있다고 믿고 천신天神, 지기地祇, 인귀人鬼 등 신령들에게 인간의 안전한 삶과 행복과 즐거움을 기원하였고 이것이 제사로 변천한 것이다.

제사의 문헌적 기록은 중국 고대의 『예서禮書』에 『예서禮書』는 주周나라 말기에서 진한대秦漢代에 이르는 사이의 고례古禮에 관한 논설과 이론을 수록한 것으로 예禮란 외면적 규율의 총칭 인바 크게는 사회, 제도, 법률, 습속에 이르고 작게는 의식범절儀式凡節에 이르기까지의 일체를 포괄하고 있다.¹⁴⁾고 하였으며 『사기史記』에 공자孔子(BC551~479)가 예禮의 책을 지었다 하였고, 오늘 날 『예기』라고 전하는 것은 정현鄭玄(127~200)의 육예론六藝論과 공영달孔穎達(574~648)의 소疏에서 본대로 대성(戴聖)이 저술하여 전傳한 『소대례小戴禮』 49편이 오늘날에 전하여져 널리

13) 이상옥 역저 (李相玉 譯著) 개정증보판 신원역 『예기』 중권 658쪽, 670쪽

14) 이상옥 역저 (李相玉 譯著) 개정증보판 신원역 『예기』 상권 (改訂增補版 新完譯 禮記 上卷) 명문당 신선명문동양고전대계9, (明文堂 新選明文東洋古典大系9, 2003.10.31.발행) 서문 6쪽

불리는 『예기禮記』라 하였으니 BC 500년경에서 AD 650년경까지의 약 천여 년에 걸쳐 행하여지던 예를 기록한 책이다.

이 『예기』에 「교특생郊特牲」, 「제법祭法」, 「제의祭儀」, 「제통祭統」, 등의 기록에서 제사에 관한 기본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어 제사가 행하여졌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는 BC 500년경부터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서경書經』¹⁵⁾ 「순전舜典」에서 순임금이 상제上帝에게 유類제사¹⁶⁾를 지내고 육종六宗¹⁷⁾에게 인禋제사를 지내고 산천에 망렬제사¹⁸⁾를 지내고 여러 신에게 두루 제사하였다고 하고.

肆類于上帝 禋于六宗 望于山川 徧于群神¹⁹⁾

또한 2월에 동쪽 지방을 순수巡守하며 대종(岱宗은 泰山)에서 시柴제사를 지내며 산천을 바라보고 차례를 정하여 제사를 지낸 다음에야 제후를 만났으며 5월에 남악(南嶽: 衡山), 8월에 서악(西嶽: 華山), 11월에 북악(北嶽: 恒山)에 이르러 각각 위와 같이 제사 지내고, 돌아와 예조藝祖(歷代 太祖)의 사당祠堂에 제사하였다.

歲二月 東巡守 至于岱宗柴 望秩于山川 肆觀東后²⁰⁾ 이하 생략.

이상과 같이 서경의 순전舜典에서 순임금이 하늘(上帝)과 산천을 두루 순시하며 자연에 제사를 지내고 돌아와 예조藝祖의 사당(祠堂)에 이르러 제사하였다 하였으니,

요순시대堯舜時代에 자연과 조상에 제사를 시작하였다 하여도 기원전 2000여 년 전이니 이미 지금부터 약 4000여 년 전부터 제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순전舜典에 순임금 당시에 요임금도 살아 있었고, 또한 순임금부터 제사가 시작되었다는 근거도 따로 없으니, 요순시대 이전부터 제사가 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제사는 인류가 탄생된 이래부터 인간이 하늘, 자연, 인간으로의 죽은 영혼, 과 산사람 등의 안녕과 축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이것이 오늘날 제사의 기원이라 볼 때 제사의 기원은 기록으로 전하여지는 것이 약 4천여 년 전이요 이 기록을 토대로 추정하건대 인류가 탄생한 태초부터 제사는 있었을 것이다.

15) 『서경書經』: 南宋人 채침蔡沈이 慶元己未(1199년) 겨울에 주공朱公(朱熹)의 명에 의하여 서경집전을 짓게 하고 다음 해에 별세하였으며 이로부터 10년 만에 집필을 마친.(서경: 현토완역 서경집주 상권, 백성호成百曉 역주 13쪽.)
16) 類제사: 교사郊祀는 호천昊天에 몇몇한 제사로, 몇몇치 못하나 하늘에 지내는 제사를 교제의 절차와 같이 한다하여 유類제사라 한 것이다.(『서경』: 현토완역 서경집주 상권, 백성호成百曉 역주 45쪽)
17) 육종: 여섯 가지에 높여 제사지내는 대상, 즉 四時,寒暑,해,달,별,水무 이다. (위 『서경』 상 45쪽)
18) 인禋제사: 뜻을 깨끗이 하여 제향 하는 것이요, 망렬제사는 명산대천을 바라보며 지내는 제사다. (위 『서경』 상권 45쪽)
19) 현토완역 『서경집전』 상, 成百曉 譯註, 진통문화연구소 동양고전국역총서6, 舜典편 44쪽
20) 현토완역 『서경집전』 상, 成百曉 譯註, 진통문화연구소 동양고전국역총서6, 舜典편 47쪽

3) 제례서의 전래

제례서祭禮書의 전래傳來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사는 『서경書經』의 기록상으로 약 4천여 년 전에 행하였던 기록이 보이고, 현존하는 『예기禮記』도 650년경에 대성戴聖의 『소대례小戴禮』가 오늘에 전하여지는 『예기禮記』라 하였다.

이 『서경』과 『예기』를 따라 전하여 지던 예의가 남송南宋 사람 주희朱熹(1130~1200)에 의하여 『주자가례朱子家禮』로 편찬되었다.

『주희의 자字는 원회元晦. 중회中晦이고 호는 회암晦菴이다. 주희는 정이程頤(1033~1107)의 제자인 이동李侗에게서 수학修學하여 정호程顥(1032~1085)와 정이鄭頤(1033~1107)의 리기설理氣說을 계승하여 리학理學을 집대성하였다. 후에 정주학이라 하면 성리학을 이르게 되었으며, 주자가례는 ‘가례’, ‘문공가례文公家禮’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 등으로도 불린다.’²¹⁾

『주자가례』가 우리나라에 들어 온 것은 고려 말 경으로 주자학과 함께 수용되었다고 한다.

『주자학朱子學의 전래는 고려 충렬왕 15년(1289)에 안향安珦(1243~1306)이 원나라에 들어가 『주자전서朱子全書』를 필사하고 공자孔子와 주자朱子의 상像을 그려가지고 와서, 처음으로 주자학을 이해하고 역설한 것으로부터 전래한 것이라 하겠다. 주자학에 대하여는 신유학, 성리학, 송학, 정주학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나 내용은 모두 같은 것이다.’²²⁾

『주자가례』의 내용을 요약하면 통례通禮, 관례冠禮, 혼례昏禮, 상례喪禮, 제례祭禮로 구분되어 있다. 『주자가례』가 조선朝鮮에 들어오며 예학禮學 발달의 계기가 되었고, 가례에 의한 생활의 준거準據가 됐으며 이중 제례가 오늘날 제례의 기준서가 되었다.

조선朝鮮이 건국되며 『주자가례』를 사대부들에게 필수적으로 권장하였으며 국가 전례典禮에도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태조太祖 즉위교서에 “관혼상제冠婚喪祭는 나라의 대법大法이며 인륜을 두텁게 하고 풍속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정도전도 『조선경국대전』에서 “관혼상제가 예禮의 가장 큰 것이다.”라고 하여 사례四禮를 강조하였으며 『예전』에 관례, 혼인, 상제, 가묘의 항목을 두어 유교의 가례에 의한 사회 질서 확립을 추구하였다.

16세기에 조선의 양반사회에서 독자적으로 가례가 연구 발전되고 생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화가 되어갔고 성리학도 심화되어가다, 연산燕山대에 이르러 사회士禍를 거치며 『주자가례』가 진전되지 못하였고, 중종中宗 대에 이르러 『주자가례』의 시행 폭을 놓고 『국조오례의』 파와 대립하는 양상이 되었다.

『국조오례의』는 단순한 의례규범이 아니라 국가와 왕실, 왕과 신하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제도이다. 세종 때 『오례의』 편찬을 시도하여 완성 한 것이 『세종실록 오례의』이다. 이를 세조가 불완전하다하여 강희맹姜希孟(1424~1483), 성임成任(1421~1484) 등에 명하여 편찬하도록 하였으나 중도에 세조世祖가 사망하여 중단되었으며 성종成宗 초에 신숙주申叔舟(1417~1475) 등에게

21) 『주자가례』, 임민혁 옮김(예문서원 초판4쇄 2007, 6. 20. 원전총서/유교공동체를 위한 주희의 설계/해제11쪽

22) 『한국유학사』, 유승국 지음, 유학문화연구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연구원 유교문화연구총서9, 1판1쇄 2008, 2.28, 164~165쪽

『경국대전』과 함께 『오례의주五禮儀注』를 편찬하게 하여 성종5년 1474년에 완성하였으며 구성은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흉례凶禮의 순으로 편집되었으며, 이는 『송사宋史』의 순서를 따른 것으로 송대宋代 유학의 수용과도 관련이 있다 하겠다. 또한 『주자대전』과 『가례의절』이 수입되며 『주자가례』의 이해가 심화되어 갔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종법과 효의 강조를 통해 가문의 통합을 도모하고자 제례중심의 제례서祭禮書를 만들었다. 김숙자를 비롯하여 김종직, 송수기, 이언적, 이이 등이 이에 속한다.

17세기에 이르러 조선 예학은 더욱 발전하여 김장생, 정구, 김집, 허목 등과 같은 대학자가 배출되었고 이에 따라 가례도 한층 심화되어 갔다. 그러나 가례는 하나의 예서로서는 비교적 간략한 편이므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았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고 정비하기 위한 주석서註釋書와 연구서들이 많이 저술되었다. 이때 저술된 것이 조호익曹好益의 『가례고증家禮考證』, 김장생金長生의 『가례집람家禮輯覽』, 유계俞棨의 『가례원류家禮源流』, 이의조李義朝의 『가례증해家禮增解』, 이재李穰의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이다.²³⁾

이상에서 제사의 유래를 보았듯이 오늘날의 제사 유래는 성리학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성리학의 전래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제사의 전래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성리학은 1289년 고려 충렬 왕 때 안향安珦(1243~1306)이 원元 나라에서 『주자전서朱子全書』를 필사筆寫하여 귀국하므로 우리나라의 성리학性理學을 전래하였고 국내에 전파한 최초의 학자이다.

이는 백이정白伊正(1247~1323), 이색李穡(1328~1396)에게 전수되고 이때까지는 불교와의 대립 의식이 있었다.

이어 정몽주鄭夢周(1337~1392), 정도전鄭道傳(1342~1398)에게로 전수되며 주자학의 관점을 달리하고 역사관과 가치관이 대립함을 보인다. 정몽주는 고려조에 충성하며 유학사상에서 정맥을 이루고 있으며, 조선왕조를 따르지 않고 신속에 은둔하며 고려에 충성하던 길재吉再(1353~1419)가 이었으며, 이어 김숙자金叔滋(1389~1456)에 이어 그 아들 김종직金宗直(1431~1492)으로 이어지고, 다시 김굉필金宏弼(1454~1504), 정여창鄭汝昌(1450~1504)에게로 이어지고 또한 조광조趙光祖(1482~1519)²⁴⁾ 이언적李彦迪(1491~1553)에게로 전하여지고, 이황李滉(1501~1570), 이이李珣(1536~1584)에 의하여 성리학의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한편 내면적 도덕 원리인 인성론人性論은 송익필宋翼弼(1534~1599), 김장생金長生(1548~1631)²⁵⁾ 등에 의하여 유교의 행동규범인 예설禮說로 발전하였다.

예禮의 기록이 『서경書經』, 『예기禮記』, 『주자가례朱子家禮』, 『가례집람家禮輯覽』, 『사례편람四禮便覽』으로 이어지며 오늘에 이르러 예의 생활 준거로 이용되고 있다.

김장생은 당시 가례에 대한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있고, 예절의 해석을 일관성 있게

23) 『주자가례』 임민혁 옮김(에문서원 초판4쇄 2007, 6, 20. 원전총서/유교공동체를 위한 주희의 설계/해제 23쪽 등 참고.

24) 『한국유학사』 유승국 지음. 유학문화연구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연구원 유교문화연구총서9, 1판1쇄 2008, 2, 28, 178~179쪽

25) 『한국유학사』 유승국 지음. 제1장 조선전기의 유학, 187~188쪽

하고자 『가례집람』을 엮었다. 이를 송시열宋時烈(1607~1689)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1685년(숙종11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하였으며, 내용은 통례,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순으로 편집되었고, 본문에 예서의 고전과 여러 사람의 예설을 주석하였으며 인용서를 밝히고 도설을 붙였다.

이후 이재李穰(1680~1746)가 『사례편람』을 엮었는데, 조인영趙寅永(1782~1850)의 발문跋文에 따르면 이는 당시 예서들이, 그 상세함과 소략疏略함이 고르지 못하여 사대부가 이용하기 불편하여, 이러한 것을 보완하여 편집하였으며, 내용은 『주자가례』의 본문을 위주로 고례古禮를 참고하고 선유先儒들의 학설로 소략된 부분을 보완하려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내용은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순으로 편집되었다.

그리고 전래 제사예절의 맥을 유지하되 현실에 맞는 제사홀기로 보완하여 전승하는 것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사의 과정을 고찰하고 다음 제사祭祀의 시행 단계의 홀기笏記를 연구하고자 한다.

3. 제사의 목적과 대상 및 제사의 마음가짐

1) 제사의 목적

제사를 비롯한 예를 행하는 목적은 대체로 고전에서 다섯 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로 예를 행하므로 사물의 시초始初를 되돌아보도록 사람을 지도하는 것이요, 둘째로 사람의 마음을 귀신과 통하게 하는 것이요, 셋째로 친화를 증대하고 재물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요, 넷째로 도의를 크게 흥하도록 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겸양의 미풍을 조장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시초를 되돌아보면 사물의 기본이 존중될 것이고, 귀신에게 통하게 되면 그 마음은 모두 윗사람 등을 존경할 것이며, 친화가 이루어져 재물의 촉진이 이루어지면 서민의 생활 원칙이 이루어 질 것이고, 도의가 크게 흥하면 상하의 충돌이 생기지 않으며, 겸양의 미풍이 왕성하면 투쟁이 사라질 것이라 하였다.

天下之禮，致反始也，致鬼神也，致和用也，致義也，致讓也，致反始也 以厚基本也，致鬼神 以尊上也，致物用 以立民紀也，致義 則上下不悖逆矣，致讓 以去爭也，合此五者，以治 天下之禮也，雖有奇邪而不治者，則微矣。²⁶⁾

여기서 예를 행하는 목적이 사람의 마음과 귀신을 통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였다. 제사는 이 각각의 능력을 가진 신에게 대체로 복을 기구하고, 복 받은 것을 믿고 그 보답을 하며, 재화災禍와 질병 등을 그치게 하여 줄 것을 비는 것 등의 목적으로 신에게 행하는 의식이다.

26) 이상옥 역저 (李相玉 譯著) 개정증보판 신안역 『예기』 중권 (改訂增補版 新完譯 禮記 中卷) 명문당 신선명문동양고전대계9. (明文堂 新選明文東洋古典大系9. 2003.10.31.발행) 중권. 제의면 1181쪽

2) 제사의 대상

제사의 대상은 우리 인간을 평안하고 복되게 하는 절대 능력을 가진, 영혼이나 형체를 가진 신비로운 형상을 상상하였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대상 앞에서 바라는 바를 빌며 그 일이 평안히 마치기를 빌었다. 『예기禮記』에 제사의 대상을 보면

대체로 성왕聖王이 어떤 신령의 제사를 제정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하여 제사를 지낸다 하였으니, 1) 생전에 선정양법善政良法을 백성에게 베푼 자. 2) 죽음을 무릎 쓰고 나라 일에 힘쓴 자. 3) 노고를 아끼지 않고 국가를 안정시킨 자. 4) 큰 재해를 예방하고 구출한 자. 5) 큰 국난을 예방하고 물리친 자라 하였다.

그래서 여산씨厲山氏 즉 염제炎帝와 신농神農씨가 천하를 다스릴 때 그 아들을 농農이라 했는데 능히 백곡百穀을 번식시켰다. 하나라가 쇠하자 주周나라 기棄가 이를 계승하였기 때문에 제사지내어 직稷 즉 곡신穀神으로 삼았다. 또 공공씨共工氏가 구주에 임금 노릇을 할 때에 그 아들을 후토后土라 하였다. 이가 능히 구주를 평정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어 이를 토신土神이라 했다. 제곡帝嚳은 능히 성신을 차서次序있게 하여 만물을 비쳐 주었다. 요堯는 능히 상을 주고 형벌을 고르게 하여 의리로서 마쳤다. 순舜은 모든 일에 부지런하다가 순수巡狩 길에 죽었다. 곤鯀은 홍수를 막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우禹가 곤의 공로를 잘 수습했다. 황제黃帝는 백 가지 물건을 바르게 이름 지어서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고 재물을 함께 했다. 전욱顓頊은 능히 이것을 닦았고, 설契은 사도 즉 모든 교관의 우두머리가 되어 민중을 지도해서 선량하게 하였고, 명冥은 치수의 일에 열중하다가 물에서 죽었고, 탕湯은 너그러움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 그 사나움을 없앴고, 문왕文王은 문덕을 가지고 다스렸으며, 무왕武王은 무공으로 백성들의 재앙을 없앴고, 이들은 모두 백성들에게 공덕이 큰 사람들이다.

또한 일월성신日月星辰은 백성이 존송하는 대상이고 산림, 천곡, 구름은 백성이 생활하는 물자를 얻는 근원이므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서 이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라면 제사의 기록을 하는 전적典籍에 실리지 않는다,²⁷⁾ 라고 했으니 위와 같이 자연과 조상신 등, 많은 대상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를 분류하면 하늘에 대한 천신제天神祭, 땅에 대한 사직제社稷祭, 조상에 대한 종묘제宗廟祭로 대별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해 하늘의 천신天神, 땅의 지기地祇, 조상의 인귀人鬼 등에 대하여, 제 위치에서 평안하게 존재하며, 우리 인간에게 신의 본래 능력으로, 오래오래 무병장수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주시기를 기원하는 행위인 제사가, 오늘날에는 주로 종묘宗廟(家廟)를 중심으로 한 조상祖上에게 제사하는 의미로 축소 사용되고 있다.

27) 이상옥 역저 (李相玉 譯著) 개정증보판 신완역 『예기』 중권, 제법편 1162, 1163쪽.

3) 제사의 마음가짐

제사는 교지本教之本이라 하여, 제사는 모든 가르침에 근본이다.²⁸⁾ 또한 어떤 제사든지 자주 지낼 것은 못 된다 하였으니 이는 자주 지내면 번잡하고 번잡하면 공경하는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러나 또한 너무 오랫동안 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오랫동안 지내지 않으면 태만하기 쉽고, 태만해지면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제사는 천체天體의 법칙에 따라 봄에는 체禘, 가을에는 상嘗이라는 제사를 지낸다. 가을 제사 때 이미 이슬이나 서리가 내리는데 군자가 이것을 밟으면 반드시 슬픈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은 기후가 추워서가 아니라 하였다. 또 봄의 제사 때 이미 비, 이슬이 내려 땅이 축축해지면 군자가 이를 밟고 반드시 섬뜩 느껴지는 것이 마치 죽은 부모를 만나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하였다. 이와 같이 봄에는 선조의 영혼이 내려오는 것을 맞이하는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음악을 사용하지만, 가을에는 슬퍼하며 영혼이 돌아가는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음악이 없다 하였다.²⁹⁾

또한 제사의 마음가짐은, 대상을 생각하는 것이 순수하고 간절하여야 한다.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선조를 제사지낼 때는 죽은 자를 받드는 것이 산사람에게 하듯 하였고, 죽은 사람을 사모思慕한 나머지 자신도 죽어버리고 싶다고 할 정도였다.

따라서 기일忌日에는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제례祭禮에 있어서 고인의 이름을 입에 담을 때에는 마치 그 사람을 눈앞에 보는 듯이 하였다. 이래야 만이 제사에 있어 정성을 다하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으니

文王之祭也，饗死者如事生，思死者如不欲生，忌日必哀，稱諱如見親，祀之忠也。³⁰⁾

제사 지낼 때의 몸과 마음가짐을 잘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제사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은 살아계실 때의 봉양하는 마음과 같이 경건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가짐이어야 하겠으며, 또한 몸을 정결히 하여야 하겠다. 이 과정을 재계齋戒라고 하며, 재계에는 산제散齋 7일로 이 기간에는 마음이 산만한 것을 제사의 준비로 긴장시키는 기간이고, 치제致齋 3일은 산제 기간 7일 중 긴장시킨 마음을 제사 날까지 이르게 하는 기간이다.

재계할 때는 현관女冠과 현의女衣를 사용하는데, 이는 음유陰幽 즉 암흑暗黑 속에 마음을 잠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3일을 재계하면 반드시 제사하는 상대를 볼 수 있다 하였다.

祭有所焉，有報焉，有由辟焉。祭之玄也，以陰幽思也，故君子三日齋，必見其所祭者。³¹⁾

28) 이상옥 역저 (李相玉 譯著) 개정증보판 신원역 『예기』 하권 제통편 1232쪽

29) 이상옥 역저 (李相玉 譯著) 개정증보판 신원역 『예기』 중권 제의편 1165쪽

30) 이상옥 역저 (李相玉 譯著) 개정증보판 신원역 『예기』 중권, 제의편 1169, 1170쪽

31) 이상옥 역저 (李相玉 譯著) 개정증보판 신원역 『예기』 중권, 교특생편 741쪽

재계하는 동안에는 항상 고인의 생전에 생활 모습을 그리되, 웃으며 하시던 말씀, 하고자 하시며 추진하던 일들, 좋아하고 싫어하던 일들, 취미 등의 추억에 젖어 있기 때문에 3일만 계속되면 고인의 모습이 끊임없이 눈앞에 떠오른다고 하는 것이다. 드디어 제사 날이 되어 사당에 들어서면 반드시 고인의 영혼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며, 제례가 끝나고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엄숙한 기분에 젖어 고인의 음성을 듣는 느낌이 들며, 그리고 문밖에 나가 들으면 반드시 방안에서 뚜렷하게 고인의 탄식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것이라 하였으니 제사 지낼 때의 마음가짐은 고인의 안색이 내 눈에서 이쳐지는 일이 없고 고인의 음성이 내 귀에서 이쳐지는 일이 없으며 부모의 마음이나 희망 등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므로 재계나 제사에 있어 내 마음이 골몰하면 부모의 영혼이 눈앞에 떠오르고 효경의 정성을 다하면 영혼이 그에 감응한다 하였다.³²⁾

이와 같이 제사를 지내려면 먼저 제사 대상을 고요히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제사 대상을 맞을 마음의 준비를 다하고, 손님을 맞을 때와 같이 며칠 전부터, 주변을 물 뿌려 청소하며 쓸고 닦아 청결하게 하고, 제기, 교의, 제상, 향탁, 등 제사 관련 기구를 깨끗하게 씻고 닦아야 하며, 제상에 차릴 제사음식은 제사의 종류에 따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다.

또한 효자는 제사를 거행하기 전에 반드시 마음을 근신하고 엄숙한 기분이 되어 그 마음으로 제사에 관한 일을 생각하고 복장이나 제물을 갖추며, 사당 등 제구를 보수하며 여러 가지 일을 정비한다. 그리고 당일이 되면 안색은 반드시 온화하게 하고, 보행은 신중히 하며, 죽은 부모에 대한 경애敬愛가 부족함을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영전에 제물을 바치려면 안색은 어디까지나 온화하게하고 깊이 몸을 구부려 부모에게 말을 걸 듯 말듯하게 보인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재위자在位者가 모두 제사장祭祀場에서 나가면, 제주祭主는 일어설 때 그 자세는 더욱 낮고, 동작은 조용히 하면서도 법도에 맞으며 마치 부모가 떠나가는 것을 전송하는 것 같이 한다. 그러므로 제사가 끝나 부모를 더욱 사모하여 부모가 다시 한 번 되돌아 오는 것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이치와 행동으로 효자는 선량한 마음을 몸에서 잃는 일이 없고 귀나 눈이 바른 마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으며 무슨 일을 하든,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일이 없다. 효자는 항상 부모를 생각하고, 그 것이 얼굴에 나타나며 또 매사에 부모를 추억한다. 이러한 것이 효자의 마음인 것이다.³³⁾

이러한 효자의 몸과 마음자세로 제사를 준비하되, 사당과 집주변을 깨끗이 하고, 가능한 한 묘소를 둘러보고 살피며, 제물을 준비할 때는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형편에 맞게 제수를 차리되, 공경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제수를 준비하여 놓고,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도 재위자在位者 모두가 화합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며 고인의 생전의 모습을 그리고 추모하는 것을 주로 하며, 참사자의 친목도모에도 정성을 다하므로 제사의 본 뜻을 이어 나가야 하겠다.

32) 이상옥 역저 (李相玉 譯著) 개정증보판 신원역 『예기』 중권, 제의편 1166, 1167쪽.

33) 이상옥 역저 (李相玉 譯著) 개정증보판 신원역 『예기』 중권 제의편 1206쪽

4. 『사례편람』의 제사와 현대의 제사

1) 사례편람의 제사

『사례편람四禮便覽』은 이재李穰(1680~1746)가 저술한 예서이다. 본관本貫은 우봉牛峰으로 조선朝鮮의 학자다. 자字는 희경熙卿, 호號는 도암陶庵, 또는 한천寒泉이다. 김창협金昌協(1651~1708)의 문인門人으로 숙종 28년(1702) 알성문과調聖文科에 급제하여 관官에 진출하였고, 단종실록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숙종 42년 승지를 지냈으며, 관직에서 나와 있기도 하였다. 다시 영조 1년에는 이조吏曹 참판參判을 지냈다. 영조 17년에 예문관 제학, 19년에 우참찬 등에 임명 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다. 저서로는 『도암집陶庵集』 편서로 『근사심원近思尋源』 『존양록尊養錄』 『주자어류초절朱子語類抄節』 등이 있으며, 시호諡號는 문정文正이다. 『사례편람』은 『주자가례』에 따라 시행하던 예학을 정리하여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저술한 것을 증손曾孫인 이광정李光正이 1844년(헌종 10년)에 펴냈다.

그 후 황필수黃泌秀, 지송욱池松旭 등이 보정을 더해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³⁴⁾을 1900년에 간행하였으며 내용은 관례冠禮, 혼례昏禮, 상례喪禮, 제례祭禮로 편제되었다.

이중 제례祭禮 편의 제사의 진행순서와 제상차림을 정리하였다.

① 사시제四時祭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중월仲月(2, 5, 8, 11월)에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로, 전달 하순에 날자를 택일(擇日: 卜占)하여 지낸다.

사시제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전기 삼일 재계前期三日齋戒: 3일 전부터 재계한다. 2. 전 일일 설위前一日設位: 1일 전에 사당을 청소하고 신주神主를 내어 놓을 준비를 한다. 3. 진기陳器: 제상, 향탁 등 제사 용구를 제자리에 정리하여 놓는다. 4. 성생 척기 구찬省牲 滌器 具饌. 5. 궤명숙흥 설소과 주찬厥明夙興 設蔬果 酒饌: 제사당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나물 과일 술과 음식 등을 차린다. 6. 질명 봉주취위質明 奉主就位: 날이 밝을 무렵 신주神主를 교의交椅에 내어 모신다. 7. 참신參神. 8. 강신降神. 9. 진찬陳饌. 10. 초헌初獻. 11. 아헌亞獻. 12. 종헌終獻. 13. 유식侑食. 14. 합문闔門. 15. 계문啓門. 16. 수조受酢. 17. 사신辭神. 18. 납주納主. 19. 철徹. 20. 준俵. (초헌할 때 삼채주, 독축문, 부록 참조)

제사는 오직 사랑과 공경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집안이 가난하면 있고 없는 것을 가리어 있는 대로 하고, 질병이 있으면 근력이 제사를 지낼 정도가 되면 제사를 지내고, 재력이 있으면 마땅히 이같이 성의를 다한다.

凡祭는 主於盡愛敬之誠而已 貧則稱家之有無 疾則量助力而行之 財力可及者는 自當如儀니라.³⁵⁾

34) 현토주해 『사례편람』 전 세창서관 편집부 편찬, 발행.

② 네제 禘祭

계추季秋(9월)에 아버지에게 지내는 제사로 전달(8월) 하순에 날을 잡아 제사한다.

네제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전 삼일 재계. 전일일 설위 진기 구찬前三日齋戒. 前一日設位 陳器 具饌. 3일전에 재계하고, 1일전 신주神主 내어 놓을 자리를 만들고 제사용품들을 닦아 정리 하여 놓고, 제수를 준비한다. 2. 궐명숙홍 설소과 주찬厥明夙興 設蔬果 酒饌하고 질명 성복 예사당 봉신주 출취정침.質明 盛服 詣祠堂 奉神主 出就正寢.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나물. 찬. 술을 차리고 날이 밝을 무렵 신주神主를 교의交椅에 내어 모신다. 3. 참신參神. 강신降神. 진찬陳饌.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 유식侑食. 합문闔門. 계문啓門. 수조受酢. 사신辭神. 납주納主. 철徹. 준餼(초헌할 때 삼궐주 독축문)

③ 기일 忌日

매년 제삿날 지내는 제사. 기일에는 부모가 돌아간 슬픈 날로 즐거운 일을 피한다. 또한 기 일에는 그 날 돌아가신 분만의 신주 1위만을 내어놓고 제사하는 것이라 주자가례에 있으나, 오늘날에는 한 분만 제사하는 것이 미안하여, 양위를 함께 제사하는 것이 통례로 쓰이고 있다. 제사순서는 사시제와 네제에 준한다.

이날은 술. 고기를 먹지 않고 즐거운 음악을 듣지 않으며, 검푸른 건巾을 쓰고 소복素服에 소대素帶를하고 저녁에는 밖에 있는 방에서 잔다.

제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전일일 재계설위前一日 齋戒設位. 2. 진기 구찬陳器 具饌. 3. 궐명 숙홍 설소과 주찬厥明 夙興 設蔬果 酒饌. 4. 질명 주인이하 변복質明 主人以下 變服. 5. 예사당 봉신주 출취정침詣祠堂 奉神主 出就正寢. 6. 참신參神. 7. 강신降神. 8. 진찬陳饌. 9. 초헌初獻. 10. 아헌亞獻. 11. 종헌終獻. 12. 유식侑食. 13. 합문闔門. 14. 계문啓門. 15. 사신辭神. 16. 납주納主. 17. 철徹. (초헌할 때 삼궐주 독축문)

④ 묘제 墓祭

3월 상순에 택일하고, 하루 전에 재계齋戒한다.

제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구찬具饌: 제수祭需를 준비 한다. 2. 궐명 쇄소厥明灑掃: 다음날 새벽에 산소 주변을 깨끗하게 한다. 3. 포석 진찬布席陳饌: 자리(상석이 있으면 상석에)를 깔고 제수를 차린다. 4. 참신. 5. 강신. 6. 초헌. 7. 아헌. 8. 종헌. 9. 사신. 10. 철. (초헌할 때 삼궐주 독축)

▣ 수제후토 遂祭后土. 포석진찬布席陳饌

토지신土地神에게 자리를 깔고 제수를 차리어 제사를 지낸다.

제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강신. 2. 참신. 3. 초헌. 4. 아헌. 5. 종헌. 6. 사신. 7. 철.

35) 현토주해 『사례편람』 전 세창서관 편집부 편찬, 발행. 사시제四時祭 293쪽

2) 현대의 제사

이상과 같이 『사례편람』에 기록된 것에 따르면, 사당에서의 고조고비(高祖考妣)까지 4세대(四代) 봉제(奉祭)에 있어, 1년 중 제사 횟수와 제상(祭床)차림은 사시제(四時祭)에 제사 4회, 제상(부부 각설 경우 4대) 8상이며 4계절 합하면 32상. 네제(禘祭)에 제사1회 제상 1상. 기일제(忌日祭)에 제사8회, 제상(부부 각설 경우 4대 8인) 8상. 묘墓에서 묘제(墓祭)에 제사 1회 제상 8상으로 1년 중 총 제사횟수는 14회이고 제상은 49상을 차려야 했다. 이뿐인가 설날과 추석에도 차례(茶禮)를 더했으니, 실로 종손(宗孫)으로 4대 봉제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벅찰 뿐만이 아니라,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었다. 따라서 여자가 종가 며느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잘사는 종가도 많지 않았다. 오죽하면 자주 발생하는 일을 빗대어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는 말이 있겠는가.

오늘날에는 사당에서의 사시제, 네제, 기일제, 묘제 중 기일제만 이어오고 있고, 사시제, 네제, 묘제는 어느 때부터 없어졌는지 알 수 없다. 기일제마저 고조고비와 증조고비의 제사는 어느 때부터 제사를 지내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고, 현재 대부분 종가에서도 조고비와 부모의 제사만을 지내고 있다.

이는 한국전쟁이후 서구문화가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또한 교육과정이 점차 대학교를 졸업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외국연수 등 다양하게 늘어나는데 기인하여 결혼연령이 늦추어지고, 이런 이유 등으로 고조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자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증조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자라는 경우도 흔치않아 서로의 정(情)을 못 느끼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인구의 증가와 함께 삶의 경쟁에 따른 다양하고 바쁜 일상생활을 하여야 하는 현실에서 제사를 많이 지내야 하는 불편이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만을 제사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도 본다.

① 기일제의 제사순서 정리

순서	구분 사항	행동 사항
1	전 일일 재계 설위 前一日 齋戒 設位	제사 하루 전 날 목욕하고 몸과 마음을 제사에 집중하고 교의와 신주(없을 경우 지방을 쓴다)를 확인, 준비한다.
2	진기 구찬 陳器 具饌	제기, 향로, 향함, 등 제구를 닦아 정비하여 두고 제사 음식을 확인하며 깨끗이 만들어 잘 보관한다.
3	결명 속흥 설 소 과 주찬 厥明 夙興 設 蔬 果 酒饌	제삿날 새벽 일찍 일어나 나물, 과일, 술, 반찬 등을 차린다. (결명: 먼동 뜨기 전 새벽)
4	질명 주인 이하 변복 質明 主人 以下 變服	날이 밝으면 주인(초헌) 이하 제사지낼 옷(깨끗한 일상복)으로 갈아 입는다. (질명: 먼동이 뜨고 헤뜨기 전)
5	예 사당 봉 신주 출취 정침 詣 祠堂 奉 神主 出就 正寢	사당으로 가서 신주를 모시고 정침(대청)으로 나온다. 신주가 없는 경우, 지방을 써서 교의 북면에 붙인다.

순서	구분 사항	행동 사항
6	참신 參神	신(제사 대상)을 처음 빚는 인사이다. 주인(초헌)이하 모두 두 번(여자 네 번) 절한다.
7	강신 降神	분향재배: 주인이 향을 피우고 두 번 절한다.(영혼을 부름) 뇌주재배: 술잔을 모사에 따르고 두 번 절함(체백을 부름)
8	진찬 陳饌	어육전 떡, 국수, 갱.반(밥)을 차린다. 이는 따뜻해야 먹기 좋은 음식으로 위 3번 차림 때 하지 않고 신이 온 후 함.
9	초헌 初獻	주인(초헌)이 첫 술잔을 올리는 것이다. 이때 채주하여 다시 잔을 올린 다음 독축을 하고 끝나면 재배하고 퇴한다.
10	아헌 亞獻	아헌이 신위에게 두 번째 잔을 올린다.
11	종헌 終獻	종헌이 신위에게 세 번째 잔을 올린다.
12	유식 侑食	주인은 신위 앞의 술잔에 술을 더 따라 가득 채우고, 주부는 밥뚜껑을 열고 밥 중앙에 숟가락을 꽂는다.
13	합문 闔門	주인이하 모두 문밖으로 나가. 남자는 재동서향, 여자는 재서 동향하고 고개를 숙이고 9수저 먹는 시간을 기다림
14	계문 啓門	축이 “애흠” 3번하고 정침으로 들어가면 주인이하 모두 정침으로 들어간다.
15	사신 辭神	신과 직별합니다. 주인이하 모두 두 번(여자 네 번)절한다 모두 절을 마치면 축문과 지방을 불태운다.
16	납주 納主	주인과 주부는 신주를 사당의 원 위치에 다시 봉안한다. 신주가 없고 지방을 쓰는 경우는 이 순서가 생략된다.
17	철 徹	제사가 끝나면 상을 내리어 적 등 제수를 나누어 먹는다.

- ㉓ 신주神主가 없고 지방紙榜을 쓸 때는 참신보다 강신을 먼저 한다.
- ㉔ 사신辭神 다음에 분 축문(焚祝文: 축문과 지방紙榜을 불태움)을 한다.

▣ 지방식紙榜式

(祖考의 紙榜) : 顯(高祖, 曾祖, 祖)考 (某官 또는 學生) 府君 神位

(祖母의 紙榜) : 顯(高祖, 曾祖, 祖)妣 (某封 또는 孺人) 某氏 神位

回 축문식祝文式

維

年號幾年, 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某親某官某(弟 以下엔 不名) 敢昭告于(妻去 敢字, 弟以下엔 但云 告于)

顯某親某官府君.(某親: 高祖. 曾祖. 祖. 考/ 某官: 官職名. 없으면 學生) 歲序遷易, 諱日復臨, [(備要) 妻弟以下엔 云亡日復至] 追遠感時, 不勝永慕, (考妣엔 改 不 勝永慕를 昊天罔極으로, 傍親엔 去 追遠以下 八字 云 不勝感愴이요, 妻弟 以下엔 當改 感愴이 佗語로 不勝悲感) 謹以 (妻弟以下엔 茲以) 清酌庶羞, 恭伸奠獻, [(備 要) 妻弟以下 엔 云 伸此奠儀] 尚饗

- 지방紙榜(종이에 써서 신주神主를 대신 하는 것)이나 축문은 세로로 써서 사용함이 전하여지는 예禮이다.

② 묘제의 제사순서 정리(사당에서 지내는 선조의 묘제)

순서	구분 사항	행동 사항
1	구찬 具饌	하루전 제수祭需를 준비 한다
2	결명 쇄소 厥明 灑掃	제삿날 새벽에 산소 주변을 깨끗하게 한다.
3	포석 진찬 布席 陳饌	자리를 깔고 제수를 차린다. 상석床石이 있으면 상석에 차린다.
4	참신 參神	신(제사 대상)을 처음 뵈는 인사이다. 주인(초헌)이하 모두 두 번(여자 네 번) 절한다.
5	강신 降神	분향재배: 주인이 향을 피우고 두 번 절한다.(영혼을 부름) 뇌주재배: 술잔을 모사에 따르고 두 번 절함(체백을 부름)
6	초헌 初獻	주인(초헌)이 첫 술잔을 올리는 것이다. 이때 재주하여 다시 잔을 올린 다음 독축을 하고 끝나면 재배하고 퇴한다.
7	아헌 亞獻	아헌이 신위에게 두 번째 잔을 올리고 재배하고 퇴한다. 재주와 독축이 없다. (초헌의 잔을 내리고 다시 올린다)
8	종헌 終獻	종헌이 신위에게 세 번째 잔을 올리고 재배하고 퇴한다. 재주와 독축이 없고, 올린 잔을 내리지 않는다.
9	사신 辭神	신과 작별합니다. 주인이하 모두 두 번(여자 네 번)절한다 모두 절을 마치면 축문과 지방을 불태운다.
10	절 徹	제사가 끝나면 상을 내리어 적 등 제수를 나누어 먹는다.

- ㉔ 초헌 순서에는 삼궤주三祭酒와 독축을 한다. 독축은 주인 좌측에서 동향하여 독축 한다.
- ㉕ 사신辭神을 한 다음 분 축문(焚 祝文: 축문을 불태움)을 한다.
- ㉖ 이 묘제의 제사순서는 5대代조고비祖考妣 이상의 음역 10월의 시향時享에 참고한다.

▣ 축문식祝文式

維

年號幾年, 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某親某官某, 敢昭告于(告妻及弟以下는 見上忌 祭祝文)

顯某親某府君.(或某封某氏오, 合窆位則列書하고, 妻엔 云 亡室이오, 卑幼엔 改顯爲亡하고, 去府君二字) 之墓. 氣序流易, 雨露旣濡, 瞻掃封塋, 不勝感慕 (爲考妣엔 改不勝感慕, 爲昊天罔極이오, 傍親엔 爲不勝感愴이오, 妻弟以下엔 當改 感愴以 佗語로 不勝悲感) 謹以 (妻弟以下엔 茲以) 清酌庶羞, 祇薦(傍親엔 云 薦此오. 妻 弟以下엔 云 陳此) 歲事 尚 饗

5. 말을 맺으며

제사의 기원은 『예기禮記』에서 순舜임금 때 처음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어 약 4 천 년 전에 서부터 시작하였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사의 대상은 선조先祖뿐만이 아니라 천지자연과 만물이 모두 그 대상이라 하겠다. 이들을 크게 대별하면 천신天神, 지기地祇, 인귀人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들에게 제사를 지내어 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선조의 제사는 살아계실 때 섬기듯 그 공경을 다하여야 하고, 천신, 지기를 비롯한 만물에 대하여도 그 대상의 신이 모두 거기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이들이 항상 심기가 평안하여 우리 삶에 풍우를 조절하여 풍년이 들게 하고 무병장수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렇게 제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함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예이니, 선조에 대한 제사에서는 가족과 일가가 만나고, 사회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에서는 이웃과 주민이 만나는 계기가 되어 협동정신과 화목단결의 긍정적 계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제사를 행할 때는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을, 그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 대상 앞에서 정성껏 기원하므로 주민이 하나가 되는 것이니 제사는 미풍양속과 화목단결의 계기로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제사를 행하는 과정에서 전래傳來하는 홀기에 따라 시행하므로 제사음식을 만드는

것이 생활음식과 달라 어렵고 불편하며, 제사홀기에 따라 제사를 지내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바쁜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고, 홀기가 한문체로 되어있어 한글세대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쓰기 편하도록 한글로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어 이는 점진적으로 개선하여야겠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제사를 논할 때,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종교에서는 우리의 제사를 미신으로 미루어 타파할 대상으로 여기기도 한다.

생각하면 천지자연에 대한 제사는 일부 화목단결과 위안을 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자연과학이 발달하여 천체의 움직임 등이 밝혀진 현실에서, 이에 대한 전래傳來의 제사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조상에 대한 제사는 인간의 삶을 같이하던 부모에 대한 효의 연속선상에서 아버지의 아버지가 결국 시조始祖라 생각할 때 이는 미풍양속으로 지속되어야겠다.

따라서 『사례편람』의 사시제四時祭, 네제禰祭, 기일제忌日祭, 묘제墓祭 중 현대인의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자연스럽게 도태淘汰되어 가고 있는 제사를 제외한, 부모 와 조부모에 대한 기일제忌日祭는 최소한 현상 유지되어야겠다.

또한 5대조고 이상의 음력 시월에 행하는 시향時享(一名 時祭)은 이를 증조고비曾祖考妣와 고조고비高祖考妣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시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제사의 홀기는 현실에 맞게 한문체를 한글로 번역하여 병서並書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제상 차림도 그 종목과 조리법을 현실의 밥상을 참작하여 개선하면 좋겠다.

다만 시조始祖나 파조派祖의 시향에서는 각각의 고례古禮 제사홀기祭祀笏記를 그대로 시행하므로 전통의 제사순서나 제사상 차림의 본 뜻을 새기게 하고, 그 외에는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사용하였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제사가 신구新舊가 공존되며 온고지신溫故知新 되어가는 미풍양속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끝으로 가례家禮로 이어지는 원형原形의 제사홀기를 따를 것인가,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나갈 것인가는, 각각의 전래傳來 예의禮儀가 서로 달라 연구와 합의를 통해 결정할 몫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李紱, 「懸吐註解 四禮便覽 全」 世昌書館 編輯部編纂. 世昌書館 發行.

朱子 지음, 任敏赫 옮김, 「원전총서 주자가례」 예문서원 2007초판4쇄

李相玉 譯著, 「禮記」 신선명문동양고전대계. 개정증보판. 신완역. 上 2003

李相玉 譯著, 「禮記」 신선명문동양고전대계. 개정증보판. 신완역. 中 2003

李相玉 譯著, 「禮記」 신선명문동양고전대계. 개정증보판. 신완역. 下 2003

柳承國 著, 「한국사상의 연원과 역사적 전망」 유교문화연구총서10. 유교문화연구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2008

柳承國 著, 「한국유학사」 유교문화연구총서 9. 유교문화연구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연
구원. 2008

成百曉 譯註, 「현토완역 서경집주 상」 동양고전국역총서6. 전통문화연구소. 2009 초판 9쇄

경기 파주지역의 時祭 연구

권효숙*

- I. 머리말
- II. 파주 세거문중의 時祭 실태
 - 1. 문중별 시제 현황
 - 2. 제수와 진설
 - 3. 시제 진행순서와 특징
- III. 맺음말

I. 머리말

파주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도읍지와 가까운 곳으로 ‘서교’라고 불리면서 많은 사족들이 세거하던 곳이다. 도성과 가까우니 도성의 정보를 빠르게 입수할 수 있기에 사족들은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묘를 이곳에 정해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거주하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왕실과 혼맥을 이룬 명문 가문들의 사패지 분급으로 인한 집성촌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지금도 여러 문중에서는 사패지를 관리하면서 종인들의 거주가 점차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조선시대에 뛰어난 성리학자 청송 성수침이 부인 파평 윤씨의 고향 파주에서 복거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찾았으며, 성리학의 대가인 휴암 백인걸 문하에 올곡 이이,

* 파주문화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우계 성훈 등 기호학의 맹주들이 파산학의 근거지를 조성하면서 ‘문향 파주’로 불리기도 하였다. 훌륭한 스승을 찾아 많은 제자들이 이곳으로 찾아와 학맥을 맺고 이는 혼맥으로 이어져서 함안 조씨의 조감이 스승 백인걸의 사위가 되어 월릉면 능산리에 뿌리를 내리고, 조감의 사위는 우계 성훈 선생의 아들인 창량 성문중(成文濬)으로 문산읍 내포리에서 세거하였고, 평산 신씨 화당 신민일(申敏一)은 창량의 사위가 되어 법원읍 금곡리에 터를 잡았다. 또한 사계 김장생이 울곡을 찾아와 배움을 청하고, 울곡선생의 딸은 사계 김장생의 아들 김집에게 출가한 사실에서 학맥이 혼맥으로 이어지는 예를 볼 수가 있다. 현석 박세체가 울곡의 학풍을 이어받으며 후일에는 자운서원에 이 세 분이 배향되었다.

필자는 2008년도에 『파주시지』편찬작업에 동참하면서 파주지역에 오래전부터 세거해 오는 여러 성씨와 문중의 입향조와 입향 원인, 시기, 문중행사와 모임 등을 조사한 바 있었는데, 각 문중의 시제를 보면서 비슷하거나 조금씩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각 문중들은 다른 문중의 제사형식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는 ‘가가례’라는 말도 있듯이 각 집안의 제사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관습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파주지역의 문중별 시제의 특성을 조사해 비교해보고 이 지역의 유교적 제사형식은 다른 지역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었으며, 각 문중별 특징은 무엇인지 궁금하였다.

이 글에서는 각 성씨별 문중 시제의 제사형식과 절차, 진설법 등을 조사해 표로 비교해 보았으며, 특징을 찾아 기록하였다. 파주에는 많은 성씨와 문중이 있으나 시간의 제약으로 전부 조사하기가 어려워 한 지역에 20호 이상 동족마을을 이루고 있는 문중의 시제를 위주로 조사하였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다른 문중의 제사형식은 알기 어려운 것인데, 이 연구를 통해 같은 지역에 살아가는 각각의 문중 제사 형식을 알고 비교해보면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조사와 연구 기록은 파주지역 민속 분야 연구에 있어 앞으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II. 파주 세거문중의 時祭 실태

파주지역에서는 시제(時祭)와 묘제(墓祭)를 구분하지 않고 대체로 묘제를 시제라 부르고 있다. 시제는 사시제(四時祭)의 준말로, 춘하추동 사계절의 가운데 달에 날을 골라 모든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를 의미한다. 묘제는 음력 3월과 10월 중에 날을 택해서 5대조 이상의 조상을 해마다 한번 묘소에서 받드는 제사이다. 세일사(勢一祀)라고도 한다. 요즘은 묘제를 관습상 시향(時享)·시사(時祀)·시제(時祭)라고 일컫고 있다. 묘제라고는 하나 묘사(墓祀)를 지내지 않고 사당이나 재실에서 위패를 봉안하고 지내는 제사까지도 같은 개념으로 포함하고 있다. 본고에서 ‘시제’라고 함은 이같이 묘제·시향·재실에서의 제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시제는 고려 공양왕 2년(1390) 8월에 <사대부가제의(士大夫家祭儀)>를 제정하여 사시제의 절차와 내용을 정하였고, 조선시대에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주자(朱子)의 <<가례>> 의식을 본떴다.

『주자가례』의 묘제에서는 음력 3월 상순에 택일하여 받들며, 그 절차는 가제(家祭)의 의식과 같이 하루 전에 재제(齋戒)한 뒤, 참신·강신·초헌·아헌·중헌·사신·철찬의 순으로 지낸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까지는 이같은 묘제를 매년 한식·단오·추석·중양에 하였고, 뒤에는 지방에 따라 한식과 추석에 두 차례, 혹은 추석이나 중양에 한번 행하는데, 먼저 집에서 절사(節祀)를 행하고 다음날 성묘를 하였다.

율곡은 『격몽요결』 「시제의(時祭儀)」에서 ‘시제(時祭)는 춘분·하지·추분·동지에 지낸다. 혹은 <가례>에 의하여 한달 전으로 날짜를 선택하여 중월(仲月)로 정한다.’²⁾ 하였고, 「묘제의(墓祭儀)」에서는 ‘묘제(墓祭)는 속제(俗制)에 의해서 네 명일(즉 정월 초하루·한식·단오·추석)에 행한다. 이때는 산재를 2일 동안 하고 치재를 1일 동안 한다.’고 하였다.³⁾

후에 경기도 용인출신 기호학과 도암 이재(李縉)⁴⁾는 『주자가례』를 체계화하여 『사례편람(四禮便覽)]을 저술해서 예법을 정비하였는데 『사례편람』은 사계 김장생이 편찬한 『상례비요(喪禮備要)]와 주자의 『가례』, 율곡의 『격몽요결』 등을 참고하여 저술한 것이다.

이재는 『사례편람』에서 『주자가례』의 3월 한번 지내는 것을 찬성하고, 사시제를 행하고, 묘제는 1년에 한번 하도록 제창하였다. 이후 묘제는 한번 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⁵⁾

도암 이재는 또한 “친족으로서 촌수가 끝난 할아버지(5대 이상)의 묘제는 위의 체천조(遞遷條)에서 살필 수 있는데 한위공(韓魏公)의 예에 따라 시월 초하루에 제사함이 옳을 듯하다.”⁶⁾고 하였다. 현재 일반적으로 묘제가 음력 시월에 행해지는 것은 아마 『사례편람』의 예법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파주지역에서는 대체로 기호학파의 제례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특히 금승리 장수황씨 문중의 시제에서는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에 의한 예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교하 송촌리 행주기씨 정지공파 문중에서는 개량흥기를 이용해 현대인들이 알기 쉽게 진행하기도 한다.

2) “時祭用春分夏至秋分冬至 前期三日告廟 若其日有故則退定 不出三日 以退定之故告廟 或依家禮 前期一朔 以仲月로 卜日”
 3) “墓祭 依俗制 行于四名日 正朝 寒食 端午 秋夕 散齋二日 致齋一日”
 4) 이이(李珣)-김장생(金長生)-송시열(宋時烈)-김창협(金昌協)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畿湖學派)의 학맥을 이어오면서도 그 나름의 학통을 수립한 대학자로서, 성리학과 예학에서 유명한 기호학파이자 노론의 대학자.
 5) 홍순석, 『경기 용인지역의 묘제 연구』, 비교민속학회, 『비교민속학』, 2009년.
 6) “親盡祖墓祭見上遞遷條 依韓魏公禮 十月一日祭之 恐得宜(『四禮便覽』卷8, 祭 40b-41a), 홍순석의 『경기 용인지역의 묘제 연구』에서 재인용.

1. 문중별 시제 현황

파주지역에서는 시제를 대체로 음력10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지내고 있으며 시제를 지내기 전 한 달쯤 전부터 묘역 근처에 거주하는 후손들이 묘소에 올라가서 별초를 하고 주위를 청소한다.

1) 시제를 지내는 시기

파주지역에서는 시제를 대개 음력 10월 초순에 많이 지내지만, 양천허씨 교위공파는 양력으로 10월 셋째일요일에 지내기도 하고, 교하 산남리 거창신씨 참판공파 문중은 양력 4월 둘째 일요일에 지내는 곳도 있다. 청송심씨 공숙공파 문중은 원래 음력 10월 보름을 전후하여 지냈는데 공숙공의 큰아들 7세조의 묘가 의정부 외곽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어 영태리 공숙공 묘 아래로 이장해 와서 올해부터 음력 10월 23일로 지내기로 종중회의에서 결정하였다. 파평윤씨 정정공파 교하문중은 한식과 음력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이나 지낸다고 한다. 음력 10월 10일이 지난 후 일요일에 지내는 야동동 나주정씨 고암공파 문중과 적성면 답곡리의 청주한씨 참판공파 문중도 있는데 이는 많은 종인들의 왕래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시제일자를 정한 것으로 앞으로 점차 이렇게 일요일을 이용해 지내는 문중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 시제를 지내는 장소

시제를 지내는 장소는 주로 재실이 많으며, 밀양박씨 공여공파 문중은 묘소에서 지내다 비가 오면 재실에서 지내기도 한다. 파평윤씨 정정공파는 불천위 5위만 사당에서 지내고 그 외는 묘소에서 지낸다고 하며, 창녕성씨 상곡공파 내포리 문중은 허백당 한분만 재실에서 지내고 그 외는 묘소에 올라가 지낸다고 한다. 양천허씨 교위공파 문중은 6.25전쟁 전의 세거지였던 장단군 대강면 우건리 선영이 DMZ지역이라 갈 수 없어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산 세장원에서 19세조부터 25세조까지의 묘제를 지내며 그 아래 선조들은 교하 동패리의 사당에서 지낸다고 한다. 행주기씨 정지공파는 세 분의 단이 있는 곳에서만 묘제로 지내고 그 외에는 재실 덕장재에서 지낸다.

3) 시제비용 마련

문중의 시제비용은 대개 제위토(祭位土)를 마련하여 그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주지역의 대부분 문중도 시제비용을 이렇게 마련하지만 백석4리 도창골의 교하노씨 공숙공파는 일부를 문중부담금으로 이용하고 오금2리 밀양박씨 공여공파는 대중회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야동동의 나주정씨 고암공파는 종손이 부담하고 양천허씨 교위공파 문중은 종재로 부담하며 산남리 거창신씨 참판공파 문중은 종인들의 현성금으로 시제를 올리고 있다.

〈표 1〉 문중별 시제 현황

성씨	문중	묘역 소재지	시제일	시간	장소	참석인원	비용마련	제보자
행주 기씨	정지공파	교하읍 송촌리	음력 10월 13일	오전 10시	묘(단3위). 재실	30여 명	위토:약2천 평	기연도
강릉 김씨	감무공파	문산읍 내포리	음력 10월 첫주 일요일	오전 11시	재실	60여 명	위토:전답 약 3천여 평	김문년
교하 노씨	공숙공파	파주읍 백석4리 도창골	음력 10월 10일	오전 10시	재실	70여 명	위토:2800여평. 문중부담금	노성래
진주 류씨	시윤공파 호은공 종중	교하읍 동패4리	음력 10월 8일	오전 10시	재실	60여 명	위토:약 1만 5천평	류기형
밀양 박씨	공여공파	오금2리	양력 10월3일	오전 11시	묘,우천시 재실	250여 명	대중회 지원금	박선재
창녕 성씨	상곡공파	문산읍 내포리 안골산	음력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오전 10시	재실(허백당)묘	50여 명	위토:약 1만1300평	성금현
거창 신씨	참판공파	산남리	양력 4월 둘째 일요일	오전 10시	재실	100여 명	종인 헌성금	신영재
평산 신씨	화당공파	법원읍 금곡리	음력 10월 1일	오전 11시	재실	30여 명	위토:전답 약 3천평	신호선
청송 심씨	공숙공파	월롱면 영태리	음력 9월 23일		묘	50여 명	위토:임야 8만3천여평. 전답대지 약 13만평	심광섭
단양 우씨	정평공파	탄현면 만우리	음력 10월 3일 지난 첫일요일		묘	100여 명	위토:임야 8만5천평. 전답 약4천 평	우관제
파평 윤씨	정정공파	교하읍 당하리. 와동리	한식. 음력 10월3일부터 12일까지	오전 11시	향사(불천위) 묘	80여 명 (윤관묘 시제 500여 명)	위토:당하리 7천여 평. 윤관묘위토 4천여평.와동리 7천여 평 이상	윤정용
경주 이씨	국당공파	교하읍 산남리	음력 10월 첫일요일	오전 9시	묘	80여 명	위토:약 3천평	이재식
연안 이씨	삼척공파	조리읍 뇌소리	음력 10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재실	50여 명	위토:임야 15만평 및 종중건물 임대료	이인희
전주 이씨	담양군파	파평면 금파리	음력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	재실	120여 명	위토:약 3만평	이환용
나주 정씨	고암공파	아동동	음력10월 10일 지난 첫일요일	오전 10시	묘	50여 명	종손 부담	정문영
함안 조씨	참판공파	월롱면 능산리	음력 10월 첫일요일	오전 10시	재실	150여 명	위토:전답 약 4천평. 임야 19정보	조석래
동주 최씨	정안공파	적성면 울모리	음력 10월 7일~13일	오전 11시	묘	50여 명(최영장군묘 시제 200여 명)	위토	최주택
청주 한씨	참판공파	적성면 답곡리	음력 10월 10일 근처일요일	오전 10시	재실	30여 명	위토	한기태
양천 허씨	교위공파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 동패리	양력 10월 셋째일요일	오전 11시	묘,사당	100여 명	종재로 부담	허엽
장수 황씨	묘하종중	탄현면 금승리	음력 10월 3일	오전 11시	묘	100여 명	위토:약 5천여평	황두하

2. 문중별 시제 진설

1) 제수진설법

율곡 이이 선생은 『격몽요결』 ‘시제의’에서 음식 장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⁷⁾

“신위 한 분에 과일 다섯 가지와(가난해서 다섯 가지를 다 마련하지 못하겠으면 세 가지라도 좋다) 포 한 접시(이것은 흔히 자반이라고 한다), 익은 나물 한 접시, 식혜 한 그릇, 김치 한 그릇, 간장 한 종지, 초나물 한 접시, 생선과 고기 각각 한 접시(생선과 고기는 마땅히 신선한 것으로 한다.), 떡 한 접시, 국수 한 대접, 국 한 그릇, 밥 한 주발, 탕 다섯 가지(이 다섯 가지는 생선과 고기, 혹은 나물과 그 밖의 것으로 때에 따라 마련한다. 이것도 가난해서 마련하기 어려우면 세 가지도 역시 좋다), 구운 고기 세 가지를 쓴다.(이것은 간이나 고기, 생선 또는 꿩 같은 것으로 한다.)”

도암 이재의 『사례편람』에서는 묘제에서의 진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제상 남쪽 끝에(넷째 줄)에 과일 접시를 진설하고, 그 다음 줄(셋째 줄)에는 채소와 포와 식혜를 차리고, 북쪽 끝에 잔대와 초접시를 놓되, 잔은 서쪽, 접시는 동쪽이다. 시저는 첫 줄의 중앙에 놓는다. 다른 상 위에 현주(玄酒)와 술병을 두되, 현주는 서쪽이다.”⁸⁾

제상 남쪽 끝에 과일을 진설하는 것은 일반적인데 각 문중별 과일 진설순서는 ‘홍동백서(紅東白西:과일은 붉은 것(사과·꽃감·대추)은 동쪽, 흰 것(배·밤)은 서쪽에 놓기)’와 ‘조율이시(棗栗梨柿: 대추, 밤, 배, 꽃감 순서)’, 또는 ‘조율시이(棗栗柿梨)’로 다르다.

파주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문중이 ‘조율이시’를 택하고 있는데 교하 송촌리 행주기씨 정지공파와 백석리 교하노씨 공숙공파 문중만 ‘홍동백서’ 진설을 하고 있다. ‘조율시이’를 사용하는 곳은 양천허씨 교위공파와 장수황씨 묘하중중이다. 강릉김씨 감무공파는 제사자 위주로 서쪽을 높여 조율이시, 서두동미, 좌포우혜, 외탕내적으로 진설하되 과일은 짝수로, 동물은 홀수로 놓는다.

김시백에 의하면 “홍동백서나 조율이시 진설법은 경기지역 조사의 예에 따르면 노론은 홍동백서를 남인은 조율이시를 사용한다는 당파별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⁹⁾

2) 제수

파주지역에서는 시제에서 메와 갯을 진설하지 않는 문중이 있는데, 묘사(墓祀)이기 때문에 메와 갯 대신 면(국수)을 올린다고 한다. 단양우씨 정평공파와 양천허씨 교위공파가 그러하다.

7) “每位 果五品 貧不能辦則三品亦可脯一椀 俗稱佐飯熱菜一椀 醢一椀 沈菜一椀 清醬一器 醋菜一椀 魚肉各一椀 魚肉 當用新鮮生物 餅一椀 麪一盤 羹一盤 飯一鉢 湯五色 或魚或肉或菜 隨所備 若貧不能辦 則只三色亦可 炙三色 肝肉及魚雉”

8) “設果楮於逐位卓南端(即第四行) 蔬菜脯醢相關次之(即第三行) 設盞盤醋楮於北端 盞西楮東 匕筯居中(即第一行) 設玄酒及酒瓶於架上 玄酒在西”(『四禮便覽』卷8, 祭 19b-20a), 홍순석의 「경기 용인지역의 묘제 연구」에서 재인용.

9) 김시덕, 「용인지역의 제사」, 『인문사회논총』5집(용인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5), 46쪽, 재인용

(가) 적

적을 올리는 것은 대부분 육적(소고기), 소적(두부), 어적(복어·숭어·조기 중 하나)을 올리는데 단양우씨 정평공파의 경우는 이외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더 올린다. 닭은 머리 위 벗과 다리까지도 그대로 손상없이 올리는데 이는 집안에 신체불구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한다. 닭고기 계적을 올리는 문중은 진주류씨 호은공중중, 창녕성씨 상곡공파, 평산신씨 화당공파, 파평윤씨 정정공파, 함안조씨 참판공파, 양천허씨 교위공파, 장수황씨 묘하중중으로 조사되었으며, 소고기 하나만 단적으로 올리는 곳은 전주이씨 담양군파이고, 교하노씨 공숙공파는 어적과 육적 두가지만 올리고 있다.

적을 올리는 방법은 문중마다 조금 다르다. 강릉김씨 감무공파와 거창신씨 참판공파, 평산신씨 화당공파, 함안조씨 참판공파 등은 처음부터 그대로 진설하고 헌작을 할 때는 술잔만 올린다. 헌작할 때마다 적을 한 가지씩 차례차례 올리는 곳은 밀양박씨 공여공파, 파평윤씨 정정공파, 연안 이씨 삼척공파 등 대부분의 문중에서 행한다.

(나) 탕

탕은 대부분 삼탕을 쓰는데 육탕(소고기), 소탕(두부), 어탕(복어)이다. 육탕만 하나 올리는 곳은 창녕성씨 상곡공파인데 원래 오탕을 썼다가 번거러워 10년 전부터 단탕으로 바꿨다고 한다. 오탕을 올리는 곳도 있는데 전주이씨 담양군파는 육탕·소탕·어탕·봉탕(닭)·잡탕을 쓰고, 파평윤씨 정정공파는 정정공파 불천위 등 7위만 오탕(육탕·소탕·어탕·장탕(내장)·잡탕)을 쓰고 그 외에는 삼탕을 쓰고 있다. 파평윤씨 정정공파에서 내장탕을 올리는 것은 파주지역에서 유일한 사례이다.

(다) 나물과 침채

나물과 침채(고춧가루와 젓갈을 쓰지않고 무·배추로 담근 나박김치)는 대체로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숙주나물, 침채를 쓰는데 창녕성씨 상곡공파에서는 숙주나물과 침채만 올리고 특별히 우계 성훈 제사에만 삼색나물을 쓰고 있다고 한다. 숙주나물과 침채만 올리는 곳은 전주이씨 담양군파, 함안조씨 참판공파, 장수황씨 묘하중중이며, 숙주나물만 올리고 침채도 올리지 않는 곳은 청송심씨 공숙공파이다. 파평윤씨 정정공파는 숙주나물과 무나물, 침채를 올리며, 청주한씨 참판공파는 그때그때 자유롭게 올린다고 한다.

그밖에 편(떡)을 올릴 때 시루떡이나 인절미 등을 쌓아놓고 위에 화전과 주악으로 장식을 하는 일반적인 경우가 많았으나, 단양우씨 정평공파는 사람들이 잘 먹지 않아서 골무떡과 찹쌀인절미를 올린다고 하였다. 또한 밤·대추 등을 꿀 때 투명원통을 사용하여 보기 좋으면서도 쌓기 수월하게 하고 있어 편리성을 가미했다. 양천허씨 교위공파는 편에 화전과 주악 장식을 하지 않는다.

〈표 2〉 문종별 진설과 제수

성씨	문종	진설법	적	탕	나물, 침채
행주 기씨	정지공파	홍동백서	3적:육적,소적,어적(숭어 또는 조기)	3탕:육탕,어탕,소탕	고사리,도라지, 시금치,숙주나물,침채
강릉 김씨	감무공파	조율이시	3적:육적, 소적, 어적(복어) -한꺼번에 올림	3탕:육탕,소탕,어탕	도라지,시금치, 숙주나물, 침채
교하 노씨	공숙공파	홍동백서	2적:어적(조기),육적	3탕:어탕,육탕,백탕(두부)	고사리,도라지, 숙주나물, 침채
진주 류씨	시윤공파 호은공종중	조율이시	4적:소적,육적,계적, 어적 (숭어나 도미)	3탕:육탕,소탕,어탕	도라지,고사리, 시금치,숙주나물,침채
밀양 박씨	공여공파	조율이시	3적:육적,소적,어적(숭어) -차례로 올림	3탕:육탕,소탕,어탕	고사리,도라지, 숙주나물, 침채
창녕 성씨	상곡공파	조율이시	3적:육적,계적,어적(숭어)	단탕:육탕	숙주나물(우계성흔 제사만 삼색나물 썸),침채
거창 신씨	첨판공파	조율이시	3적:육적,소적,어적(복어) -한꺼번에 올림	3탕:육탕,소탕,어탕	고사리,도라지, 숙주나물, 침채
평산 신씨	회당공파	조율이시	3적:육적,계적,어적(복어) -한꺼번에 올림	3탕:육탕,소탕,어탕	도라지,시금치, 숙주나물
청송 심씨	공숙공파	조율이시	3적:육적,소적,어적(복어)	3탕:육탕,소탕,어탕	숙주나물
단양 우씨	정평공파	조율이시	5적:육적(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닭은 벗 다리까지 통으로),소적, 어적(숭어)	3탕:육탕,소탕,어탕	고사리,도라지, 시금치,숙주나물,침채
파평 윤씨	정정공파	조율이시	4적:육적,계적,어적(숭어),소적 -육,계,어적만 차례로 올린다	정정공 등 7위만 5탕:육탕,어탕,소탕,장탕(내장), 계탕 그 외는 3탕:육탕,어탕,소탕	숙주나물,무나물, 침채
경주 이씨	국당공파	조율이시	3적:육적,소적,어적(조기)	3탕:육탕,소탕,어탕	고사리,도라지, 시금치,숙주나물,침채
연안 이씨	삼척공파	조율이시	3적:육적,소적,어적(복어) -차례로 올림	3탕:육탕,소탕,어탕	고사리,도라지, 시금치,숙주나물,침채
전주 이씨	담양군파	조율이시	단적:육적	5탕:육탕,소탕,어탕,붕탕(닭),잡탕	숙주나물, 침채
나주 정씨	고암공파	조율이시	3적:육적,소적,어적(복어)	3탕:육탕,소탕,어탕	고사리,도라지, 시금치,숙주나물,침채
함안 조씨	첨판공파	조율이시	4적:소적,육적,계적, 어적(복어) -한꺼번에 올림	3탕:육탕,소탕,어탕	숙주나물, 침채
동주 최씨	정안공파	조율이시	3적:육적,소적,어적(조기)	3탕:육탕,소탕,어탕	도라지,고사리, 시금치,숙주나물, 침채
청주 한씨	첨판공파	조율이시	3적:육적,소적,어적(복어)	3탕:육탕,소탕,어탕	자유롭게 올림
양천 허씨	교위공파	조율시이	4적:소적,육적,계적,어적 (복어 또는 조기)	3탕:육탕,소탕,어탕(복어,굴,홍합 등 계절 따라 다르게 함)	시금치,도라지, 고사리
장수 황씨	장수황씨종중	조율시이	4적:육적,계적,어적(숭어),소적	3탕:육탕,어탕(두부위에 홍합 올림),소탕	숙주나물, 침채

3. 시제 진행순서와 특징

파주지역에서 시제를 지내는 형식은 기본적으로 각 집안의 기제사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시제는 많은 참가자가 참여하는 만큼 가가례의 절차에서 문중의 합의에 의한 형식으로 종회에서 제정한 형식으로 지내고 있다. 시제의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진설(陳設) : 나물과 과일 등을 먼저 차린다.
- ② 출주(出主) : 사당에서 신주를 정침으로 모신다.
- ③ 참신(參神) : 주인 이하 모두 두 번 절을 한다.
- ④ 강신(降神) : 주인이 분향하고 술을 따라 모사기에 따른 후에 두 번 절을 한다.
- ⑤ 진찬(進饌) : 국과 밥 등을 올린다.
- ⑥ 초헌(初獻) : 주인이 첫 번째 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은 후에 두 번 절을 한다
- ⑦ 아헌(亞獻) : 주부가 두 번째 잔을 올리고, 네 번 절을 한다.
- ⑧ 종헌(終獻) : 형제중의 맏이나 친척 중에 연장자가 세 번째 잔을 올리고, 두 번 절을 한다.
- ⑨ 유식(侑食) : 잔에 술을 더 채우며(첨작), 숟가락을 밥에 꽂고(삽시)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은 (정저) 후에 두 번 절을 한다.
- ⑩ 합문(闔門) : 문을 닫고 나가 흠향(歆饗)하기를 기다린다.
- ⑪ 계문(啓門) : 문을 열고 들어가 국을 내려 승냥을 올린다.
- ⑫ 사신(辭神) : 제사가 끝나 주인 이하 모두 두 번 절을 한다.
- ⑬ 납주(納主) : 신주를 사당으로 다시 모신다.
- ⑭ 철찬(撤饌) : 제사상의 음식을 모두 물리고, 그 음식으로 음복을 한다.

이와 같은 절차에서 묘사(墓祀)에서는 대체로 출주와 합문과 계문, 납주가 빠지게 된다.

1) 강신과 참신

시제를 지낼 때 재실이나 사당에서 지낼 때와 묘제로 지낼 때 강신을 먼저 하느냐, 참신을 먼저 하느냐 하는 논란은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사당이나 재실에서는 신을 불러 모셔와야 하기에 강신부터 하지만 묘제로 지낼 때는 이미 그곳에 신이 있기에 참신부터 한다는 것이다. 율곡 이이와 사계 김장생은 선강후참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주자와 도암 이재는 선참후강을 주장하고 있다.¹⁰⁾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 「묘제의」에서 “진찬·강신·초헌(초헌할 때 숟가락을 매 가운데 꽂고 젓가락을 건다)·아헌·종헌(종헌이 끝난 뒤에 국을 거두고 숙수(熟水)를 올린다)·사신을 마치고 음식을 거둔다.”¹¹⁾라고 기록하고 있다.

파주지역에서는 거의 강신을 먼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묘제에서 지낼 때는 신이

10) 홍순석, 「경기 용인지역의 묘제 연구」, 비교민속학회, <비교민속학>, 2009년

11) “陳饌 降神 參神 初獻 初獻時 卽扱匙飯中正筋 如家祭之儀. 亞獻 終獻 終獻後徹羹 進熟水 辭神 乃徹.”

그곳에 있다고 여기고 참신부터 하는 문중은 밀양박씨 공여공파, 단양우씨 정평공파로 조사되었다. 교하노씨 공숙공파는 묘제시 북향을 하고 개성의 시조를 위해 묵념을 먼저 하고나서 강신과 참신을 한다.

2) 삼시와 정저, 전저, 첨작

메 가운데에 손가락을 꽂는 것을 ‘삼시(挿匙)’라고 한다. 율곡의 『격몽요결』 「묘제의」에서는 ‘초헌할 때 손가락을 메 가운데 꽂고 젓가락을 건다’고 하였는데, 파주지역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조사되었다. 초헌 후에 삼시하는 곳은 11곳, 초헌 전은 1곳, 종헌 후에 하는 곳은 6곳이며, 메와 갯을 진설하지 않고 면(국수)을 올리기에 삼시를 하지 않는 곳은 단양우씨 정평공파와 양천허씨 교위공파이다.

시접에 놓인 수저를 가지런히 하여 시접에 걸쳐 놓는 것을 정저(正著)라고 하며 전저(奠著)는 헌작을 할 때 집사자가 젓가락을 세 번 굴리는 절차이다. 흔히 “젓가락을 공구른다”라고 한다. 김시덕에 의하면 기호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절차로서 노론의 특징이라고도 한다.¹²⁾

파주지역에서는 대부분 초헌·아헌·종헌 세 번의 헌작 때마다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진주류씨 호은공중중은 유식 때 한번, 거창신씨 참판공파, 청송심씨 공숙공파, 단양우씨 정평공파는 종헌 후 한번, 장수황씨는 초헌 후 한번, 파평윤씨 정정공파는 전저를 철찬 직전에 한번 한다.

제사절차에서 아주 중요시 되는 헌작에 있어서 초헌, 아헌, 종헌이 헌작한 후에 이어서 첨작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파주지역에서는 첨작을 하지 않는 문중도 있다. 강릉김씨 감무공파, 교하노씨 공숙공파, 밀양박씨 공여공파, 파평윤씨 정정공파, 연안이씨 삼척공파, 함안조씨 참판공파, 청주한씨 참판공파, 양천허씨 교위공파 문중은 첨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산신제

파주지역에서는 산신제를 대부분 시제를 지내기 전에 지내는데 재실이나 사당에서 지낼 때는 산신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묘제로 지낼 때는 거의 대부분 산신제를 지내는 걸로 나타났다. 파평윤씨 정정공파의 경우에는 묘제 지내기 전에 산신제를 지내는데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판도공 부인 경안택주, 양평공, 충북 음성 양평공 부인 계림김씨 묘제 때만 지낸다고 한다. 재실이나 사당에서 시제를 지내지만 산신제를 지내는 문중은 진주류씨 호은공파, 연안이씨 삼척공파, 함안조씨 참판공파, 청주한씨 참판공파이다.

산신제를 지내는 시기는 모두 시제를 지내기 전으로 조사되었는데, 율곡의 『격몽요결』 「묘제의」에서는 묘제를 지내고 난 후 “음식을 거둔 다음 토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여기에서도 진찬,

12) 김시덕, 「가가례로 보는 경기지역 제사의 특성」, 『민속문화의 지역적 특성을 묻는다』, 실천민속학회편, 집문당, 112~114쪽, 재인용.

강신, 참신, 초헌은 모두 위에 말한 절차와 같다.”¹³⁾ 고 하여 산신제를 묘제 후에 한다고 기록 하여 파주지역 묘제시 산신제 지내는 순서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표 3〉 시제 진행순서와 특징

성씨	문종	복식	축문	흘기	참신,강신	삼시	정저, 전저	첨작	산신제	묘제 전후
행주 기씨	정지공파	○	○	○ (개량흘기)	강신 후 참신	종헌 후	삼헌작 때 세번	○	○	전
강릉 김씨	감무공파	○	○	○	강신 후 참신	종헌 후	삼헌작 때 세번	×	×	
교하 노씨	공숙공파	○	○	○	북향 묵념(개성 시조)후 강신 후 참신	초헌 후	삼헌작 때 세번	×	○	전
진주 류씨	시윤공파 호은공종중	○	○	○	강신 후 참신	초헌 후	유식 때	○	○	전
밀양 박씨	공여공파	○	○	○	참신 후 강신	초헌 후	삼헌작 때 세번	×	○	전
창녕 성씨	상곡공파	○	○	○	강신 후 참신	종헌 후	삼헌작 때 세번	○	○	전
거창 신씨	참판공파	○	○	×	강신 후 참신	종헌 후	종헌 후 한번	○	×	
평산 신씨	회당공파	○	○	○	강신 후 참신	초헌 후	초헌 때 한번	○	×	
청송 심씨	공숙공파	○	○	×	강신 후 참신	종헌 후	종헌 후 한번	○	○	전
단양 우씨	정평공파	○	○	○	참신 후 강신	×	종헌 후 한번	○	○	전
파평 윤씨	정정공파	○	○	○	강신 후 참신	초헌 후	철찬 때 한번	×	○	전
경주 이씨	국당공파	○	○	○	강신 후 참신	초헌 전	삼헌작 때 세번	○	×	
연안 이씨	삼척공파	○	○	×	강신 후 참신	초헌 후	삼헌작 때 세번	×	○	전
전주 이씨	담양군파	○	○	○	강신 후 참신	종헌 후	삼헌작 때 세번	○	×	
나주 정씨	고임공파	×	○	○	강신 후 참신	초헌 후	삼헌작 때 세번	○	○	전
함안 조씨	참판공파	○	○	○	강신 후 참신	초헌 후	종헌 후 한번	×	○	전
동주 최씨	청안공파	○	○	○	강신 후 참신	초헌 후	삼헌작 때 세번	○	○	전
청주 한씨	참판공파	○	○	○	강신 후 참신	초헌 후	삼헌작 때 세번	×	○	전
양천 허씨	교위공파	○	○	○	강신 후 참신	×	삼헌작 때 세번	×	○	전
장수 황씨	장수황씨 종중	○	○	○	강신 후 참신	초헌 후	초헌 후 한번	○	○	전

13) “遂祭土神 陳饌, 降神, 參神, 初獻 如上儀 但祝詞曰 [某官姓名은 敢昭告于土地之神 某恭修歲事于某親某官府君之墓 惟時保佑 實賴神休 敢以酒饌 敬伸奠獻 尚饗] 亞獻, 終獻, 辭神 乃徹而退”

III. 맺음말

시제는 문중의 행사 중에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큰 행사이다. 가가례의 기제사와 달리 문중의 시제는 씨족의 모든 조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참사자의 범위가 매우 넓다. 종인들은 함께 모여 별초도 하고 시장도 보고 진설음식을 준비하며 시제사를 준비한다. 시제를 진행하면서 종인들은 한 뿌리에서 나온 혈연이라는 결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자신들의 문중이 대대로 오래도록 이어나가기를 기원한다. 시제를 지내면서 종인들은 회의를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위토를 마련하여 비용을 충당한다. 가세가 큰 문중은 시제 때 모이는 종인들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는데, 특히 파평윤씨 정정공파의 경우 대원수 윤관 묘의 시제 때는 전국에서 종인들이 5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대규모로 진행된다. 또한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 동안이나 사당이나 묘역에서 시제를 지내고 충북 음성까지 찾아가 친정쪽에 묻힌 양평공의 부인 계림김씨에게 까지 시제를 지내고 오는 정성을 보인다.

파주지역의 시제는 유서 깊은 가문들이 많아 높은 종족의식으로 참사자도 많고, 위토도 많아 제향에 정성을 쏟고자 함에 부족함이 없는 듯하다. 시제 비용 마련을 위한 위토와 종재는 문중별로 대체로 준비되어 있었지만 연안이씨 삼척공파의 경우엔 산 15만여 평과 종중소유의 건물에서 임대료가 월 1800만원이나 나와 시제를 비롯해 모든 종중행사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송심씨 공숙공파는 올해 협소한 별묘를 새롭게 크게 개축하면서 종인들의 회의를 거쳐 시제일자도 바꾸고 진설음식과 헌작의 방법도 약간의 변경을 하기로 했다.

문중의 시제는 오래도록 지켜나갈 조상모시기 전통민속으로 가급적 옛법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지만, 현대인의 습속에 맞게 편리하게 바뀌어나가기도 한다. 대표적으로는 시제일자를 융통성 있게 일요일로 변경하여 되도록 많은 종인들이 참석하게 한다든지, 창녕성씨 상곡공파의 경우는 진설음식을 준비하는 수고를 조금 덜기 위해 오탕을 단탕으로 바꾸고, 행주기씨 정지공파는 현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고 편리하게 홀기를 현대식으로 개량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파주지역의 시제 진설방법은 대체로 ‘조율이시’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이한 점은 나물을 삼색나물을 쓰지 않고 숙주나물만 올리는 문중이 여럿 있다는 것과 특별히 한분의 상에만 삼색나물을 쓰고 그 외엔 숙주나물만 올리는 창녕성씨 상곡공파의 사례는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묘제에서 강신 후에 참신을 하는 문중이 파주 대다수 문중으로 조사되었고, 단양우씨 정평공파와 밀양박씨 공여공파 문중만 참신 후 강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조에게 묵념으로 시작하는 교하노씨 공숙공파 문중의 사례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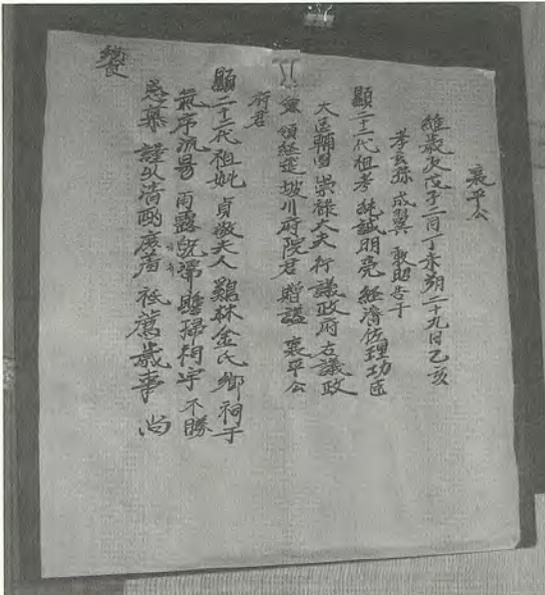
또한 삼시와 정저·전저·침작의 진행방법은 문중별로 다양한 사례가 조사되었으나 삼시는 대체로 초헌 후가 가장 많았고, 중헌 후가 다음이었다. 정저와 전저는 세 번의 헌작 때 세 번 다하는 문중이 많았고 중헌 후에 한번 하는 경우가 다음으로 많았다. 침작은 대부분 하고 있

으며 하지 않는 문중은 여덟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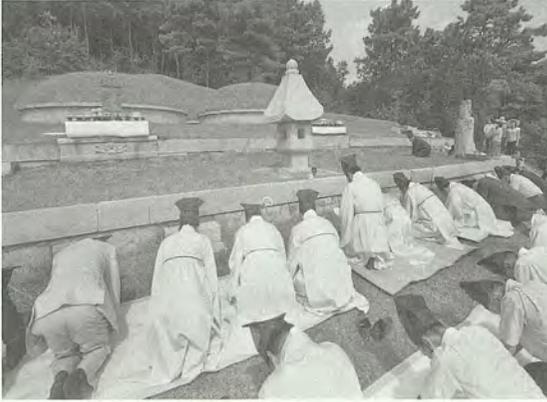
산신제의 순서는 모두 시제 전이었으며, 재실이나 사당에서 시제를 지낼 때도 산신제를 지내는 곳이 네 곳이나 되었다. 율곡의 『격몽요결』 「묘제의」에서 기록된 순서와는 반대인 것이 의외였다.

이렇게 파주지역의 문중시제를 조사하여 표로 비교해 보니 문중별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의외로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알 수 있어서 파주지역 제사민속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아무쪼록 이러한 연구가 지역의 민속을 알고 지켜나가며, 새로운 연구에 밑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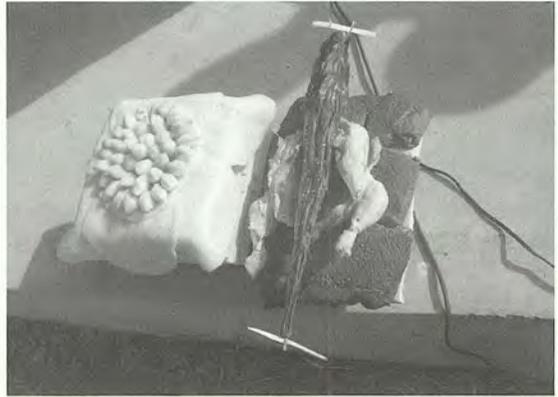
〈사진 1〉 파평 윤씨 정정공파 한식 절사 2008. 4. 5.



〈사진 2〉 청송십씨 공숙공파 추석 절사묘제(좌)와 산신제(우)



〈사진 3〉 2008년 11월 2일 함안조씨 산신제



〈사진 4〉 교하노씨 공숙공파 노사신 시제 2008년 10월 26일



◎ 참고문헌

홍순석, 「경기 용인지역의 묘제 연구」, 비교민속학회, 『비교민속학』, 2009년.

이상균, 「문중과 제사」, 『파주시지』, 파주시, 2009

이이, 이민수 역, 『격몽요결』, 을유문화사, 2003

※ 문중 시제 조사와 관련하여 착오가 있는 부분은 필자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호에 수정된 내용을 게재하겠습니다.

- 권효숙(파주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010-7134-5882

임진강에서 벌어진 국제전쟁

한 성 희*

1. 들어가면서
2. 임진강 전투는 국제전쟁
3. 세계전쟁사에 기록된 '설마리 전투'
4. 글을 맺으며

1. 들어가면서

임진강의 역사는 선사시대부터 시작한다. 보통, 사람들의 인식에는 '임진강'이라는 이름이 한국전쟁, 남과 북 분단을 상징하는 강으로 인식돼 있지만 임진강의 최근 일부 모습일 뿐이다.

임진강의 참 모습을 보려면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역사 문헌을 뒤져봐야 한다. 강을 보려면 강변보다는 배를 타고 강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경치를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누가 모르랴.

우리나라 7대 강의 하나인 임진강으로 일반인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임진강에서 허가를 받고 고기를 잡는 임진강 어부 외에 황포돛배를 타고 둘러보는 것이 현재로선 유일하다.

임진강은 한강 최대의 지류로 함경남도 두류산 마식령 계곡에서 발원하여 강원도와 경기도

* 파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를 거친다. 연천군 전곡의 한탄강과 합류하여 파주시 탄현까지 흘러 한강과 합류되는 임진강은 총 길이 약 250km의 긴 강이다.

임진강은 삼국시대부터 군사요충지로 교통로로 이용돼 왔으며 지금도 파주시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다. 인간은 강을 끼고 문명을 이룩했고 지금도 강의 생명에 의지하고 살고 있다.

2. 임진강 전투는 국제전쟁

임진강이라는 이름은 고구려의 영토였던 이곳을 신라가 차지하면서 경덕왕 때 진임성현(津臨城縣)이라는 고구려의 명칭을 임진현(臨津顯)으로 바뀌면서 생겼다.

임진강 주변의 호로그루성은 고구려 시대의 군사요충지였으며 현재도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임진강과 파주시의 그 옛날 유적지를 다니다 보면 이처럼 고대부터 현재까지 군사 요지로 쓰이고 있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적성면의 칠중성은 임진강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삼국시대의 군사요충지였지만 지금도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전략지이다. 월릉산성 역시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군사요지이고, 파주읍의 봉서산은 그 옛날 조선시대 봉수대(위급한 일이 있을 때 봉화를 피우던 곳)가 있던 곳인데 지금은 레이더 부대가 자리잡고 있다.

임진강은 푸르고 아름답지만 인간은 강을 끼고 강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이른바 수백 년을 두고 벌어졌던 똑같은 이름의 ‘임진강 전투’다. 이 두 ‘임진강 전투’의 특징은 국제전쟁이었다는 사실이다.

1592년 5월 17일,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장수 김명원은 왜군을 맞아 이곳에서 전투를 벌인다. 조선군사 1만 5천명이 왜군 1만 2천명을 맞아 싸웠지만 지리적 군사적 우세였음에도 변변히 대항도 하지 못하고 대패했던 임진강 전투는 임진왜란의 한심한 조선군대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로부터 350년이 지난 1951년 4월 22일, 이곳에서는 역사상 두 번째 ‘임진강 전투’로 기록되는 치열한 전투가 사흘 동안 벌어진다. 남하하는 중공군을 맞아 서울 방어선을 구축하려는 연합군과 중공군의 전투였다.

임진강 전투 당시 영국군 29여단 글로스터 부대는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에서 10배나 많은 중공군을 맞아 피로 물든 방어를 했다. 영국군은 전설적인 이 전투로 거의 몰살할 지경에 이르렀고 고귀한 그들의 목숨을 바쳐 지킨 사흘이라는 시간 덕분에 서울은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3. 세계전쟁사에 기록된 '설마리 전투'

역사 이래 이곳 적성 일대 임진강변은 치열한 전투현장으로 기록됐다. 삼국시대, 적성면 구읍리 중성산 칠중성은 삼국 국경의 주요 전략 요충지로 삼국사기에 가장 많은 기록이 나오는 산성 중 하나이다.

고려시대에 이 전선을 따라 몽고군이 쳐들어왔고, 조선시대는 후금이, 16세기 임진왜란 때는 왜군을 맞아 '임진강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그리고 20세기 한국 전쟁에서 또다시 치열한 '임진강 전투'가 전개된 현장이기도 하다.

'설마리 전투'는 1951년 4월 22일부터 중공군이 대대적으로 서울을 함락하기 위해 펼쳤던 1차 춘계 공세를 맞아 연합군이 임진강 전선(캔사스 전선)을 방어하려고 치렀던 '임진강 전투' 중 하나이지만, 설마리 전투=임진강 전투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 역사에 기록된 치열한 전투였다.

설마리 전투에 투입된 영국군 29보병여단 1대대(글로스타서 대대)는 당시 임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중성산(캐슬 고지)부터 봉암리까지 약 11km 걸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임진강 전투가 일어난 작전지역은 문산-적성-도감포이며 옛부터 서울을 들어오는 관문으로 역사 이래 전쟁터가 되기 일쑤였던 곳이다.

임진강은 유속이 빨라 도강하기가 쉽지 않다. 얇은 여울목이나 나루터를 제외하고는 건너오기 쉽지 않아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임진강 주변 파평산, 감악산, 중성산에 진지를 설치하면 임진강 전선을 쉽게 관측하고 방어할 수 있는 주요 전략지일 수밖에 없다.

1951년 1.4후퇴를 맞아 서울을 빼앗겼던 연합군은 3월 15일 서울을 재탈환한다. 미1군단은 김포반도에 해병 제5독립대대, 임진강 남쪽에 한국군 1사단, 마지리와 도감포에 영국군 제29여단을 배치해 임진강 하구부터 문산-전곡-화천저수지에 이르는 서부전선 방어망을 구축했다.

영 제29여단은 A, B, C, D 4개 중대로 나뉘어 중성산, 감악산 등 4개 고지에 배치하고 있었으나 방어 면적이 넓어 적의 공격이나 전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위장하고 잠복 중인 중공군을 보았다는 마을 사람의 제보가 있던 운명의 4월 22일 밤, 보름달이 임진강변을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당시 영국군은 다음날 '성 조오지의 날' 전야제라 칠면조 만찬과 모자에 달 장미꽃 등 축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 10시,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됐다.

중공군이 임진강 전투에 투입한 군대는 중국군 제19병단 8만7천명과 북한군 제1군단 1만 7천명이었다. 중국군 64군사단 제19병단 첫 공격은 중성산 고지였고 첫 교전은 중공군 60여 명을 사살하고 별 피해 없이 끝났다. 그러나 뒤이어 허리까지 차오르는 임진강을 건너온 중공군의 공세에 밤새 치열한 교전이 시작됐다. 6시간의 혈투 끝에 영국군 장교와 장병이 죽고 글로스타서 대대는 감악산 북서쪽 설마치로 철수했으며 중성산(캐슬 고지)을 빼앗겼다.

이로부터 25일까지 글로스타서 대대는 설마리 계곡에 고립되어 설마리 253고지를 사수하며

끝없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완강히 대항하여 지켰다.

글로스타서 부대원이었던 한 장병의 회고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맞선 설마리 전투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 전투는 병기도 기술도 전략도 아무 소용없는 소모전이었다. 끝없이 격퇴했지만 적의 병력은 계속 늘었고 오히려 더 많이 보충되어 공격해왔다.”

고립된 글로스타서 대대를 구출하려는 작전도 실패로 끝나자 여단장은 대대장에게 철수를 하던지 투항을 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격에도 글로스타서 대대가 있는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자 적성-설마리-동두천으로 공격하려는 그들의 작전은 수포로 돌아갔다.

25일 새벽 총공격에 나선 중공군의 공세가 지나간 후, 글로스타서 대대는 철수준비를 한다. 오전 10경이었다. 군목, 군의, 부상자 50여 명은 고지에 남았고 A중대를 비롯한 주력부대는 남쪽으로, D중대는 북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이때 주력부대와 잔류했던 부대원은 포로로 잡혔고 D중대만 탈출에 성공했다.

글로스타서 대대 652명 중 겨우 67명만이 설마리 253고지에서 탈출에 성공한 것이다. 사흘간의 이 전투에서 59명이 전사하고 526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3년 동안 포로수용소에서 31명이 사망했다.

이 날 여단의 주력부대도 철수과정에서 전차에 200여 명의 부상자를 탑승해 포탑을 회전시키지 못할 정도로 신고 후퇴하면서 부상자들이 희생당하는 아비규환을 이뤘다. 영 제29여단은 설마리 전투로 말미암아 전 병력의 1/3을 잃는 손실을 입었으며 한국전쟁에서 영국군이 겪었던 가장 치열한 전투이기도 했다.

글로스타서 대대의 설마리 전투는 한국전쟁 역사상 고립방어의 대표적인 전투로 기록됐다.

이 설마리 전투로 중공군은 1차 춘계 공세에 실패했고, 서울을 다시 점령해서 모택동에게 노동절 선물로 서울을 바치겠다는 중공군 사령관 팡덕회의 호언장담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팡덕회는 모택동에게 '사흘을 불철주야 공격을 퍼부었으나 완강한 방어로 의정부를 우회해 유엔군 퇴로를 끊는데 실패했다' 보고하고 작전중지 승낙을 받았다.

또 설마리 전투에 투입됐던 중국군 제19병단장 양득지는 계획된 시간 안에 공격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엄중한 비판을 받았고 64군 사단장과 정치의원들이 강등 당하는 문책을 받았다.

설마리 전적비는 영국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세계적 디자이너 거장으로 알려진 아놀드 슈워츠먼(71)이 영국군으로 한국에 파병됐던 1957년에 디자인한 작품이며 그의 첫 작품이기도 하다.

푸른 눈의 젊은이들이 피로 방어했던 설마리는 그래서 영국인들에게 잊지 못할 지역이기에 해마다 이곳을 찾아 기념식을 갖는다.

당시 중공군과 영국군 모두 고국을 떠나 이국에서 싸웠던 젊은이들이다. 이데올로기 전쟁에 머나먼 타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파주시 감악산 설마리 계곡에서 피를 흘렸다.

4. 글을 맺으며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전쟁을 피해갈 수 없었던 이 지역에 다시는 전투가 벌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전쟁의 기억은 되새기기 괴로운 비극이지만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잊어서는 안될 각인이기도 하다.

분단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임진강의 이면에는 한국전쟁과 ‘임진강전투’가 있으며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이후의 임진강 미래의 모습은 불투명하다.

고대부터 전략요충지로서 임진강의 역할은 향후에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임진강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켜내는 일이 남아있다.

◎ 참고문헌

『한국전쟁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부 한국전쟁사』, 유엔군 참전편

『한국전쟁 시 영국군의 임진강 전투와 그 의의 : 설마리 전투를 중심으로』, 강덕규 저

『5~6世紀 高句麗의 南下와 漢江 流域의 領域向方』, 張彰恩

임진강 철교

오 순 희*

서문

파주에는 임진강이 흐르고 있다. 임진강은 한반도 중부에서 서쪽으로 흘러서 황해로 들어가는 강이다.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예전에는 나루터에서 나룻배를 이용했고, 현대는 다리를 놓아 사람과 차가 건너고 있다. 임진강에는 현재 도로교(道路橋) 역할을 하는 다리로 통일대교가 있으며, 진동면으로 연결하는 전진교와 파평면에서 진동면으로 들어가는 리비교, 적성면에서 연천의 장남면을 연결하는 장남교, 연천군 백학면으로 가는 비룡대교가 있다. 그리고 경의선 철도가 연결되어 개성까지 기차가 갈 수 있는 임진강 철교가 있다. 임진강 철교를 장단면에 속해 있던 자연부락 ‘독개마을’에서 이름을 따 ‘독개다리’로 부르기도 했다.

임진강 철교는 상 하행선이 같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형태로, 1905년 2월 15일 준공하여 2월 25일 개통하였다. 위치는 문산에서 북서쪽으로 약 2km 거리에 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왼쪽에 있는 철교가 상행선이고 오른쪽이 하행선이다. 6·25전쟁 중 상행선은 일부만 파괴되고 하행선은 완전히 파괴되어, 하행선 교각 아래에 나무로 임시다리를 가설하여 군사용으로 사용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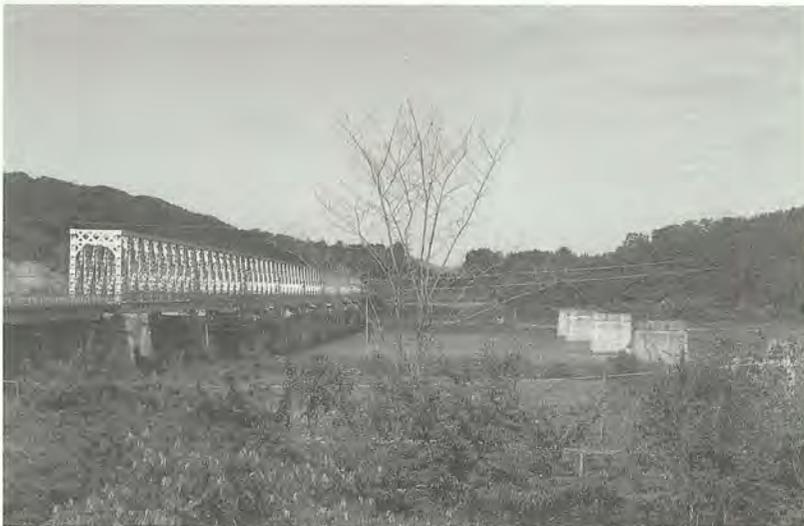
본래 국도 1호 도로는 임진강을 가로 질러 임진나루를 건너 남과 북을 잇는다. 현재는 임진나루를 사용하지 않으니 통일대교를 국도 1호로 본다. 경의선 철로도 그 맥은 같이 한다. 국도 1호로는 선사시대에는 우리 민족 3대 이동경로 중 하나였고,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백제 연

* 파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합세력을 연결하는 군사적 간선도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고려시대에는 한수이남 지방의 통치로로, 조선시대에는 통치로 및 명나라와의 무역로로 쓰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63년에 국도 1급 노선으로 지정되었고, 오늘날에는 경부축과 더불어 국토의 대동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경의선

경의선 철로 개설을 위해 1896년 프랑스 휘브릴사(Fives Lile)가 처음으로 부설권을 얻었으나 자금 조달이 어려워 부설권을 상실했다. 1899년 대한철도회사가 다시 특허를 얻었다가 또 실패하자 대한제국은 1900년(광무 4) 9월 정부기관인 내장원(內藏院)에 서부철도국을 설치하고 서울-개성간 선로 측량을 시작했다. 1902년 3월 경의선 기공식을 가졌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서울-신의주 간 군용철도를 부설하기 위해 임시군용철도감부를 설치했다. 일본은 이를 대륙침략노선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사를 서둘렀다. 1904년 3월 용산-개성 구간의 노반공사에 착수, 1905년 평양-신의주 구간의 대동강 철교가 완공되어 용산-신의주 구간에 직통 운전이 시작되었으며, 1906년 청천강·대령강 철교가 준공되면서 전구간이 개통되어 1906년 4월 3일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개통되어 열차가 운행되었다.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철도는 총연장 499km로 서울에서 개성, 사리원, 평양을 지나 신의주까지로 이어졌다. 1911년에는 압록강철교의 개통으로 서울에서 만주까지 연결되어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철도의 일부가 되었다. 1943년에는 평양-신의주 구간이 복선화되었고, 경의선 철도는 경부선과 함께 일본, 한국, 만주, 중국 대륙을 이어주는 교통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으로 한국은 해방을 맞았으나 곧바로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남 북한에서는 각각 미국과 소련에 의한 군정이 실시되었다. 당시 남한에서는 미육군 ‘워드멜 해밀턴’ 중령이 교통국장으로 취임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 시까지 철도를 관장하였다. 1945년 9월 11일부터 남북간 운행이 중지되었으나 서울-개성간 운행을 계속하였으며, 이후 1950년 6.25로 임진강 철교 폭파 등 철로에 많은 피해를 입고 완전 중단 되어 한반도의 철도는 남북 종단 철도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였다. 분단 이후 경의선 구간 중 남한은 서울-문산 간 46km를, 북한은 개성-신의주 간 411.3km(평양-개성 간 평부선 186.5km, 평양-신의주 간 평의선 224.8km)를 운행해왔다.

문산에서 개성까지 복원된 경의선

남북한은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끊어진 경의선을 잇기로 합의하고, 그 해 9월 문산-개성 구간 연결 공사를 시작했다. 문산-개성 구간은 남쪽 2.7km, 비무장지대 1.8km, 북쪽 7.5km로 남북이 해당지역 철로를 먼저 복원한 후 비무장지대 철로 공사를 하는 순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남북한은 2000년 9월 18일부터 복원 공사를 시작 하여, 2002년 4월 11일 남북 철도 연결 공사구간 중 민통선지역 내 최북단에 위치한 도라산역 개통식을 하였다. 경의선 철도 연결은 분단 55년의 아픔을 씻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 사업으로서 유럽-아시아-태평양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가 열려 한반도가 명실상부한 세계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한편, 실질적인 통일을 앞당기는 기초 작업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민족공동체를 조기에 형성하기 위하여 남북경협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접근통로 물류운반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형성은 남북간의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대륙 간 연결과 세계 물류의 혁명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륙철도망인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는 TKR과 연결되어 유럽 및 동북아시아 시장을 육상으로 연결하는 세계 최대의 운송로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산~서울~평양~신의주~중국 단둥 丹東(TCR)으로 연결되는 노선과 목포~서울~원산~청진~나진~러시아 하산(TSR)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한반도를 X자로 가로지르며 가장 빠르고 탄탄한 운송로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만포~중국 집안(集安)에서 연결되는 몽골횡단철도(TMGR)와 온성~중국 도문(圖們)으로 연결되는 만주 횡단철도(TMR)도 대륙진출의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아시아의 자본과 자원을 유럽시장과 연결해 주는 매개 지역으로서 교역물자에 대한 통과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 중국대륙,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로 가는 일본의 물동량, 그리고 한국, 일본으로 수입되는 대륙의 원자재와 반제품 물동량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반인에 개방된 도라산 역사는 남북 화합을 상징하도록 손을 맞잡은 모습과 태극무늬를 형상화해 건설됐으며, 일반역과 달리 중국·러시아·유럽에서 오갈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시설이 들어서있는 국제역이다. 도라산 역사는 장차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역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6.25와 임진강철교 폭파

1950년 한반도 허리를 가로 지르는 3.8선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해 남과 북을 잇는 유일한 통로는 임진강철교였다. 6.25가 발발하고 중공군이 개입하여 밀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철교를 그냥 놔두면 적의 길을 터주는 결과가 된다. 전쟁 때 폭파되었던 임진강 철교의 그 때 상황이 궁금하여 여기저기 찾아보던 중 인터넷 상에서 몇 개의 정보를 발견 하였다.

[1950년 6월 27일, 임진강 철교를 폭파 하려고 공군의 김두만 중위가 T-6 연습기로 출격하여 폭탄을 투하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개성은 이미 적에게 밀려 연대 병력이 후퇴하기 시작했다. 남은 것은 주저항선(主抵抗線)에서 최대한 적의 남침을 저지하는 일밖에 없었다.

북괴군은 임진강을 도하하기 위하여 임진강상의 경의선 철교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히 남쪽으로 진출하였다. 국군 제1사단 11연대는 임진강변에 배치되어 적의 동태를 간파하고 사단장 백선엽 대령에게 임진강 철교 폭파를 건의하였다. 임진강 철교 폭파를 책임진 사단 공병대대장은 임무를 공병 제3중대장에게 부여하였다.

임진강철교 남안인 마정리 일대에 대전차포 중대등 전투력을 집중 시키고 임진강 철교를 폭파하여 북괴군 전차를 저지하려고 준비 하면서, 개성에서 철수중인 12연대의 철수를 엄호하기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12연대가 임진강 철교를 건너 철수하고 있을 때, 철교 북쪽 입구에

서 다리를 경비하던 수용(收容)부대가 ‘적이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괴군의 전차가 바짝 추격해 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다리를 폭파하라는 지시가 내렸으나 철교를 폭파해야할 시간에 제 3중대장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대대장은 할 수 없이 공병대대 작전장교에게 철교폭파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11연대장과 철교폭파에 대하여 협조한 다음 철교에 폭약을 장전하고 12연대가 개성에서 철수 시 적이 바짝 후속하여 추격하는 상황에서 급히 폭파 하였으나 불발이었다. 누군가 ‘선 코드가 끊어진 것 같다’고 외쳤고, 다리를 폭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적이 다리 건너편에 나타나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다행히 가장 두려워했던 적의 탱크가 보이지 않았다. 다리가 당연히 끊어졌을 것이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날 오후 적 탱크는 우측 13연대 고랑포 방향으로 공격해 왔다. 불행 중 다행이었다.]

그렇게 초기 임진강 철교 폭파는 실패 하였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폭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한 기록을 찾지 못했다. 다만 늘 들어왔던 바로는, 미군 B29 3대가 폭탄을 떨어뜨려 철교를 끊었다고 한다. 마지막 기차가 1950년 12월 31일 장단역에서 1020여발의 총탄을 맞고 운행이 중지 된 역사적 사실이 있으니 철교폭파는 그 이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전후의 임진강철교

1950년 휴전협정이 조인된 후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오는 국군과 국제연합군 포로 12,773명의 장병을 이송하기 위해 하행선 철교 위에 상판을 깔고 도로교(道路橋)로 급히 개조 하였다. 그로부터 국도 제1호선인 통일대교가 가설되는 1998년 6월15일까지 파주에서 민통선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역할을 하였다. 통일대교는 개통된 다음날인 6월16일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 500마리와 함께 방북할 때 처음 사용돼 전 국민의 이목을 끌었다

임진각이 있기 전 그 일대는 갯벌이었는데, 임진각을 지으면서 현재의 높이로 돋운 것이다. 그때 그 광경을 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수많은 트럭이 어디선가 흙을 무한정 실어다 부었다고 한다. 땅을 돋우고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철교 위 도로교를 건너 온 버스는 지금의 ‘밀레니엄’ 식당 앞을 지나고 뚝 아래 길을 따라 마정에서 문산으로 다녔다 .

1971년 12월 서울 구파발~파주 임진각을 잇는 통일로가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만들어 졌고, 남북회담이 시작 되면서 1972년 12월 24일 임진각이 준공 되었다. 임진강 철교는 남과 북이 1972년 체결한 7·4공동성명 이후 남북회담의 대표들이 오가는 길목이 되었다.

폭파된 임진강철교와 완도 대교

2010년 9월 13일자 인터넷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

완도와 육지를 이어준 첫 다리인 완도대교(철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처지에 놓임에 따라 지역에서는 대교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와 달도를 잇는 이 철교는 지난 1963년 4월 착공해 5년 만에 완공됐다. 차도 4.7m, 보도 2.9m, 총 길이 189m로 한강철교와 같은 구조로 건설됐다. 완도대교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려고 폭격했던 임진강철교 철골 구조물로 전쟁이 끝난 지난 1963년 분해해 육로로 이송한 뒤 재조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문화원장은 ‘완도를 물으로 연결하는 첫 다리이자 한국전쟁의 상흔을 간직하는 등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 다리를 완전철거 대신 한 부분이라도 남겨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도 이 다리 개통으로 완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고 수많은 섬사람과 동고동락해 왔는데 철거해 고철로 처리해 버리는 것은 너무나 것이 아니냐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완도군과 관련기관은 철교가 낮아 선박통행에 지장이 많아 철거한다는 입장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선박통행에 지장은 물론 역사성을 입증할 자료가 빈약하고 관련 예산이 없어 예정대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후 된 완도대교를 새로 놓게 되자 지역에서는 한국전쟁의 상흔과 연륙의 기쁨을 안겨준 대교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는 것이다. 낡은 옛 완도대교를 철거하고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며 제기된 문제 이다.

그러나 2010년 9월 27일 내용은 달랐다.

최근 완도문화원이 방송을 통해 완도대교가 한국전쟁 당시 폭격을 맞은 임진강 철교를 옮겨 세웠다는 주장에 대해 입증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라고 하며 완도군은 완도대교가 임진강 철교 잔해라는 문화원 측의 주장은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없다며 완도대교 철거를 계획대로 진행할 뜻을 시사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완도대교의 착공이 완도군은 1963년 4월 22일, 준공은 1968년 12월 31일로 기록된 반면, 완도문화원은 착공이 하루 늦은 1963년 4월 23일, 준공은 한 달 뒤인 1969년 1월 31일로 하루 차이로 개통한 기록이 다르며 완도대교가 임진강 철교잔해라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었다. ‘완도대교를 철거하여 원동 IC에 보존하려고 국비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영상으로 제작하여 보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완도대교가 폭파 된 임진강철교 잔해로 만들었는지 아닌 지는 그 당시 완도대교 건설에 참여했던 담당자들만은 알고 있을 것이다. 아무튼 임진강과 임진강 철교를 자주 바라보며 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임진강에서 멀리 떨어진 완도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현재의 경의선

2008년 7월 11일 관광객이 북한군 초병에게 피살되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데 이어 개성관광마저 중단 되었다. 더불어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이상 운행이 중단됐다가, 남북 철도시대를 다시 열었던 경의선 철도는 1년 만에 또다시 멈춰 선 것이다. 경의선 철도는 남한의 문산역과 북한의 봉동역 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 차례 왕복 운행하면서 초기에는 개성공단의 생산물자와 원자재를 실어 날랐었다. 그러나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되지 못하고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물자수송을 철도보다는 트럭을 선호하면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대부분 빈 차로 운행해 왔다. 남북 철도의 연결이라는 상징성만 있었던 셈이다. 현재는 문산에서 도라산 역까지만 하루 몇 차례 운행하고 있다.



경의선 장단역증기기관차(京義線 長湍驛 蒸氣機關車)

임진각 자유의 다리 옆에는 2004년 등록문화재 제78호로 지정된 장단역 증기기관차가 놓여 있다. 장단역 부근에 50년이 넘게 방치돼 있던 것을 남북분단의 뼈아픈 역사적 상징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였다. 증기기관차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가와사키사가 제작 한 것으로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개성역에서 황해도 한포역까지 올라갔다 전세가 악화되어 남쪽으로 내려오던 중 1950년 12월 31일 밤 10시 쯤, 경의선 장단역에서 피폭되어 탈선하여 그 자리에 멈춰 섰다고 증기기관차를 마지막으로 운전하였던 한준기 기관사가 증언하였다. 한준기 기관사는 2007년 5월 17일 경의선 철로를 복원 하던 날, 행사용 증기기관차 끌고 개성까지 시운전 했었다. 증기기관차는 검붉게 녹슬고 부식된 채로 반세기 넘게 비무장지대 안에 방치되어 있었다. 2005년 9월 14일 문화재청과 철강기업 포스코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DMZ내 증기기관차 앞에서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식을 갖고, 증기기관차의 과학적 보존처리와 철재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2006년부터 포스코는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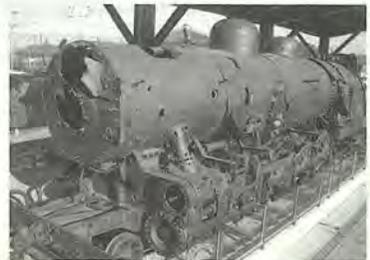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기술부문을 맡아서 증기기관차의 보존처리 사업을 시작했으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임진각관광지내에 보존처리센터를 마련하고 2006년 11월 20일 옮겨왔다. 이후 2007년 12월~2009년 1월까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경주대학교 부설 문화재연구소와 함께 본격적인 증기기관차 보존처리 작업을 시행하여 수차례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기록화 조사, 표면부식 제거 및 보호코팅제 도포 등 야외 보존환경에 맞는 과학적 보존처리를 완료했다. 당초 보존처리 완료이후 비무장지대 안으로 복귀시킬 계획이었으나 국민들에게 관람하게 하려고 임진각에 공개 전시하기로 하였다.



임진각 자유의 다리



자유의 다리 끝 철조망에 걸린 통일염원 메세지



장단역 주변에서 임진각으로 옮겨온 증기기관차 화통

끝맺음

올해로 임진강철교 건설 108년이다. 30여 년 전에는 18세 때 철교건설에 참여했다던 마정사는 노인이 가끔씩 임진각에 나와 옛일을 회상하며 자랑스럽게 그 일을 말하곤 했었다고 한다. 그 노인이 살아 있다면 100세가 한참 넘었을 터이니 옛일을 증언해 줄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다 떠나고 없다.

분단 이후 남측은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로, 북측은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가 형성되었다. 대륙으로 뻗어 나갈 수 없는 남측의 도로와, 자원을 자본으로 연결할 수 없는 북측의 철도에는 한계가 있다. 남북 간 교통망의 연결은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동맥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 참고문헌

- 평화통일 연구소
- 철도 전자도서관
- 대한민국 육군, 해군 사이트
- 인터넷 신문

파주 고분벽화와 단청에 관한 연구

이진숙*

1. 서 언
2. 서곡리 고려벽화의 특징
3. 영장리 보광사 단청의 특징
4. 결 언

1. 서 언

파주는 그리 넓지 않은 면적이지만 문화 유적이 곳곳에 널려있는 역사가 살아 있는 공간이다.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섭취하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해 나가는 곳이기도 하다.

파주에서 발견된 벽화묘는 흔치 않은 발굴로 벽화는 물론 청자, 상감 대접편, 토기편, 동전, 문비석등 벽화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고려말인 14세기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와 접하면서 시대적 배경과 변화들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의 우수성과 시대적 사상을 밝히므로써 미래지향적인 회화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문화는 불교와 유교, 무교의 무리 없는 조화들로 발전해 왔으며 오랫동안 유(儒), 불(佛), 도(道)를 仁 義 禮 智 信의 윤리의식에 젖어 있었다. 장구한 세월 속에서 절대적인 종교가 정치, 경제, 문화를 고유의 생활로 잠재의식에 까지 이어져 복합적인 구도로 표현되고 있다.

* 파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시대적 배경으로 이어진 회화의 아름다움은 그 시대의 환경 속에서 독특한 민족성을 찾아가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다. 그 맥은 세계문화의 역사 속에 연구 대상임이 틀림없다.

우리인간의 삶 속에서는 서로를 원하지만 인연이 닿지 않아서 만날 수 없거나 그저 그리워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뜻하지 않았던 인연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삶의 깊숙한 곳에서 역사가 배어나오며 그 끈이 이어져 가는가 보다. 그것은 본래의 의도와 상관 없다 하더라도 후대에 누군가에 의해 연구되고 해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긴 시간동안 밖을 내다보지 못하였던 천년의 흐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본고에서는 진동면 서곡리에서 발굴된 무덤벽화와 광탄면 보광사의 사찰 단청을 토대로 벽화가 어떠한 암시적 표현으로 하였는지 살펴보고 사찰의 단청은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표현 하고자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서곡리 고려벽화의 특징

1) 고분벽화시대

우리나라의 무덤벽화는 4세기~5세기부터 나타나지만 벽화가 주제가 되는 시기는 6세기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형은 북으로 압록강 두만강을 국경으로 만주와 연해주 일대가 우리국토로서 주위의 어느나라 보다도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나 “고구려는 그 힘이 강대하여 압록강을 가운데 두고 광대한 강역(疆域)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한족(漢族)에게 늘 공세를 취하여 왔으며, 제19대 왕 광개토왕(廣開土王)때는 북으로 군소 국가를 모조리 병합하고 남으로도 신라와 백제를 항상 견제하여 대왕의 이름 그대로 널리 국토를 확장한 웅대한 나라였다.”¹⁾

따라서 고구려는 힘차고 올동적이면서도 形象(형상), 線條(선조), 色彩(색채) 등이 박력있고 강함이 드러났으며, 백제는 유연하고 부드러우며 차분한 회화로 발전하였고 신라는 무덤에서 출도된 공예품들이 정밀하고 추상적이며 엄격한 분위기로 지역에 따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덤 벽화는 실존하는 생활들을 그대로인 생활모습을 재현하여 묘주인의 초상과 그들이 생전에 누렸던 복락이 내세에서도 영원한 삶을 이어갈 것이라는 극락영생 기원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 우리문화예술로의 선구자들, 열화당, 2001, p35

2) 고구려의 벽화

“벽화가 그려진 고구려의 고분은 만주의 통구(通衢)와 평양 부근의 용강군(勇剛郡), 대동군(大同郡), 강서군(江西郡) 등지에 걸쳐 50여기가 발견 되었다. 낙랑(樂浪)을 매체로 하여 중국한대묘(漢代墓)의 영향을 받아 추조되기 시작 했다고 믿어지는 이 고분들은 묘실(墓室)의 구조나 벽화의 내용 및 양식에 따라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왕이나 귀족 사대부들의 생활 상태이고 둘째는 종교나 철학적인 내용이고 셋째는 영혼불멸의 내세관적인 내용이라 할 볼 수 있겠다.²⁾

고분벽화에서 살펴보면 돌무덤이며 계단식으로 쌓았고 방대한 무덤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고 현세의 생활에서 더욱 강조되어 묘주인의 인물크기로 짙은 눈썹과 긴코 턱수염 등이 위엄 있는 인물은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인물크기를 정하여 묘주인은 크게 시종은 작게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무덤벽화는 풍속도, 장식무늬도, 사신도의 세 주제가 유행하였다. 초기에는 신선사상이 팽배하여서 죽어서 서왕모(西王母)가 사는 선계로 승천하여 영생불사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죽음으로 믿었다. 이러한 내세관 속에서는 묘주인의 초상과 생활 모습을 그가 사후세계에서도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다.

“372년(소수림왕2)때 고구려는 불교가 유입됨으로써 불교의 전래는 고구려인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은 중요한 사건이다. 불교를 신봉한 고구려인들은 이제 더 이상 죽어서 선계로 올라가기를 염원하지 않았다. 연꽃을 통해 불교의 새로운 존재인 보살이나 천인(天人)으로 태어나는 연화화생(蓮花化生)을 바랐던 것이다. 장식무늬로 연꽃이 가장 많고 거북이 등무늬, 왕자무늬, 동심원무늬등이 불교와 관련이 있다.”³⁾

또한 “무지개처럼 표현된 사신은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가리킨다. 이들은 각기 동, 서, 남, 북의 네 방위를 지키는 바람신이다. 고대에 풍의 개념은 바람이라는 자연현상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의미했다. 사망의 바람신은 중국에서 은 시대부터 등장하였다 이들은 우주를 상징하며 오행사상에서 연유 되었다. 사신이 호위한다는 것은 그 무덤의 주인공이 자연질서에 상응하는 권위(중국에서는 황제권)를 무여 받았음을 의미한다. 죽은이가 신화속에 나오는 영물을 수호 받으니 황제와 같은 위세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상이 전파되어 무덤의 주제 변화를 가져왔다.”⁴⁾

따라서 사신도가 주검을 지키게 된 것이며 5세기에는 사신도가 들보나 천장에 조그맣게 나타나다가 6세기에 와서는 벽면에 당당하게 차지 할 만큼 핵심 주제가 되었고, 동물, 또는 장식 문양에 이르기 까지 진취적이며 패기가 넘치는 고려인의 정신이 나타난 동서최대의 넓은 세력과 한족과 항쟁하여온 강대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2) 『한국회화론』, 일지사, 김종태, p.58

3) 『미술은 아름다운 생명체다』, 다할미디어, 1999, p.55 p.59

4) 국립문화재 연구소 자료

3) 서곡리 고려벽화묘 발굴과 특징

(1) 서곡리 벽화묘 발굴

파주 진동면 서곡리 벽화묘는 동굴당한 후 신고 되어 1991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 조사하게 되었다. 오랜기간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파괴 행위가 자행되어 석실내의 유물 노출 상태와 묘실내부가 어지러운 상태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1991년 발굴되었으며 봉분높이 150cm, 지름은420cm, 내부석곽은 장방향으로 동,서,북 삼면과 길이 285cm, 너비128cm이다.

석곽의 동, 서, 북 삼면의 안쪽면과 문비석 안쪽면에 각각 인물상이 그려져 있으며 천장석 중앙에는 성진도(星辰圖)가 그려져 있다.”⁵⁾

이 묘는 그동안 고려말 조선초 문신인 청주한씨 한상질(韓商質:~1400)의 묘로 알려져 왔으나 1991년 국립문화재 연구소의 조사 과정에서 고려말 권준(權準:1230~1352)의 묘지석이 출토 되어 법정 소송을 거쳐 결국 안동 권씨, 권준의 묘로 바뀌게 되었다.

“묘지명의 주인공은 고려시대말 경에 생존한 인물인 권준으로 그의 字는 平仲, 諱(論)는 昌和(昌和)이다. 그는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 삼중대광(三重大匡) 길창대원군(吉昌府院君)에 이르렀다. 묘지명을 지은 이는 주인공의 문인(門人)인 이인복(李仁復)이고 글을쓴이는 손자인 용(鏞, 지석(誌石)을 새긴이는 의견(義堅)이다. 권준이 죽은 해는 지정임진년(1352년)으로 그의 나이 72세였다.

묘지명 내용에는 권준(權準)의 증조(曾祖), 조(祖), 부(父), 및 子女, 孫에 이르기까지 가보가 실려 있고 장지를 생전에 선정하여 처음부터 묘지를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⁶⁾

“묘지는 자효사의 서편 언덕으로써 주인공이 생전에 이미 폐사된지 오래된 자효사를 중수하여 적덕을 쌓았다. 또 30년동안 10명의 스님에게 아침식사를 공양함으로써 적덕을 더하고 인연을 맺음으로써 장차 절 서편에 그의 갈 자리를 미리 마련하였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권준의 장사일은 사망후 7월 을유일(乙酉日)부터 8월 병진일(丙辰日)까지 32일째 만에 치루어짐을 보면, 고려시대의 왕이 죽은후 26일만에 장사를 치루어진 것으로보아 이러한 예는 장사기간이 왕보다 길거나 거의 비슷하여 일정한 격식에서 벗어났음을 알 수 있다.”⁷⁾

이러한 고구려의 무덤형성을 살펴보면서 무덤 조성의 연관성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돌무지무덤(積石塚)

“고구려 건국 초부터 조성되어온 무덤으로 압록강 지류인 혼강(渾江)유역의 환인지방과 압록강 통구지방, 그리고 독로강유역의 자강도시중군, 지성군, 위원군 등지에 집중되어 있다.

초기에는 냇돌을 네모지게 깔고, 널(棺)을 놓은 후 다시 돌로 덮는 간단한 형태였으나 점차 냇돌대신 깎돌을 써서 무너지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쌓은 후 그 위에 널을 놓고 다시 돌 쌓아

5) 국립문화재 연구소 자료
6) 국립문화재 연구소 자료
7) 국립문화재 연구소 자료

올려 외형은 계단상의 방대형(方臺形)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장군총(將軍塚), 태왕릉(太王陵), 천추총(千秋塚) 등이 있다.

봉토무덤(封土墳)

널 길을 갖춘 돌방을 반지하 또는 지면 가까이 축조하여 흙으로 쌓은 것을 말하는데 봉토는 돌무덤처럼 방대형 또는 원형으로 있으나 간혹 바닥에 돌계단을 쌓은 것도 있어 돌무지 무덤과의 과도기적 양상을 보인다.⁸⁾

이러한 양상이 부합된 권준의 묘는 돌에다 그림을 그려 덮어 쌓은 것이 방대형을 갖춘 것으로 돌무지 무덤과 봉토 무덤 방식도 겸하여 축조하였음을 볼 수 있다.

(2) 서곡리 무덤벽화의 내용

고구려 벽화는 당시의 많은 생활 자료가 등장하고 생활문화가 형성하는데는 그만한 원인과 정신이 정치적 경제적인 문화형태를 토대로 이어져 나타나는 창의적인 회화인 것이다.

그러므로 특징과 내용이 회화에 어떤 의미와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서곡리 고려벽화는 인물상 12개가 나타나 있다. 꼬리가 달린 관모 위에는 12지상의 동물의 머리가 그려져 있다. 북벽의 인물상은 좌상이며 子(쥐), 동벽에는 5인 입상으로 있고 丑(소), 寅(호랑이), 卯(토끼), 辰(용), 巳(뱀) 남쪽 안에는 좌상으로 午(말)이 그려져 있고, 서벽 입구에는 未(양), 申(원숭이), 酉(닭), 戌(개), 亥(돼지)가 그려져 있다.⁹⁾

이는 소박하고 순수한 표현과 상징적 의미로 12지상의 동물들로 인물상이 사자(死者)를 지키고 있는 형상이라 짐작된다.

벽화에서 나타난 색채는 단순하면서도 간결하게 철선묘로 치마의 주름이 세련되었다기 보다는 아래 표현되어 있으며 붉은색으로 관모와 얼굴과 허리선에는 붉은색감으로 처리하여 고려초기에 색감이 이어 졌음이 짐작된다.^{그림3)}

그러나 “안악호분과 1976년 발굴된 (408년고분)평안남도 대안시 덕흥리 고분은 당시 화가들이 인물상을 선조화법과 물골화법을 섞어서 사용하였으며 기교적으로 미숙하지만 선명하고 신선하게 표현되었다. 형상이 부드럽고 세련된 손으로 풍부한 얼굴을 거침없이 그렸고 눈썹과 눈은 가느다란 눈, 그리고 조그마한 붉은 입술로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면 서곡리 벽화는 둔중한 인상으로 눈은 부릅뜨고 크고 각이져 있으며 눈동자는 검은점으로 묘사되어 생기가 있고 코는 갈구리 모양으로 고졸하고 섬세한 선으로 있었고, 옷은 철선묘로 표현되어 곡선적이고 유연하게 표현되어 있다.

12신들은 꼬리가 달린 빨간모자, 우익(右衽)을 한 포(袍), 붉은색의 폐슬(蔽膝)을 착용하고 있으며 한결같이 긴 홀(笏)을 들고 있어서 마치 사자에 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¹⁰⁾

8) 한국 문화와 이해, 도서 출판예정, 이원용, p.113

9) 문화재 연구소 자료

천정에는 별자리 그림으로 원을 설정하고 그 안에 북극성(北極星), 삼태선(三台線), 북두칠성(北斗七星)^{그림1)}의 세가지 별들과 구름으로 표현 되었다. 이는 하늘 바탕은 검게, 별들은 하얗게 표현하여 흑백의 대조를 강하게 나타내었다. 채색의 원료는 흙색을 포함한 광물성 안료를 배합하여 쓰기도 하는데 별자리는 회죽을 바르고 마르기 전에 채색하여 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굳어지게 한 방법을 써 고유한 색채를 오래 보전되도록 하는 프레스코 기법으로 하기도 하는데 북극성과 삼태선 그리고 북두칠성이 그러한 색채의 능숙함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리고 관모(冠帽), 얼굴, 폐슬(蔽膝)에도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어 철선묘로 표현되어 사신도의 주작의 색과 선이 유사한 표현으로 보여지고 있다.^{그림2)} 또한 파주용미리 마애이불입상(보물 93호 지정)의 암반에 새겨진 불상의 토속적인 얼굴 형상 아래턱이 넓고 이마는 좁은 특징이 인물상과 유사한 점이 있음은 지역적 특성이 전해진 것이 아닌가 한다. 그에 따라 또한 관모 위에 12지상의 두부(頭部)가 표현되어 있는 것은 고려 말기의 창작적인 회화 요소가 있는 순수한 표현이 독특하게 보여진다.



도표 1) 북두칠성155p 문화재연구소 제공



도표 2) 주인공156p 문화연구소제공



도표 3) 서벽인물상 163p



도표 4) 묘비석 20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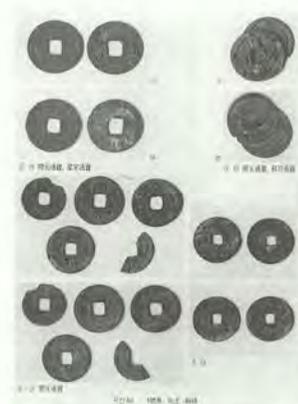


도표 5) 동전 197p

10) 문화재 연구소 자료

3. 영장리 보광사 단청의 특징

1) 단청의 기원

선사시대부터 인류는 문명이 싹트기 이전에 이미 어느 도구나 상징물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생활의 수단인 암시적 표현으로 적응해 발전하여 왔다.

“고구려 영양왕(21년 610)에 일본 범룡사의 벽화를 그렸다고 전해지는 승려 담징의 이야기는 건너간 남룡(男龍), 진규라는 이름을 기록에 남기고 화업을 자손들까지 이어 왔다는 백제사람 인사라야(因斯羅我)에 관한 기록과 588년에 백가(白加), 7세기 말엽신라시대 선덕여왕(善德女王) 때에 흥륜사 법당의 주불 미륵존상과 좌우 협신 보살을 소상으로 만들고 금색으로 법당벽화를 그렸다고하는 밀본법사(密本法師)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¹¹⁾

단청은 고구려, 신라, 백제 모두가 세련된 문양으로 크게 성행하였음을 보여준다.

불교가 성행함에 따라 회화도 발전하여 더욱 궁전이나 사찰등에 화려한 단청과 불화가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종교적 사회적 상징으로 내면적이고 신비로운 문양으로 발전되어져 왔던 것이다.

단청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요소를 문양화해서 그 구성과 조화를 통해 인류가 항상 염원하고 추구해온 내세의 세계 곧 영원불멸의 세계를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생활의 관념적으로 표현해 내었다.

“단청이라함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림과 무늬를 그리는 일을 말하지만 본래 옛부터 왕실이나 나라의 길흉에 관한 의식이나 종교, 신앙적인 의례를 행하는 건물과 의장하는 것을 통틀어서 말한다.”¹²⁾

그러므로 고대에 남긴 건조물들 고탑, 신상, 비석등과 무덤의 벽화, 무덤에서 출토된 각종 부장품들에 갖은 문양은 바로 단청과 동일한 의미와 목적을 지닌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단청은 건축양식에 따라 생활 조건이 성장함에, 사회, 문화, 종교적 신앙적 배경이 변화하면서 그 규모가 달라지며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를 가져왔다.

2) 단청의 상징적 의미

단청은 건축물의 여러 가지색으로 그림의 무늬를 그리는데 왕실이나 사찰등 종교적, 신앙적 의례를 행하는 건물들과 엄숙하게 지내는 건물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채색과 무늬의 사상적 배경은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곧 단청은 오방색(五方色)을 기본으로 각 방위와 위치에 따라 일정한 질서와 약속된 언어가 있음을

11) 『단청』, 임영주, 대원사, 1999, p.19

12) 『단청』, 임영주, 대원사, 1999

알 수 있다.

오방색은 청(靑), 적(赤), 백(白), 흑(黑) 황(黃) 등 다섯가지 색으로서 무교의 오행사상에서 유래되었다. 이러한 색조는 불교의 불화에서 발견되며 또한 삼국시대 사찰건물에서 화려한 단청을 볼 수 있다.

색채마다 내면적인 의미가 내포(內包)되어 있어 오방색은 인간의 생활에 호응(呼應)하는 종교적 관념속에서 음양사상과 결부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색채의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음양오행사상적인 우주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유(儒), 불(佛), 도(道)을 합친 무교의 인간에 대한 강한 믿음과 사랑을 인간이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믿음이다. 이것은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한 자연애(自然愛)의 믿음인 것이다. 따라서 음행오행설의 상징물들은 황색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오성중에서 토성, 오방중에서 중앙쪽, 오장중에서 비장(脾腸), 오정중에서 욕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미중에서 단맛을 나타낸다. 오상중에서 신(信), 오시 중에서 토왕(土旺), 오방신 중에서 황제(皇帝), 오음 중에서 궁음(宮音), 오곡 중에서 기장, 오축 중에서 말(馬)을 의미 한다.

오색과 연관되는 상징물을 정리하여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오색과 상징물〉¹³⁾

	五星	五方	五臟	五情	五味	五常	五時	五方神	五音	五穀	五畜	動物
적	화성	남	심장	즐거움	쓴맛	禮	여름	赤帝	稚音	쌀	양	朱雀
청	목성	동	간장	기쁨	신맛	仁	봄	靑帝	角音	보리	닭	靑龍
황	토성	중앙	비장	욕심	단맛	信	土旺	皇帝	宮音	기장	소	
백	금성	서	폐장	분노	매운맛	義	가을	白帝	商音	벼	말	白虎
흑	수성	북	신장	슬픔	짠맛	智	겨울	黑帝	羽音	콩	돼지	玄武

오방색은 이러한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오방색은 고분벽화, 단청, 어린이나 여인의 옷의 색동저고리, 노리개, 장신구 등 다양한 소재로 쓰여 지고 있다. 우리 몸의 오장을 지칭하고 있으며 음식의 빛깔에서도 감각적이고 초월적인 느낌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듯, 내면의 세계를 암시적으로 표현하거나 다양한 문자나 기호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의미와 신앙과 관념의 생활로서 사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13) 한국에 나타난 채색연구, 홍익대학원 동양화석사논문, 안현정, 2004, p.15

3) 단청의 목적적 의미

단청은 건축의 조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감정표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므로 오늘날까지 이어 남아온 것이다.

고려시대의 건축에 무덤과 궁궐그림, 그리고 목조건축의 가구, 자재 등은 단청의 양식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면에 그려진 의장 문양은 당시 단청 양식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단청은 궁전건축 단청과 사찰건축 단청으로 나누어지는데, “궁전건축의 단청은 경공장(京工匠)이 선공감(繕工監)에서 수행하였다. 선공감에서는 도채공(塗彩工)이라 하는 단청화공을 두고 궁전을 비롯하여 객사(客舍), 관아(官衙), 역관(歷官), 사묘(祠廟), 누정(樓亭) 등의 단청을 전문적으로 맡아 하였다. 사찰 단청은 단지 단청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 안에서 필요할 불상이나 불화, 조각등의 제작도 겸하였다. 여기에는 하급 승려들 가운데 나이 어리고 재간이 있는 소년들을 뽑아서 중세기적 도제식(徒弟式)의 양성기관을 두고 체계적으로 양성 하였다.

경복궁 근정전의 경우 천정의 중앙부에 부조되 반룡(蟠龍)이 있고, 반룡은 한 개의 공 모양의 거울을 가지고 있는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것을 현원경(軒輿鏡)이라고 한다. 이 현원경을 천정에 시문하게 된 유래는 역대 황제중 현원씨의 후예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말하자면 황제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¹⁴⁾

그러므로 색채의 표현은 고유색의 구조 질서에 치중하고 주관적인 색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시 생활 조건의 하나였던 주거지역에 여러 가지 장식적인 채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건축물에 단청이 필요하게된 요인은 다음 4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건축물의 영구보존을 위한 목적이며 둘째, 재질의 조악성(粗惡性)을 은폐하기위한 방법이며 셋째 궁전위풍과 또는 법당의 화엄 장엄을 위한 목적이며 넷째 기념물적인 성격으로서 전시, 기록을 위한 목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무늬의 체계는 건물에 따라 장식적인 구성과 석조 건물이 장엄하거나 공예품에 채색하여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의 기본으로 하고 건물에 부의와 장식구성에 따라 나눌수 있다. 머리초는 건물의 평방, 창방, 도리, 대들보, 석가래. 부연등 부재의 양끝을 머리초에 놓고 중간 공백 부분에 회화적인 수법으로 그린 장식들을 말한다.

주된 무늬는 연화, 목련화. 파련초, 주화, 녹화등 꽃으로 장식되는 경우가 많고 국화나 모란 꽃등리 도안화해서 그리기도 한다. 또한 천장에는 건물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무늬를 넣기도 하지만 다포 양식의 건물에서는 격자(格子) 천장 등의 가구가 기본적인 양식으로 대들보나 천정이 가려지기 때문에 천판 문양을 넣어 장엄한 분위기를 내기도 한다.

그 밖에 다채로운 단청 문양들이 있으나 건축물에 있어서 단청의장의 양상은 부위에 따라 크게 4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맨 윗부분에 천장 문양이 그려지고, 둘째, 그 아래 하늘 주위의 여러 상징적인 세계

14) 전통미술의 소재, p.113

를 평방, 창방, 도리, 대량등 천장을 받치고 있는 부재에다 갖가지 상서로운 오색 구름과 무지개, 연꽃 장식으로 장엄한다. 셋째, 하늘을 받치고 있는 천체의 역할을 하는 기둥에는 오색 구름이나 성의 처럼 너울이 드리워진다. 넷째 기둥아래에는 현세에 사는 인물들의 권위와 존엄성을 표현한 붉은색, 푸른색으로 단조롭게 의장한다.”¹⁵⁾ 건축물에 따라서 단청의상 양상이 구성되어 양식에 따라 달라지며 시대에 따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룰 때 건축물과 인가의 일체됨을 상징하는 것이다.

“고구려 고분 벽화 가운데 통구 제10호분, 17호분등의 매부 벽면에는 사신도가 그려진 배경에 금단(錦緞) 무늬를 그려 넣었다. 비단 무늬가 벽면에 그려진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건물 벽체에 비단 무늬 장막을 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단 무늬의 종류 또한 다양하여 산련화충, 연화충 등의 벽화와 같이 귀갑화문이 벽면에 그려지는 것도 후세에 단청에서 많이 나타나는 양식이다.¹⁶⁾ 이러한 맥락은 자연에 혼연일체의 하려는 의식 속에 조화로움을 발견 하였던 것이다. 사찰의 벽면은 당시의 우주관이나 종교관 그리고 사상에 반영된 표현되었거나 삶의 경험들이 표현되어 있다.

3) 파주 보광사 단청의 특징

고령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사찰로 된박고개를 넘어가면 아늑한 보광사(普光寺)가 보인다. 임진왜란 때 소실 되었다가 영조6년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다시 세워졌다. 아담한 자리에 대웅전, 만세루 원통전, 어실각이 차지하고 있으며 국운이 기우는 것을 막기위해 지었다는 만세루 뒷 뜰에서 바라보니 긴 주춧돌이 들어온다. 신라 진성여왕8년(894) 도선(道詵)에 의해 창건한후 고종2년 원진이 중창했고, 우왕14년의 무학대사가 삼창(三創)했으나 임진왜란에 소실되어 현종8년(1667) 지간(智侃), 석련(釋蓮) 두 대사가 四創 했고 영조 16년 (1740)년에五創 하였다.¹⁷⁾ 단청은 사찰이 시창(始創) 될 때마다 변화가 있었겠지만 영각전(靈覺殿)의 단청은 연꽃문양으로 석가래 사이사이 마다 연꽃을 늘어놓아 새로운 멋이 난다. 그 아래 문들은 용이 두 마리가 올라가 상승곡선으로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이 승천하는 것 처럼 보인다.^{도표6)} 대웅보전(大雄寶殿)에 벽화는 코끼리상과 호랑이 상은 원형 그대로 먹선 만 남아 있는데도 그림은 활력이 있고 고졸한 미가 느껴진다. 옛 분위기를 되찾아 한국의 멋과 맛을 살리는 그림으로 되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도표7)} 대웅보전 단청은 안타깝게 연화무늬가 탈색되어 복원되지 않은 상태이다. 만세루(萬歲樓) 문턱에 용목각은 덩그러니 보광사를 지키고 있다.^{도표8,9)}

사찰의 문살에는 봉황이 나타나는데 봉황은 성천사가 나타나면 이 새도 나타나는데 못 짐승들이 따라 모인다고 하는 상서로운 새이다. 몸은 닭의 머리이며 뱀의 목, 제비의 턱, 거북의 등, 물고기의 꼬리 모양을 하고 키는 6척이나 되며, 몸과 날개에는 오색의 뱀이 있으며 오음의 소리를

15) 『단청』, 임영주, 대원사, 1999, p.59

16) 『단청』, 임영주, 대원사, 1999, p.66

내며 오동나무에서 대의 열매를 먹는 예천을 마신다고 한다. 숫컷은 봉 암컷은 황이라 한다.

특히 이밖에 사찰 건축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용, 거북등을 비롯하여 천마, 사자, 운학등의 상서로운 동물과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표현되고 있으며 색채와 문양의 형태는 삶을 영위해온 토대가 되어 오방색으로 신앙적이며 장식적인미를 추구해온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색채와 문양의 형상은 각 민족마다 시대에 따라 창조되고 변형되어 발전하여 예술적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도표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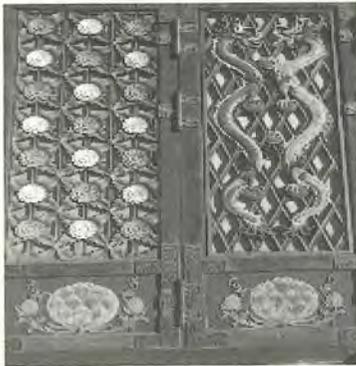


도표 6) 보광사 어실각 용문



도표 7) 대웅보전 코끼리상



도표 8) 대웅보전 호랑이상



도표 9) 만세루 용목각



도표 10) 어실각 단청

3. 결 언

고려벽화묘는 주제에 따라 달라지는 내세관과 역사적 배경을 전통의식과 사실적인 생활풍습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문화의 유구한 역사를 발견하는 것이다.

전통이란 어떤 형식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이며 배경인 것이다.

즉 긴 세월을 통하여 한 사회에 묻어나오는 사회적 정신이며 문화이며 삶 그 자체인 것이다. 영생을 기원하는 벽화묘는 울동적이면서 강대한 민족의 의지가 담겨있으며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생활관념으로 표현해 내었다.

벽화묘는 사회적, 시대적 요인과 불교, 도교, 유교, 무교가 결합된 음양오행설사상의 세계관이 형성되었던 복합적인 생활 감정을 경험한 시기였다. 그로 인하여 동양사상의 근거로 한 생활철학과 생활감정 또한 신앙의 토대위해 형성되었던 것이다.

오행에 상응하는 방위와 색감과 자연이 연관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음양오행설의 상징물들은 내면의 세계를 암시적으로 표현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서곡리 벽화묘는 고구려 벽화 고분의 한 전래의 기법에다 관모에 12지상의 두상을 표현한 것은 새롭고도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양식은 추상적 표현으로 조형미와 구성성을 동시에 획득하는 무의식적인 상태로 자유롭게 표현 되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자유로운 조형이라 할 수 있다. 서곡리 벽화묘는 문화재연구원에서 방대한 자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혜력(慧力)이 밝지 못하여 아쉬움이 많았다. 따라서 서곡리 벽화묘의 가치를 재 인식하고 문화적 특색과 종교적인 의식과 배경을 파악하고 그 시대의 생활관을 더 연구가 필요가 절실하다.

◎ 참고문헌

한국회화사(안휘준)

단청(대원사)

한국미술문화의 이해(도서출판예경)

미술은 아름다운 생명체다(다할미디어)

우리문화예술론의 선구자들(열화당)

파주문화재대관(파주문화원)

국립문화재연구소 자료

한국회화론(김종태)

파주의 능(陵)과 원(園)

- 소령원(昭寧園),
수길원(綏吉園)

강근숙*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그 자리가 아름답게 빛난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바른 교육을 받고 성장했다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테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모든 이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다. 숙빈 최씨는 반상班常의 구별이 뚜렷한 조선시대에 무수리 출신으로 숙종의 승은承恩을 입어 후궁이 되었고, 내명부內命婦 최고 품계인 숙빈淑嬪에까지 올랐으니 하루아침에 신분상승의 행운을 누린 여인으로 모든 궁녀들의 선망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 경기도 문화관광 파주해설사

우리고장 파주에는 조선조 19대 숙종의 후궁이며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1670~1718)의 원소園所인 소령원昭寧園이 있다. 왕과 왕비의 묘는 능陵이라하며, 세자나 세자빈 그리고 왕의 사친私親의 묘는 원園이라 칭한다. 소령원은 조선시대 13기基의 원소 중에 수복방守僕房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다. 숙빈 최씨는 7세의 나이로 궁宮에 들어갔다. 전해오는 일화에는 인현왕후(1667~1701)의 아버지 민유중이 영광군수로 있을 때 관아 문 앞에서 놀고 있는 불쌍한 아이를 민유중 부인이 데려다 키웠는데, 그 뒤 민씨가 간택되어 궁으로 들어갈 때 몸종으로 팔려 보냈다고 한다. 무수리든 궁녀든 반가班家의 자식을 입궁 시킨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숙빈 최씨는 전라도 정읍 출신으로 7세 때 입궁하여 24세에 숙종의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되기까지는 한날 중궁전 무수리로 세상사람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다.

숙종시대는 조선왕조를 통틀어 당파간의 정쟁이 가장 심했던 기간이다. 숙종15년 5월에는 기사환국己巳換局과 더불어 인현왕후가 폐위를 당하고 희빈 장씨가 중전자리에 앉게 된다. 폐위는 곧 서인庶人으로 강등되는 것이기에 시중을 드는 나인도 데리고 나갈 수 없는 처지였고, 최씨 또한 궁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4년 쯤 지난 어느 날, 남인이 정권을 독점하여 중전 장씨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숙종은 잠을 못 이루고 나인의 방을 지나치다가 오직 한 방에 등빛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성찬을 차려놓고 한 나인이 무릎을 꿇고 있어 까닭을 물어보니 “소녀는 중전마마의 시녀인데 지나치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내일이 중전마마 탄신일인데도 유폐된 처지라서 누가 찬수를 올리겠습니까. 소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중전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차려 소녀의 방에 진설하여 정성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였다. 생각해보니 정말로 다음날이 폐위된 중전의 탄신일이었다. 중전을 폐위시킨 것을 후회하고 있던 중이라 그 마음을 가상하게 여긴 숙종은 최씨에게 마음이 끌렸다. 나인이 후궁으로 신분이 바뀌는 극적인 순간이었다.

숙빈 최씨는 무수리 신분에서 6년 만에 내명부 최고 품계에 올랐고 그동안 왕자 셋을 출산했다. 첫째와 셋째는 요절하였고 숙빈 최씨보다 오래 살아 사후를 돌보아준 아들은 둘째인 금吟이 연잉군延昞君 하나였다. 숙종은 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 세 명의 정비가 있었지만 자식을 얻지 못하고 장희빈과 숙빈 최씨에게서 아들을 얻었다. 금吟이 태어났을 때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환시宦侍와 의관醫官에게 내구마內廐馬를 상으로 내려준 것을 보면 아들을 얻은 숙종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왕자를 낳은 공으로 정1품인 숙빈에 올랐고, 숙종의 후궁으로 25년을 살았던 숙빈 최씨의 인품은 천부적인 바탕이 침착하고 희로애락의 감정을 낮빛에 드러내지 않았다 한다. 왕실 어른을 모심에 있어 겸손하고 시봉을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않았거니와 스스로를 삼가고 여러 빈과 궁인에게 온화하여 환심을 얻었다 전한다.

숙빈 최씨와 연잉군은 모자간이면서도 정을 나눌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연잉군은 후궁의 몸을 빌어 태어났을 뿐, 정식 어머니는 중궁전 왕비였고 왕비의 자녀라는 개념으로 자신의 소생에게 존댓말과 함께 어머니의 칭호를 들을 수가 없었다. 숙빈 최씨가 갑작스럽게 병색이 짙어졌다. 숙종의 권유로 사제로 나가 요양을 하기도 했으나 끝내 차도를 얻지 못하고 1718년

49세로 생을 마감하여 양주楊州 고령동高嶺洞 웅장리瓮場里 묘향卯向 언덕(지금의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매장하였다. 이때 연잉군은 25세로 왕세제王世弟에 오르기 전이다. 당시 궁궐의 음지에서 살았던 후궁들의 상은 국상에 비하면 보잘 것이 없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 숙빈 최씨는 연잉군이라는 유력한 왕자가 있는 후궁이었고 장례의 격은 왕족을 위한 예장이었지만, 그 의례는 연잉군 주관 하에 개인의 집이서 치르고 있으므로 왕자가 없는 후궁은 더 말할 것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상례에 소요되는 각종 물자와 비품은 최고로 궁중의 여러 부서에서 지원했으나 3정승 6관서를 비롯하여 조정의 백관들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응당 있을 법한 조문이나 부의轉儀도 하지 않았다.

무수리에서 후궁 반열에 오른 왕실여성으로 축복받은 인생의 주인공인 숙빈 최씨를 연잉군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자신의 어머니가 무수리였다는 것에 깊은 회한이 마음속에 응어리 남아있었고, 평생 측은하고 불행한 여인이라는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연잉군이 어머니에게 지난시절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고 물은 적이 있다. 숙빈 최씨는 ‘침선’針線이라 대답했다.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왕실의 음지陰地에서 나인들이 얼마나 힘겨운 세월을 살아야했는지 짐작 할 수가 있었다. 왕의 이부자리는 날마다 새것으로 바뀐다. 그러나 영조는 왕이 되어서 이부자리를 매일 바꾸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보위에 오른 이후 영조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즉위 다음해에 무리를 감수하면서 거대한 크기의 신도비神道碑를 숙빈 최씨 묘 입구에 세우게 했다. 신도비는 정 2품 이상의 벼슬아치의 무덤의 약 100m 지점에 세우며 인근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묘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굳게 닫힌 비각의 문을 열자 머리를 들어 올려 정면을 응시하는 거북이가 여의주如意珠를 물고 쳐다본다. 머리 위쪽에는 왕王자가 크게 새겨져있고 옥개석은 대궐의 지붕모양에 용을 형상화했다. 품계가 낮았던 어머니를 위로하는 영



조의 효심을 엿볼 수 있다. 신도비의 귀대석(龜臺石)을 보면서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가능했을 조선시대에 이 방대한 돌을 어떻게 운반했을까 궁금해진다. <淑嬪崔氏資料集>을 보면 석재를 끌어다 운반하는데 1만여 명이 동원되었다 적혀있다. 운반과정에서 백성들의 농경지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또 칙사의 행렬이 지나가면 이 지역 백성들의 고통과 원성이 클 것이라는 조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이를 멈추지 않고 강행했다.

어머니 숙빈 최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인근의 보광사를 소령원 기복사(祈福寺)로 삼았다. 영조는 소령원을 능(陵)으로 승격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지금도 보광사 대운보전 뒤에는 명복을 빌던 어실각(御室閣)이 그대로 남아있다. 소령원 비각에는 숙빈 최씨가 봉작(封爵) 받은 후 회갑이 되던 해인 1753년에 묘를 원으로 승격시키고 눈물을 머금고 썼다는 비석이 있다. 무악재에서 만난 노인과의 대화를 보더라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있다. 행색이 초라한 노인에게 어디서 무엇을 하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고령능 근처에서 숯을 구워 내다 파는 김세휘’라고 대답했다. 영조는 ‘고령능’이라는 말이 고마워 대대로 그곳에 머물러 살면서 소령원을 지키게 했으며 김세휘(金世輝) 자손에게는 군역을 부과하지 말라는 명을 내렸다. 지금은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여 그 후손을 만날 수 없으나 아직도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한다.

싸락눈을 밟으며 묘소로 올라갔다. 오늘 비공개인 소령원 해설을 특별히 부탁한 관람객은 풍수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유적지해설에는 관심이 없는 듯, 산세를 봐야한다며 묘소 뒤쪽으로 올라간다. 평소 풍수학에 관심이 있어 한수 배울 욕심으로 따라가려니 숨이 턱에 찬다. 묘소 위로 이렇게 높은 산줄기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는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보고서야 ‘이렇게 좋은 묘 자리는 처음 본다’며 감탄을 한다. 산줄기에 뭉쳐있는 험 자리와 묘소를 겹겹이 싸고 있는 산자락의 설명을 들으며 문외한인 나도 뭔가 알 듯 하여 고개가 끄덕여진다. 용이 꿈틀대는 형태의 긴 사초지 아래 정자각이 조그맣게 내려다보인다. 사초지는 생기 저장탱크이며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영조가 보위에 올라 52년 간 왕의 자리에 있었으며 83세까지 오래산 것은 사초지에 가득한 기운 때문일 것이라 하였다.



무수리로 입궁하여 후궁에 오른 왕실여성은 숙빈 최씨가 유일하다. 허드렛일을 하던 무수리가 왕의 여자가 되었고, 왕의 어머니가 되었으니 하늘에서 별을 탄 여인 아닌가. 그러나 영조는 왕위에 오른 자신의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했다. 사초지를 내려와 주춧돌만 남아있는 여막(廡幕)터에 서서 어머니가 그리워 묘소를 찾아와 사모(思慕)의 정을 달랠 영조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수길원(綬吉園)

하늘을 가린 키 큰 나무사이를 걸어 계곡의 맑은 물이 흐르는 돌다리를 건너면 정빈 이씨의 원소 수길원이 보인다. 우리고장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자리한 수길원은 조선 제 21대 영조의 후궁으로, 추존된 진종(眞宗)의 생모 정빈 이씨(靖嬪李氏(1694~1721)의 원소(園所)이다. 정빈 이씨는 이준철의 딸로 7살에 입궁하여 영조의 후궁이 되었다. 1남 2녀를 낳고 궁중에 있을 때 심한 질병으로 장동에 있는 사가에 나가 치료를 하던 중,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비공개인 수길원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좀처럼 볼 수 없는 토종 민들레가 지천이다. 정빈 이씨의 넋 인양 하얗게 피어있는 민들레는 시덥잖은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신성함이 느껴진다. 왕의 여인으로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정빈 이씨는 세 살 박이 효장세자와 젓먹이인 화순옹주를 두고 젊은 나이에 눈을 감았다. 그 해(1721년) 몸이 약한 경종은 연잉군을 왕세제(王世弟)로 책봉하고 대리청정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소론측의 반대로 청정 명령을 거둬들이고 경종을 문안하러 가는 것마저도 금지 당해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던 시기였다. 그런 때 정빈 이씨가 어린 자식을 두고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원소 아래 수복(守僕)인양 수길원을 지키는 향나무는 인생의 무상함을 말해주듯 구부정 허리를 굽히고 서 있다.



정빈 이씨의 소생은 그리 오래 살지 못했다. 장녀는 일찍 죽고 효장세자도 10살에 요절한다. 화순옹주는 성장하여 김한신과 결혼했으나 남편이 38살에 죽자 부군을 따라 죽음의 길을 택하였다. 여인의 삶은 오직 지아비에게만 있는 것인가. 부왕의 말림에도 식음을 전폐하고 기어 이 남편을 따라갔다. 세상에 태어나서 오로지 한 사람만을 위해 살다가 진정으로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아름다운 일이다. 지금은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그 시대에는 남편이 죽으면 슬픔을 이기지 못해 따라 죽는 것을 최고의 열녀로 칭송했다. 조선왕조 왕실에서 나온 유일한 열녀 화순옹주는 조선시대 정치가, 문인, 서화가書畫家로 추사체秋史體라는 독창적인 서체를 높이 세운 김정희金正喜의 증조할머니이다.

영조는 효장세자가 요절하자 3년 뒤 인조仁祖 장릉長陵을 천장遷葬한다. 석물 틈에 뱀과 전갈이 있으면 후손이 요절하거나 장애자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 오랜 논란 끝에 파주 땅 운천리 대덕골에서 탄현면 갈현리로 옮기고 나서 영빈 이씨에게서 사도세자가 태어난다. 조상의 음덕이라 기뻐하였으나 훗날 당쟁에 휘말린 세자는 불운한 삶을 마감하고 영조는 세손을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킨다. 세자가 자라 왕이 되었으니 정빈 이씨는 법적으로 정조의 친할머니가 된다. 정조正祖는 즉위하여 양아버지인 효장세자를 진종眞宗으로 추존하고, 할머니를 정一品 정빈으로 봉하여 묘를 수길원으로 올린다.

소령원지 부록에서는 정빈이씨의 묘표墓表와 농대석籠臺石, 금화절목禁火節目 등을 기술하며 수길원 식례式例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금상^{금상}금^금상^상 무술년1778년(정조2)에 정빈 묘를 수길원으로 봉하였다.’ 정빈 이씨 묘를 원으로 승격시킨 사실을 적시한 뒤 절향을 올릴 경우 희생을 담당하는 재축齋祝이 갖춰있지 않아 소령원에서 먼저 제사를 올린 뒤에 수길원 제사를 거행하였다. 그 후, 사헌부 관원과 대신의 의견이 정조正祖에게 가납되어 1789년(정조13) 정월부터 가관假官을 임시로 파견하여 두 원소에서 별도로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언제까지 별도로 제사를 지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근래에 와서는 소령원 숙빈 최씨의 기신제날인 4월 23일에 함께 지낸다. 살아생전에는 제대로 고개도 들지 못하는 어려운 사이였으련만 소령원에서 제사를 받는 정빈 이씨는 시어머니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수길원은 시어머니 숙빈 최씨淑嬪崔氏의 원소 소령원昭寧園 진입로 오른쪽에 있다. 영조가 이곳에 묘를 쓴 것은 어머니를 곁에서 잘 모시라는 뜻이었을까. 아니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 안타까워 외롭지 말라고 그리 하였을까. 소령원은 성공한 아들을 두어 호강하는 어머니를 보는 것 같고, 수길원은 그 반대로 안쓰러운 여인처럼 측은한 마음이 든다. 정빈 이씨의 아들 효장세자가 오래 살아 왕위에 올랐다면 아마 어머니 계신 곳을 이렇게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자식이 잘 되어야 그 자리가 변듯하다는 것을 두 원소를 보면서 생각한다.

수길원은 검소한 여인의 살림처럼 봉분도 아담하고 석물이 단출하다. 봉분 바로 앞에는 비석과 상석, 장명등이 일렬로 배치되었고 양쪽으로 망주석과 문인석이 세워져 있다. 묘비 전면에는 ‘대한 온희 정빈 수길원大韓 溫僖 靖嬪 綬吉園’라 새겨 있고 뒷면에는 정빈 이씨의 이력과 장례 후에 석물을 세우고 담장을 두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영조는 왕이 되어서야 묘소에 명등明燈을 세우고 담장을 둘러 예를 갖추었다. 어제어필로 써서 비를 세웠으나 오래되어 글씨가 지워지고 획이 떨어져나가 1909년 11월 성기운이 칙령을 받들어 다시 썼다고 쓰여 있다.

수길원은 여느 원소에나 있는 정자각丁字閣과 비각碑閣이 없다. 주춧돌만 남아있는 정자각 터에는 자잘한 풀꽃들이 모여앉아 잔치를 벌이고 있다. 풀꽃방석에 앉아 푸른 하늘을 이고 무심히 흘러가는 흰 구름 한 덩이 바라보다, 그 옛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여인을 그려본다. 3백여 년이 지난 지금 인간의 슬픔과 아픈 사연들은 세월 속에 묻히고 먼 산 빼꾸기 소리 들리는 수길원은 평화롭기만 하다. 환영인가. 남매의 손을 잡고 꽃밭을 거니는 정빈 이씨의 화사한 모습이 스쳐지나간다.



파주 안내 책자 오류 정정 제안

DMZ 셀프가이드북

<아주 특별한 여행 - 평화누리길>

김 선 희*

2013년 새해에 DMZ 셀프가이드북 <아주 특별한 여행 - 평화누리길>이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다. 평화누리 길을 걸으면서 참고하기 좋을 만큼 자그마한 크기에 글이 참 편안하게 읽혔다. 파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파주를 알리는 책 한 권을 또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지만, 이런 기쁨을 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채 차오르기도 전에 중간 중간 보이는 오류가 정말 많아 거슬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되기 전에 정정했으면 하고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 민원을 넣게 되었다.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파주를 사랑하고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이 지역 답사를 하며 틈틈이 공부한 시간들이 있어, 전문가 아닌 나의 눈에 걸릴 정도면 퇴고를 한 번쯤 더 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경기관광공사가 직접 기획한 것이라 자세한 내용을 더 잘 아니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왔다. 경기 관광공사는 민원 넣은 내용이 맞지만 이 책을 기획할 때, 관광객들에게 파주 평화누리를 널리 알릴 목적으로 쓴 스토리텔링이라 다음에 추가 인쇄를 할 때는 참고를 하겠지만 기존 인쇄분은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말로 실수를 했다면 사과를 하면 되겠지만, 인쇄물은 그렇지 않다. 그 관광책자를 보고 자료로 삼을 사람들이 없다고 장담하지 못할진대 오류를 알면서도 배포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작은 오류가 한 두 곳 나왔다면, 스티커라도 붙여 정정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그럴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했을 텐데 이런 지적을 하게 되어 미안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파주에 관한 바르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수정이 되면 좋겠다. 더군다나 여러 나라 말로 번역도 할

* 파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더욱 그렇다. 세계기록유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 한 권뿐이라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테니 말이다.

14쪽 경의선을 타고 유럽을 가다

1927년 매섭게 추운 겨울 어느 날, 경성(현재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는 한반도를 벗어나 중국 만주와 시베리아를 거쳐 한 달 만에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다. 기차 안에는 32세의 여성화가 나혜석(1896~1948년)이 타고 있었다.

그 당시 나혜석을 태운 경의선 열차가 프랑스까지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문장은 오류이다.

⇒ 1927년 6월 19일 부산항을 출발, 나혜석 부부는 경성역에서 열차를 타고 평양, 신의주를 거쳐 평토펀에서 남만주철도로 갈아타고 하얼빈으로 갔다. 하얼빈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로 모스크바를 거쳐 한 달 만에 파리에 도착했다. - 출처 위키백과

48쪽 초평도 돌개바위의 전설

초평도는 임진강의 침식작용으로 인해 생긴 섬이다. 그러므로 바위가 있었다는 것은 오류라고 보인다. 더군다나 19세기에 그려진 <경강부임진도> 등에는 초평도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또한 미수 허목선생의 <무술주행기>에도 나와 있지 않고, 정약용의 <대동수경> 중 패수 항에도 초평도 자체가 나와 있지 않은데 전설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허목(許穆, 1595년 12월 11일 ~ 1682년 4월 27일)은 조선시대 후기의 문신 및 유학자, 역사가이며, 교육자, 정치인, 화가, 작가, 서예가, 사상가이다

정약용 조선 말기의 학자(1762~1836). 자는 미옹(美鏞)이고 호는 다산(茶山),

파주 역사공부를 하면서 그 전설은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흑여 글쓴이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네이버 블로그 <화석정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3 임진강 초평도 옆 돌개바위의 전설! 작성자 국스> 의 내용을 보고 썼다면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사진에 표시된 그곳은 초평도가 아니다. 블로그 작성한 본인과 통화를 했더니, 가면 기억이 나겠지만 장소가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 그 당시 함께 갔던 친구들 중 파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동행하게 소개를 해 달라고 했더니, 다른 친구들은 그곳을 기억 못한다고 한다. 기억을 한다고 해도 사진에 표시해 놓은 곳은 임진나루에서 강을 보고 좌측편으로 가야하니, 그곳은 초평도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50쪽 잊혀진 전설, 덕진산성

바다인지 호수인지 알 수 없는 수면위로 그림처럼 솟은 절벽이 보인다.

임진강이 확실한 곳이다. 그렇게 애매하게 표현하면 모르는 사람은 정말 혼란스럽다.

55쪽~ 하나의 길, 세 번의 역사

해마루촌 이야기를 하다가 왕건이야기... 그러다가 경순왕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선조임금 이야기... 어느 길을 말하고 있는 건지. 해마루촌이라면 임진나루나 동파나루를 말하는 것이고, 경순왕이면 고랑포를 말하는 것인데 선조 임금님은 의주대로를 이용해 가셨고,, 파주를 잘 아는 저는 어딘지 감이 잡히질 않는다. 그리고

57쪽 하단 당시 선조 일행은 한양에서 임진나루까지 가장 빠른 직선코스인 이 길을 거쳐 화석정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까. 선조 임금님은 임진나루를 건너 동파나루 지나 하룻밤 지내셨다.

조선왕조실록 선조 25년 4월 30일

- 새벽에 서울을 떠나다
- 황정욱과 그 아들 황혁이 순화군을 받들다
- 저녁에 임진강 나루에 닿아 배에 오르다

저녁에 임진강 나루에 닿아 배에 올랐다. 상이 시신(侍臣)들을 보고 앞드려 통곡하니 좌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히 쳐다보지 못하였다. 밤은 칠흠같이 어두운데 한 개의 등촉(燈燭)도 없었다. 밤이 깊은 후에 겨우 동파(東坡)까지 닿았다. 상이 배를 가라앉히고 나루를 끊고 가까운 곳의 인가(人家)도 철거시키도록 명했다. 이는 적병이 그것을 뗏목으로 이용할 것을 염려한 때문이었다. 백관들은 굶주리고 지쳐 촌가(村家)에 흩어져 잤는데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반이 넘었다.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3장 A면

- 13일 밤부터 새가 궁중에서 이상하게 울고 자라가 죽고 물빛이 변하는 변괴가 있었다 하다
- 왜구가 상륙한 후 침전에서 이상한 기운이 생겼다고 하다
- 승려 무학이 지은 도참기에 나오는 귀절과 도성의 동요가 유행하자 거기에 해석이 나돌다

선조 25년 5월 1일

- 상이 판문에서 점심을 들다
- 저녁에 개성에 도착하다
- 호위병 중에 서로 다투는 일이 생기다
- 평안도 토병의 말을 빼앗은 호위병을 베다

65쪽 임진강은 강원도 두류산에서 발원해 강원도와 황해도, 개성을 거쳐 ...

임진강은 국어사전에는 함경남도 덕원군 마식령(馬息嶺)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흘러 황해로 흘러드는 강. 예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국경 지대로 분쟁이 잦았다. 길이 354킬로미터이다. 라고 나오고, 백과사전에는 강원도(북한) 법동군·판교군·이천군·철원군, 경기도 연천군·파주시를 남서류하는 강으로 한강의 제1지류로서 길이 272km라고 나와 많은 혼동을 줄 수 있다. 북한지역정보넷에 의하면 원래 법동군 용포리는 함경남도 안변군 영풍면 상리 지역이었는데, 1952년 강원도 법동군 용포리로 개편되었다고 하니 글에 쓰인 것이 맞다. 하지만 ‘개성을 거쳐’ 라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현재 개성직할시는 왼쪽에는 개풍군 오른쪽에는 장풍군, 그 사이에 고구마처럼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임진강 물줄기가 개성을 거친다고 볼 수 없다.

71쪽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울곡 이이도 임진나루 근처에 화석정을 세워 선조의 피난길을 도운 것이다.

화석정을 울곡선생이 세웠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1443년 (세종 25년) 고려말 대유학자인 야은 길재(冶隱 吉再)의 유지(遺趾)에 이이의 5대 조부인 강평공(康平公) 이명신(李明晨)이 정자를 건립.

1478년 (성종 9년) 이이의 증조부 홍산공(鴻山公) 이의석(李宜碩)이 증수. 몽암(夢菴) 이숙함(李叔咸)이 화석정이란 이름을 붙임.

1592년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져 80여 년 동안 터만 남은 상태로 방치.

1673년 (현종 14년) 이이의 증손 이후지(李厚址), 이후방(李厚坊)이 다시 세움.

1950년 한국 전쟁 때 또다시 불타 없어짐.

1966년 파주의 유림들이 성금을 모아 다시 복원.

1973년 정부의 울곡 선생 및 신사임당 유적 정화사업으로 건물을 다시 색칠하고 주위를 정리함. 출처 - 위키백과

이이(李珣, 1536년 음력 12월 26일 ~ 1584년 음력 1월 16일)는 조선시대의 문신, 성리학자이며 정치가, 사상가, 교육자, 작가, 시인이다

72쪽 화석정을 세운 까닭

1592년(선조 25) 한양이 함락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어가행렬이 한밤중 동파나루에 당도했다. 그러나 앞에는 천리 벼랑 물길이고 뒤에는 왜병들이 쫓아오고 있으니 건너갈 길이 막연하였다. 이때 병조판서 이항복(1556~1618) 머리에 번뜩 떠오른 생각, 울곡(1536~1584) 선생이 살아 계실 때 제자들을 지도하면서 밀 한쪽씩을 가져오라하여 화석정 정자의 도리, 기둥, 석가래, 마루에 기름칠을 했다는 말이 기억났던 것이다. 군사를 부른 이항복이 화석정에 불을 지르니

비가 오는 날씨에도 대낮인 듯 주위가 밝아졌다. 화석정 불빛은 마치 강을 잘 건너라는 듯 나무를 환하게 비췄고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고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이하 생략)

10만양병설을 주장했던 율곡선생의 선견지명이면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것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도 전해온다.’라고 적든가 아니면 사실을 써야한다.

* ...既渡 已向昏 不能辨色 臨津南麓 舊有丞廳 恐賊取材木 桴筏以濟 命焚之 火光照江北 得尋路而行

나무를 건너서니 이미 날이 어두워 앞을 분간하기 어렵다. 임진강 남쪽 기슭에 옛 승청(丞廳)이 있는데, 혹시 왜적이 거기 있는 재목을 가지고 뗏목을 매어 건너올까 해서 임금의 명령으로 불을 태우니 그 불빛이 강북쪽에까지 비치어 길을 찾아갈 수가 있었다.

- 징비록 권1, 류성룡.

* 이날 밤 행차가 임진나루에 이르렀을 때 상하가 서로 잃어버렸다. 이항복이 흙탕 속을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임진강을 건너는데 나루터 남쪽에 있는 승청(丞廳)을 불지르게 하여 그 빛이 강북쪽에 비치어 길을 찾아갔다. 삼경에 동파역에 이르니 파주 목사 허진과 장단 부사 구효연이 간단히 수라상을 마련하였다. 호위하던 사람들이 종일 굶었던 참이라 마구 부엌으로 들어와 가져다 먹으니 장차 임금께 올릴 것이 없게 되어 허진 등은 겁을 내어 도망하였다. - 연려실기술, 이공익.

91쪽 해마루촌 뒤로 높이 솟은 산이 백학산. 그 너머에 판문점이 있는데 그곳에서 마주 보이는 DMZ 안에 박연폭포와 황진이 무덤이 있는 것으로 전한다.

박연폭포는 개성에 있다. 몇 년 전에 다녀왔는데, DMZ 안에 있다면 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박연폭포 가기 전에 벽초 홍명희의 장편소설 ‘임꺽정’의 주인공인 임꺽정과 연관된 청속골 가는 길이 보이는데, 그 때 좌우 4km 반경 안에 실학자 연암 박지원 선생의 묘소와 황진이의 무덤이 위치하고 있다고 했다.

2011. 11. 20. 북한중앙TV는 박지원과 황진이 무덤을 복원할 거라면서 박지원의 무덤은 개성시 전재리 황토고개 옆에 있고, 황진이 무덤의 소재지는 개성시 선정리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 홍덕화 기자]

DMZ 안에 있다면 복원할 수 없을 것이다.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만약 교정을 해서 책을 다시 찍게 되면 이야기를 길 순서에 맞게 하면 더 좋겠다. 길을 잘 아는 파주 사람도 정신없는데, 초행이거나 파주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정신이 없을

까 싶다. 파주 평화누리길 네 구간 모두 이야기가 많은 곳인데 셋째 길에 편중된 것이 몹시 아쉽다. DMZ 자전거 투어 길에 맞춰 원고를 썼다면 제목을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파주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미는 것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기에 오류가 꼭 정정 되길 바란다.

문화
사랑방

파주문화연구소 관외 답사기
선(線)의 이음, 그 길에서
만난 겨울 속 겨울

권혁임*

계사년을 맞이한 지 스무하룻날, 나는 경의선 선로 옆에 섰다. 다섯 시 이십육 분 금촌역발 서울행 열차를 타기 위해서이다.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다. 눈 소식으로 하늘조차 꾸물거리는 이 첫 새벽에 어디로 갈까? 나야 “환상선 눈꽃열차”를 타러 간다지만, 지갑 잃었다며 차비 이천 원만 달라고 문화원장께 손 내밀었다는 멀쩡한 차림의 저 이십 대로 보이는 여자는 돈 얻으려고 나왔다지만, 다른 이들은 대체 무슨 사연일까? 나는 승차 표시가 되어있는 꼬리 부분에 서서, 내 쪽을 바라보고 있는 팔 할 팔 푼의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쓸데없이 써댔다.

‘저 사람들 반 이상이 출근하는 걸 거고, 남은 반의반은 …… 저 아줌씨는 딸에 해산바라지, 저 할배는……’

나의 되지도 않는 이야기 속으로 어김없이 기차는 들어오고, 금릉역에서 탄현역에서 그리고 일산역에서 연구위원들이 끝에서 두 번째 칸에 약속대로 탔다. 총 인원은 소장을 비롯한 여덟 명이다. 일행은 양쪽으로 넋짝 어깨를 맞대고 앉아, 2013년 1월 파주문화연구소 관외 답사의 길에 올랐다.

서울역에 도착한 시각은 여섯시 십칠 분. 발길 닿는 곳마다 대낮처럼 밝다. 1990년 경성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역사가 지어진 지 88년! 발품 조금만 팔면 그 세월의 흔적을 만날 수

* 파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있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역은, 시작이자 끝이기도 하지만 그리움, 기다림, 추억, 소통, 만남, 이음이다.

소장의 안내에 따라 나의 일행은 피켓을 든 개찰구 앞에 여러 줄로 모여 있는, 호화로운 빛깔의 행선지가 같은 한 무리 속에 합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표도 없고 역무원의 간섭도 없이 일행은 열차에 올랐고, 일행을 실은 전기 기관차 ‘8528’이 이끄는 여객 열차(무궁화호) ‘환상선 눈꽃열차’는, 일곱 시 삼 분에 서울역을 여유롭게 출발하였다.

청량리역, 양평역에서 한두 일행이 더 기차에 올랐다. 그들을 따라온 듯 차창에 눈발이 제법 날리기 시작하고, 칸칸마다 여성으로 빼곡한 열차는 철로를 따라 덜컹덜컹대며 달리기 시작했다.

코레일이 기획한 관광 전용 열차 “환상선 눈꽃열차”!

여기서 환상선의 환상은 환상(幻想)이 아닌 환상(環狀)을 말하는 것이다. 적어도 나의 일행은 그것을 몰랐다. 예컨대 청량리역에서 제천역을 지나 목적지에 갔다가, 청량리역으로 가기 위해 제천역으로 다시 올 때에, 갔던 길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동그렇게 순환하는 고리 모양의 노선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환상선(環狀線)은 제천 영주를 잇는 중앙선, 영주 동백산을 잇는 영동선, 동백산 제천을 잇는 태백선으로 연결되는 총 257.2km의 구간을 말하는데, 이 구간이야말로 백두 대간의 진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진짜 눈이닷!”

연당(淵堂)역을 지났을 즈음, 그 누군가의 입에서 탄성이 터지고 차창으로 몰려드는 눈발에 나는 빠져들었다. 그리고 청령포역, 탄부역, 연하역, 석항역, 예미역, 자미원역, 민동산역, 고한역 등. 이름도 모르던 간이역을 수도 없이 지나쳤다.

짜룩짜룩 눈꽃이 쌓이고 쌓이며 쌓이는 간이역에서, 눈꽃들의 화음을 들으며 열차를 기다릴 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자꾸자꾸 뒤로하며……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툽밥 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멎은 즐고
멎은 감기에 울렁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줌의 툽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후략~

눈이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그래서 열차를 타게 하곤 했던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가 열차 바퀴 소리를 타고 넘나들고, 사십여 년 전에 폐결핵을 앓던 첫 생각 그이가 기차 꼬리 불뚝 찰싹 달라붙어 마산 앞바다를 서성거리게 하는 통에, 우리나라 하늘 아래 가장 높은 역이라는 추전역에 도착해서야 나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태백선의 철도역 중 하나인 추전역(柞田驛)은 해발 855m의 강원도 태백시 싸리밭길 47-63에 위치해 있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 열차가 정차했으나 2008년 이후로 없어졌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관광 열차를 특별히 운행하는 때 이외에는 여객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태백선의 특성상 화물 열차 수요는 꽤 많아서 보통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관광객을 위하여 추전역 구내에 아담한 쉼터가 마련되어 있고, 그곳에는 방명록도 비치되어 있는데 다채로운 글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추전을 노래하고 있다. 나도 ‘살롬’이라는 인사말을 끝으로 방명록에 감회 몇 자 적어 놓고 쉼터를 나서는데, 역사 앞에서 눈꽃으로 활짝 피어 있는 일행을 만났다.

8량 칸칸마다 사람 눈꽃으로 넘쳐 그 향기에 취했는지, 아니면 쉼 없이 간질이는 송이눈에 빠졌는지 열차는 가끔씩 뱃고동 소리 내듯 부웅부웅 소리를 내며 추전역을 떠났다. 태백역을 향하여.....



태백역으로 가는 철길은 눈으로 덮인 첩첩산중을 지나간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얗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 섰다.”라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雪國)’의 멋진 도입부를 탄생시킨, 일본의 니가타 현 유자와도 무색할 것 같은 진풍경의 연속이다. 경이롭기까지 한 설원이 끝이 없다.

“황지연못이 저기쯤인데?”

성 연구위원이 가리키는 손끝을 따라가 시선이 머문 곳은, 건물들이 어깨를 겹치고 부동켜 안고 있는 도시이다.

낙동강 천삼백 리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이 저토록 복잡한 도시 안에 있어도 물이 매우 깨끗하다는 이야기와, 황지연못에 대한 황 부자 집터에 얽힌 쇠통 시주 이야기를 들었다. 동행한 위원들로 인해 알아지는 것이 많다. 나는 참 복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태백 준령 협곡을 지나고, 또 수없이 많은 간이역과 터널을 지나고, 하여 수도 없이 많이 차창 밖 저 멀리로 기차의 꼬리를 잡고 놓치며 1시간쯤 지났을까? 아름다운 간이역 중의 하나인 승부역에 열두시 오십분경에 열차는 도착했다.



육지 속의 섬, 산속의 섬, 승부역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그 어느 역무원의 시처럼, 아무리 넓게 봐 주려고 해도 하늘 세 평 맞고, 꽃밭 세 평 맞다. 자동차로는 접근할 수 없는 오지 역, 그러니 섬이랄 수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는 역이다.

1956년 1월에 보통역으로 시작한 승부역은, 2001년 신호장으로 격하되었다가 2004년 12월에 보통역으로 재승격되었다고 하며, 경북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산 1번지에 위치한다. 우리나라

철도 교통의 대동맥인 영동선 철도의 간이역이다.

‘승부(承富)’라는 의미는 전쟁 때 승부가 이곳에서 결정된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보아서는 그 근거가 미비한 것 같다. 만약에 내게 그 이름의 연유를 묻는다면, 산과 강뿐인 이곳 사람들의 꿈, 바로 부(富)를 자자손손이 받고 이어가는(承) 곳이기를 소망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말하고 싶다. 앞으로 승부에 사는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말이다.

열차가 쏟아놓은 570여 명의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세월교를 건너 먹을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좁다란 계곡으로 빠르게 달려 들어갔다.

먹거리 장터의 앞쪽에는 간이식으로 지어진 식당이 양쪽으로 여럿 있고, 식당 뒤편으로는 좌판에 특산물을 놓고 파는 곳이 있다. 식당마다 메뉴가 비슷하여 나의 일행은 맨 앞 식당으로 들어갔다.

시래기 국밥에 도토리묵과 메밀 전을 먹었는데, 담백하고 소박한 맛이 어찌나 좋던지 누구의 숨씨인가 궁금하여 주방 쪽을 바라보았다. 홀에서 일하는 남자의 어머니로 보이는 할머니가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국밥을 뜨며 열심히 손놀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나의 친모가 이곳 승부의 계곡에도 계신 것이다. 쇠덕석 같은 손과 구부러진 허리를 가진 노모, 그래서 마음이 짠하다. 하지만 먹거리 장터는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환상선 눈꽃열차” 운행 이래에 좋은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장터 뒤로 이어진 좁은 계곡을 가르고,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나무다리가 멋지게 자리 잡고 있다. 그 다리를 지나 계곡으로 들어가 본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눈꽃 세상이 그곳에 있다. 발을 붙잡는다. 마음을 붙잡는다. 하여 나는 그곳에 빨간 장미꽃 수놓아 있는 손수건을 슬쩍 떨어트렸다. “아가씨! 수건 떨어졌네요.”라고 말을 걸어 줄 승부의 멋진 사나이 눈에 띄라고.



승부역에 오면 꼭 건너야 할 다리가 있다. 바로 낙동강 위에 세워진 현수교이다. 자동차로 승부역을 가고 싶다면 강 옆에 차를 세워 놓고 이 현수교를 건너야 하는 중요한 다리이기 때문이다. 아래에 세월교가 있기는 하나 낮은 곳에 있어 강물에 잠긴다.

70m 길이의 화이트 카펫 위를 권 책임연구원과 나는 걸었다. 발을 떼어 놓을 때마다 이름답게 출렁출렁거리는 현수교를 건넜다.



〈낙동강 위의 현수교〉

그리고 열차 세워진 옆에 잎을 폭설 속에서도 떨어뜨리지 못하고 있는 단풍나무를 보았다. 1970년대 승부역에서 기차가 교행하는 5분 남짓 동안 애뜻한 사랑을 나눴다는, 그 어느 날 사고로 탄광에서 일하던 남자가 죽고, 그 뒤 시름시름 앓던 여자도 죽었다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역무원이 단풍나무를 심었다는 …….

바로 그 사연 속의 단풍나무가 잎을 그대로 단채로 목을 길게 늘이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단풍나무야! 이제 잎을 보내 주렴. 또 올게. 안녕~~’ 나는 두 손을 단풍잎 같이 만들어 흔들며 승부역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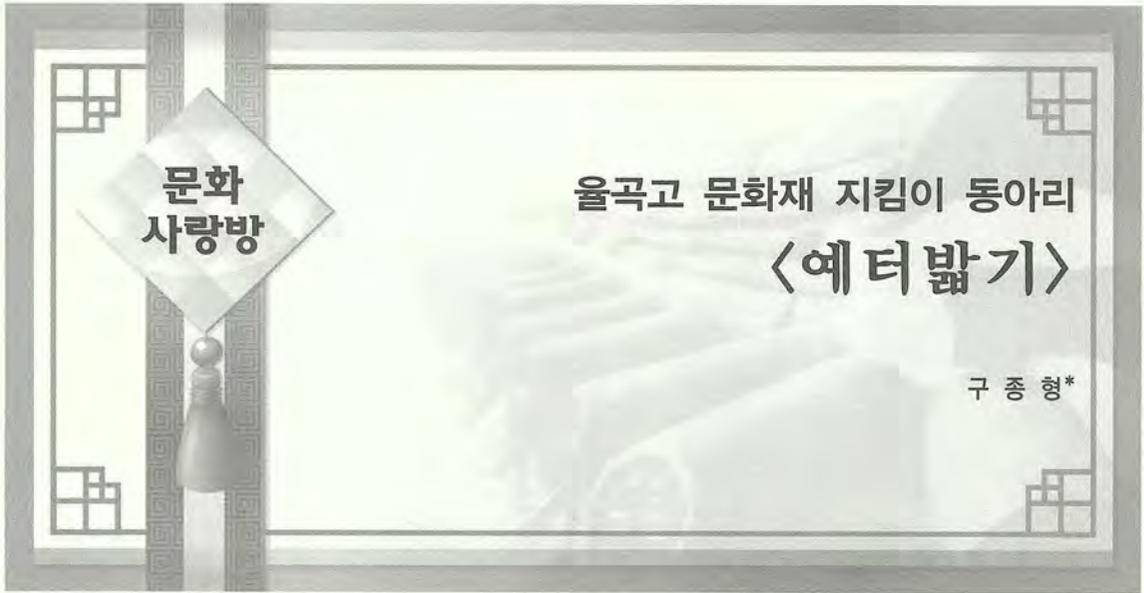
행선지의 끝자락. 풍기역 앞에서 파주 개성 인삼과는 전혀 모양새가 다른 민둥민둥한 풍기 인삼을 구경만 하고 일행과 함께 환상선에 올랐다.



환상(環狀)을 환상(幻想)으로 알았던, 그래서 온 길로 돌아갈 것이라는 계산 아래 몇몇 자리를 바꿔 앉았는데 그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풍기역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알게 되었다. 기차가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승부에 도착한 그 모습 그대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상도 하여 지나는 승무원에게 물었기 때문이다.

나는 피식피식 웃었다. 정말 환상적인 눈꽃열차 라고 지기들에게 계속 문자를 보냈으니 진정 나아말로 환상적인 무식쟁이가 아닌가 말이다. 그럼에도 나는 좋다. 마음이 설렌다. 계곡의 물이 졸졸대며 서둘러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날, 그 머지않은 봄날에 그대, 승부가 나를 불러 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손수건 찾아가라고.

경의선을 시작으로 환상선에서 만난 겨울 속 겨울은 실로 환상적이었다.



1. 목적

21세기는 창의성, 탐구력, 사고력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지식과 정보 축적보다는 자료 분석, 현장체험탐구, 관찰 및 실험 등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시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체험과 탐구학습의 일상적인 실천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교실 밖으로의 학습기회를 개발하여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추진한다.

역사 교육의 중요성과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 독도교육의 소중함과 우리 고장의 소중한 문화재를 학생들의 적극적 자발적인 참여로 가꾸고 지켜나감으로써 “문화재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라는 실천의지를 키워감과 함께 문화재를 알고 찾아보며 가꾸어가는 문화를 후손들에게 물려 줄 소중한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게 하고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추진 방향

- 1) 한국인의 자긍심 고취와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
- 2) 역사교육강화 정책 연계한 ‘에터밧기’ 활동
 -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332호 독도지킴이 활동
 - 우리 고장 문화재지킴이 활동

* 파주 울곡고등학교 에터밧기 동아리 담당교사

- 3) 학교 현장중심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 4)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지원과 협력 체제 구축

3. “예터밧기”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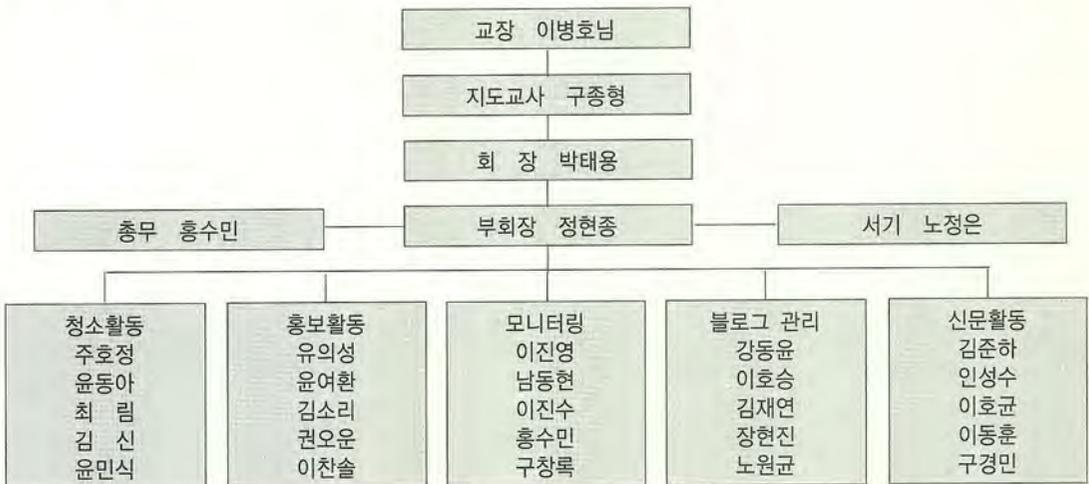
‘예터밧기’에서 『예터』란?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우리 역사의 매개체인 문화재를 통해, 조상의 얼을 배우고 보존한다는 것으로, 「예」는 『홍보활동』을 「터」는 『청소활동』을 의미한다.

『밧기』란? 직접 디디고 밧고 경험하여, 문화재를 가슴으로 느끼고 찾고 기록한다는 뜻으로, 「밧」은 『답사활동』을, 「기」는 『모니터링』을 의미한다.

 (an account) 『홍보활동』	 (step on) 『청소활동』	 (ancient) 『답사활동』	 (a site) 『모니터활동』
----------------------------	-------------------------	-------------------------	-------------------------

다시 말해 “예터 밧기”(ancient _search)의 의미는 “잊혀져 가는 옛 문화 유적을 조사하여(예터, ancient) 말이나 글이 아닌 직접 찾아가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만지며, 발로 뛰어 다니며 역사를 탐구(밧기, search)한다는 뜻.”이다.

4. 조직도



5. “예터밧기” 연혁

변화와 혁신의 오늘날, 과거를 바로 아는 것이 미래를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역사와 문화재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 수 있게 하고,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갈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재에 대해 알고, 문화재를 찾아가고, 문화재를 가꾸는 것, 즉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활동 목적이다.

‘예터밧기’는 파주 울곡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가 2004년에 결성한 ‘문화재지킴이’동아리로서, 2012년 현재 지도교사 1인과 역사와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학생 30명이 활동하고 있다.

- 1) ‘예터밧기’는 문화재청에서 주창한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을 실천하는 문화재지킴이로서, 우리 고장의 소중한 문화재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꾸고 지켜나가고 있다. 그래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으로 위촉을 받아, 우리 고장의 문화재인 광탄면 소재 보물 제93호인 ‘용미리마에이불입상’을 대상으로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다. 방과 후와 공휴일을 이용하여 매주 1회 지킴이 활동을 하고, 또 활동 준비를 위해 매주 1회 정기모임도 실시하고 있다.
- 2) ‘예터밧기’는 2011년에는 문화재 비영리민간단체(NGO)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전국의 문화재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 및 연계활동으로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며 모니터링을 겸한 문화재수호단으로 인정받는 단체이다.
- 3) ‘예터밧기’는 2011년과 2012년에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년 연속으로 NTTP연수원 우수 학교로 지정되어 우리 학교의 교육경험을 살려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재와 학교교육’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 4) ‘예터밧기’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침탈, 동북공정 등 역사교육의 강화 방편으로 2011년과 2012년 2년 연속으로 우수 독도거점학교로 선정, 천연보호구역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독도를 지키고 수호하는데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다.

6. “예터밧기” 활동

1) 답사와 봉사활동

용미리마에이불입상을 찾아 가서 그 문화재에 대해 공부하고, 마에이불입상과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활동이다. 매주 한 번씩 문화재를 찾아 문화재와 문화재주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킴이 활동의 가장 기본이라 생각하여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2) 모니터링활동

저희가 지키는 문화재와 주변의 여건을 관찰하여 문제점을 찾고, 분석한 결과를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문화재를 보완하는 활동입니다. 시청과 문화재청에 건의하여 마에이불입상 앞의 절벽에 난간을 설치하고 마에이불입상에 오르는 길옆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게 된 것이 첫째 성과이다.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을 발견하여 과속방지턱, 볼록거울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설치하였고, 또한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새 주차장 설치 및 도로 표지판의 오류를 바로잡기도 하였다.

3) 역사·문화재 교육활동

‘에터밧기’는 용미리마에이불입상 보호활동뿐만 아니라 박물관 방문교육, 문화유산해설사 초청교육, 궁궐 방문교육, 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이수, ‘문화재 사랑’(문화재청 발간 책자) 읽기, 왕릉 지킴이활동 등을 통하여 지킴이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신문 제작 편집활동

‘에터밧기’의 각종 활동과 문화재 관련 소식을 정리하여 ‘에터밧기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6년 10월에 창간하여 현재까지 15호를 발간하였으며, 본교 학생 및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에 우리의 활동을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상에서도 적극 알리고 있다.

또, ‘미리와의 만남’이라는 문집(제7집)이 지킴이 교재로 활용되게 되었고, 파주시 청소년동아리박람회,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 율곡문화제, 전국 청소년 지킴이대회에서 작품전 및 체험전과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이 활동은 학생들의 글쓰기를 비롯한 표현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5) 홍보와 홈페이지 활동

우리가 손수 제작한 홍보용 플래시, 파워포인트 자료를 담은 CD, 마에이불입상 소개용 책받침, 책갈피, 브로슈어, 설문지 등을 이용하여 마에이불입상을 알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파주시 율곡문화제, 왕릉지킴이 행사, 부처님 오신날 홍보활동, 궁궐지킴이 문화유산해설사 초청강의,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 방문교육 등 다양한 행사에 참가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 활동은 전국의 지킴이들과 온라인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의 활동을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우리의 여러 활동 내용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활동의 폭을 넓히고 정보 교류를 장을 만들고 있다.

7. 인적 물적 네트워크 조성

유관기관과의 지원과 협조 체제 구축하여 실시한다.

- 교육단체 연계: 학교 → 파주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 동북아역사재단 → 교육부
- 지자체 연계: 파주문화원 → 파주시청 → 문화재청
- 민간단체(NGO단체)연계: 파라미타연합회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문화재청

8. 기대 효과

우리 고장의 문화재 지킴이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알 수 있다.

-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애국심을 고취한다
- 애향심과 동시에 문화재 애호정신을 가지도록 한다.
- 문화재의 중요성 및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다양한 활동을 통해 힘든 면과 동시에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
- 활동한 체험을 소감문을 통해 쓰기 및 구술 능력이 향상하도록 한다.
- 봉사활동과 교과 학습과 연계된 교육적 학습효과가 있다.
- 친구들을 먼저 배려하는 선공후사 정신을 이해하고 배운다.
- 창의적 체험활동과 동아리활동을 통한 나라사랑 의식 제고

9. 예상되는 문제점

- 다양한 활동으로 인한 경비 지원
- 학교수업 후 보충과 자율학습으로 정기적·지속적인 봉사활동의 어려움.
- 동아리에 대한 마인더와 지역주민·학부모와 학교를 연계한 활동의 필요성
- 프로그램 이용시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조치 필요

10. 2012년 활동

에터밋기는 문화재지킴이활동(한문화재 한지킴이,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과 독도지킴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1) 교과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

- 독도교육 우수 교수 학습 사례 발표(2012. 5)
- 독도거점학교 대상 올릉도와 독도 탐방 답사(2012. 6)
- 문화재와 독도 주제 수업연구(2012.5, 2012.9)
- 예터밧기 정기답사(7.18- 7.19, 안동 올리종택)

2) 동아리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

- 제1회 나라사랑 독도 토론 대회(2012. 2 .25)
- 외교통상부 청소년 (고등학생) 독도 강좌 참가(2012. 8)
- 우리 고장 문화재 및 독도 홍보물 제작활동(2012. 6~9)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전시관 방문, 홍보물 배부(2013. 1)

3) 학교행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 제4회 독도사랑 작품공모전 실시(2012. 6 - 8)
- 제7회 우리 고장 문화재 작품공모전 실시(2012. 4 - 6)
- 우리 고장 및 독도 우수 작품 영상제 실시 2012. 10.
- 제 25회 울곡문화제 참가 전시회 개최(2012. 10, 자운서원)
- “울곡 한마당” 본교 축제 전시회 개최(2012.10)
- NTP연수원학교 페스티벌 독도캠페인 활동전개(2012. 11.17)
- 관내 천현초등학교 방문교육 및 홍보물 배부 2012. 12.14(금)
- 독도 및 동북아 평화 역사콘서트 참가(2012. 12.17, 월)

11. 기타 활동소개

- 1) 홈페이지(블로그)운영 <http://blog.cha.go.kr/ancientsearch>
- 2) 문화재청 발행“월간 문화재 사랑”6월호 기사 게재('06)
- 3) 중앙일보“문화유산 지키는 또 다른 문화유산”게재('06)
- 4) 문광부선정도서“또 하나의 유산”에 예터밧기 소개('06)
- 5) 경기도교육청‘문화재 명품학교’지정('08)
- 6) 경기도교육청 발행 월간“함께하는 경기교육 10월호”
‘참나무 동아리 교실’및‘짱짱 뉴스’에 소개('09)

- 7) 역사 프로그램 인터넷방송 전문채널“헤리티지채널”
 ‘러브 人 문화유산’에 예터밧기 활동 영상 소개(12분,2010)
<http://www.heritagechannel.tv/tvzone>
- 8) 문화재청발간, 한문화재한지킴이 활동백서“문화재를 가꾸는 아름다운 사람들”소개,2010
- 9) 경기도교육청 지정“예터밧기 연수원학교”로 지정 승인,
 교사 대상‘우리 고장 문화재’관련, 연수 실시 중 (2011-2012)

12. 향후 계획

- 1) 버스 안내방송에 용미리마애이불입상 소개를 추가하는 것을 시청 교통과 및 신성교통 703번 시외버스와 협의 예정이며,
- 2)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삼성각 앞의 계단과 난간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 3) 우리 고장 파주의 많은 문화재중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가 없어 우리가 문화재지킴이로 활동하는 보물 제93호 용미리마애이불입상을 보물 문화재에서 국보로 지정 받기 위한 작업도 꾸준히 지킴이활동과 문화재교육을 열심히 하여 꼭 이루고 싶은 마음이다.

13. 우리의 보람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힘도 많이 들었지만 고된 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변화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 까지만 하더라도 문화재에 대해 무관심했고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터밧기 활동을 통해서 우리 고장,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알게 되면서 문화재에 대한 지식과 동시에 ‘문화재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든 활동들을 하나, 둘 경험하면서 친구들과 더 친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순히 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봉사활동이 아닌 진정한 봉사활동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가슴속이 뿌듯함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용미리의 사계절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었습니다. 꽃향기 맡으며 즐겁게 활동했던 봄, 산모기와와 사투를 벌이던 여름, 낙엽을 쓸면서 이효석의 수필을 떠올렸던 가을, 새하얀 눈꽃에 쌓인 용암사의 모습이 아름다운 겨울. 우리에게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은 이미 없어서는 안 될 큰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즐기고 가꾸며 지킨다는 마음으로, 참여와 나눔의 정신으로, 지속적·주기적 활동으로, 애향심과 문화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계속해서 높여 보고 싶습니다.

14. 각종 수상

- 2005. 우수 문화재지킴이선정 문화재청장상
- 2006. ‘전국 블로그경진대회’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희망경기학생대상’경기도 교육감상
- 2007. 제9회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 동상
- 2008. 제2회‘행복나눔 자원봉사 전국대회’모범상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파주교육장, 시장 표창
- 2009. 문화재청 ‘우수 문화재지킴이’ 문화재청장상
- 2009. 제12회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 대축제 경기도교육감상
- 2010. 동북아역사재단 주관‘제3회 전국 역사체험 발표대회’협력상
- 2011. 동북아역사재단 주관 독도탐방‘ 청소년 자기주장발표대회’최우수상
- 2011. 환경부 후원 ‘전국청소년 토론발표대회’은상
- 2012. 제 1회 ‘전국 학생 나라사랑 토론대회’파주시장상
- 2012. 제4회 ‘전국 직지문화재 청소년봉사 대상’충북도교육감상
- 2012. 독도 및 동북아평화 우수학교 경기도교육감상
- 2012. 문화재청‘우수 문화재지킴이’ 문화재청장상 수상

15. 활동 사진

1) 행사활동 사진





사진전시회 - 우리 고장 문화재 및 독도 답사 전시회 우수 작품 전시



천현초등학교 문화재방문교육(문화재 및 독도 강의) 및 체험활동 실시

2) 용미리마애불입상 주변 환경정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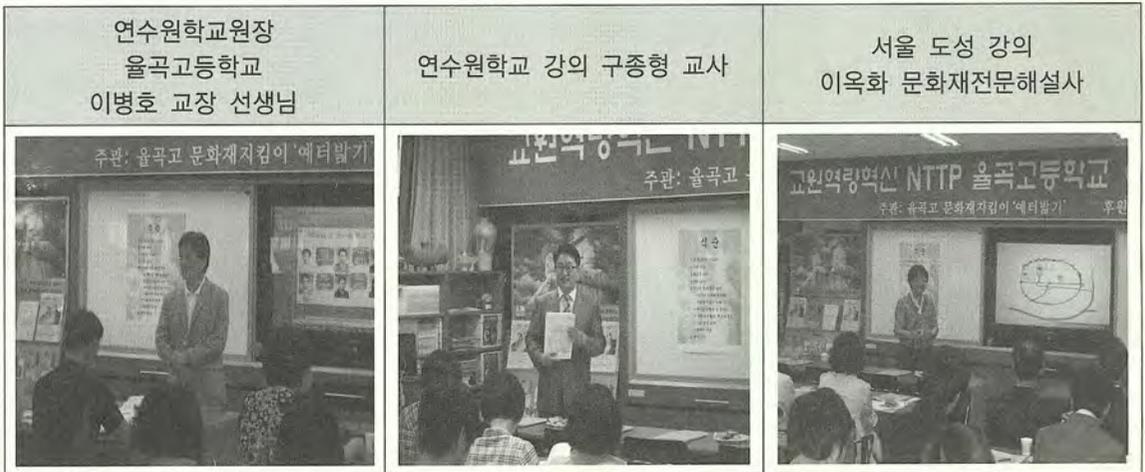
3) 파주삼릉 답사후 봉사(두더지 구멍 메우기), 홍보(책받침 나누어 주기)



4) 문화재 답사활동



5) '예터밧기 연수원학교' 활동사진



운문

초저부 최우수

●●● 마지초 3학년 2반 김 현 지

자전거

외딴 곳에 있는 우리 집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네

내가 놀고 싶어 나가면
강아지 퐁이가 반겨주네
그러나 퐁이와 놀아도
즐겁지 않네

따르릉 따르릉
자전거 하나면 즐거워지네
내가 힘차게 밟으면
자전거도 덩달아 신이 나서 씩씩

외딴 곳에 있어도 외롭지 않네
나와 하나가 되어 달리는
자전거가 있어서

죽기 살기로 달리는 우리 퐁이도
내 영원한 친구

운문

초고부 최우수

●●● 파주초등학교 4학년 2반 정 수 빈

가을이 오기까지, 가을이 가고나면

봄,
차가운 비가 내린다
그 차가운 비로 빗물보다
더 차가운 땅을 녹인다
지난 겨울을 땅 속에서 숨죽이던 씨앗
그 물 한모금 마시고 싹을 내준다
줄기를 내준다
꽃을 내준다

여름,
자꾸 뜨거워지는 햇볕에
지쳐있다가
장대같은 빗물에
휩쓸리다가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몸을 맡기고
지난 봄에 키워낸 작은 몸집을
쑥쑥 키워낸다

가을이 오고
추위에 떨며 키워낸 싹을
더위에, 비바람에
쑥쑥 키워낸 몸집을 치장하기 시작한다
맛난 과일로
멋진 단풍으로
땅 속에서
땅 위에서
나무 위에서
송이 송이, 주렁 주렁
담아 내놓는다

가을이 가고
겨울
일 년 동안 내린
추운 바람
차가운 비
더운 햇볕
쏟아 부어 내리던 비바람을 담은
열매가
접시에 담겨 나를 본다

운문

중등부 최우수

●●● 금릉중학교 1학년 5반 정 하 임

미소 한번

"이거 한번 드셔 보세요."
하며 집집마다 돌리던 정성
추석에 한 데 모여
나누던 행복한 수다.

지금은 어디로
사라진 거지?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옛날
그런 이웃들과의 정이
그리운 오늘은

마주치면
고개 돌리지 말고
미소 한번만 방긋
지어준다면
너도 나도 따뜻한 정을
되찾을 거야

운문

고등부

●●● 울곡고등학교 2학년 1반 이 수 지

가을, 그대

혹시 그대는 가을입니까

잠자리 한 마리 내 볼을 툭 치고 가듯이
그대 한 사람 내 마음을 툭 치고 갔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내 콧등을 시리게 하고 가듯이
그대란 사람의 향기가 나의 콧 속을 적셨습니다.

단풍나무 온 세상을 빨갛게 물들이듯이
그댄 내 세상을 온통 그대로 물들였습니다.

코스모스 바람 타고 산들산들 흔들거리듯이
그대는 내 머릿속을 흔들어 놓고 갔습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려 눈부시듯이
그대는 나에게 푸르르고 눈부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독서가 나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듯이
그대는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은행나무가 성숙해져 열매를 떨어뜨리듯이
그대는 나의 마음에 사랑이란 열매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대는 진정 가을입니까.

운문

일반부

●●● 장 희 진

자전거

다섯 살 딸애의
자전거를 밀며
마흔 다섯 아버지의
자전거를 본다.

아버지는
바람 드는 솔밭
오솔길을 달려 갔었지

솔잎 새로
햇살은 부서지고
너른
아버지의 등은
산인 양 우뚝 솟았던가.

다섯 살 딸애의
자전거를 밀며
마흔 다섯 아버지와
마흔 하나 나의
그리움을 본다.

꽉 잡거라.
바람 드는 들판
오솔길을 달려간다.

산문

초저부 최우수

●●● 한빛초등학교 2학년 곽 승 현

자전거와 나는 한 몸

나는 여섯 살 때부터 두발 자전거를 탔다. 엄마가 밀어주시다 보니 두발 자전거에 익숙해졌고 네발 자전거를 타면 마음대로 안되서 짜증이 났다. 여덟살이 되면서 두발 자전거를 나의 동생에게 물려 주었다.

난 기어 달린 자전거를 새로 샀다. 바퀴는 작지만 접을 수도 있고 빨리 달릴 수 있는 멋진 자전거다.

난 설명도 듣지 않고 자전거를 타다가 기어가 고장 나버렸다. 그래서 네 번 정도 고쳤다.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동생이랑 놀고 있을 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체인이 빠져버렸다. 엄마가 고칠 수 있다고 하시며 체인을 만지더니 고치셨다. 깜짝 놀랐다.

엄마는 자전거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고칠거라는건 꿈에도 몰랐다. 시월달의 일이다. 나는 검도가 끝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체인이 또 이상했다. 난 한번 타 보았는데 페달만 굴러가고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일단 자전거를 평평한 곳까지 끌고 갔다. 기어를 H로 돌리고 페달을 굴렸더니 '더덕덕' 소리가 나면서 앞으로 갔다.

어느 날은 친구랑 영어학원을 갔다 와서 허승과 준형이를 만났다. 친구들은 자전거를 서로 바꿔 타다 말고 나에게 "승현아 자전거 타고 성 놀이터 가자"고 했다. 나는 "우리 자전거를 바꿔 타고 가자." 고 했다. 우리는 서로 자전거를 바꿔 타고 놀이터로 향했다. 친구 자전거를 타보니 느낌이 어색했다. 내 자전거는 바구니가 없는데 친구 자전거는 바구니가 있어서 어색했다.

드디어 출발! 우리 자전거를 타고 성 놀이터로 가는 도중 오르막이 나왔지만 자전거에 기어가 있어 단숨에 휙 오를 수 있었다. 자전거 술래잡기를 하기 전 우리는 술래를 정했다. 가위 바위 보! 준형이가 술래다. "10.9.8.7.6.5.4.3.2.1. 땡" 소리와 함께 술래잡기가 시작됐다. 준형이는 우리를 잡겠다고 씩씩거렸지만 우릴 잡지 못했다. 저녁 일곱시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다.

울곡문화제 울곡백일장

난 커서 로켓엔진이 달린 자전거를 타고 걸리버처럼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싶다. 난 소인 나라로 자전거 여행을 갈 것이다. 항상 즐겁고 웃음이 밝기 때문이다.

소인 나라에 가면 내가 만든 자전거를 소인들에게 태워주고 싶다. 그리고 괴물 나라도 가고싶다. 괴물들의 실제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만일 들켜서 괴물이 잡으려 하면 로켓엔진 자전거를 이용해 하늘로 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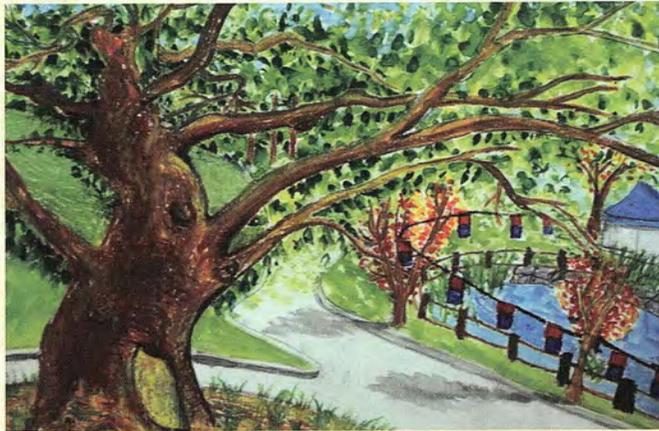
자전거와 관련된 책도 쓰고 싶다. '엽기 과학자 승헌' 이야기다. 자전거에 생명을 넣어 주었더니 자전거가 주인을 "바보, 멍청이"라고 해서 자전거를 없애버릴 계획이었다. 하루는 너무 심심해서 자전거를 탔더니 자전거가 멋대로 핸들을 돌려서 호랑이굴에 주인만 두고 도망간 이야기다.

이런 책을 써서 앤서니 브라운처럼 유명한 작가가 되어 자전거 소설로 성공한 승헌이가 되고 싶다.

울곡문화제 시임당 미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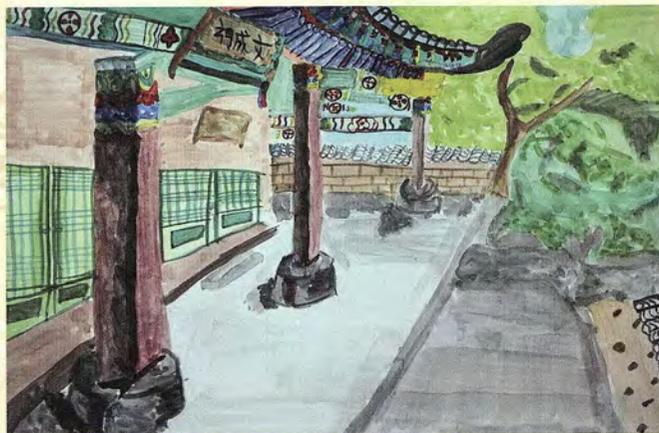
금상

초등부



고 명 진

한빛초 3학년



신 창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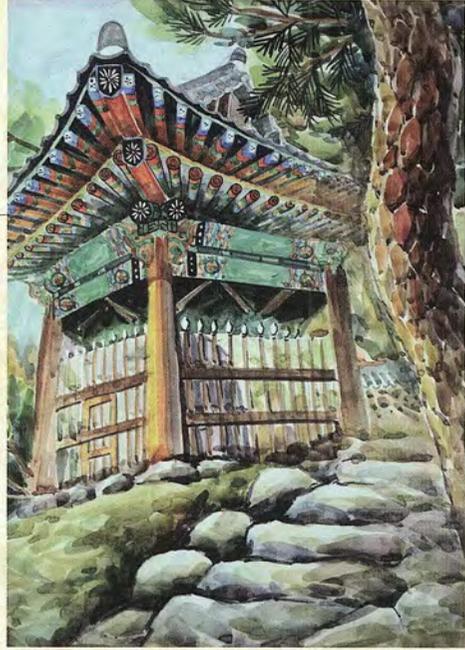
송화초 5학년

울곡문화제 시임당 미술제

금상

중·고등부

김 지 수
금촌중 2학년



이 혁 인
동패고 1학년

올곡문화제 휘호대회

금상

중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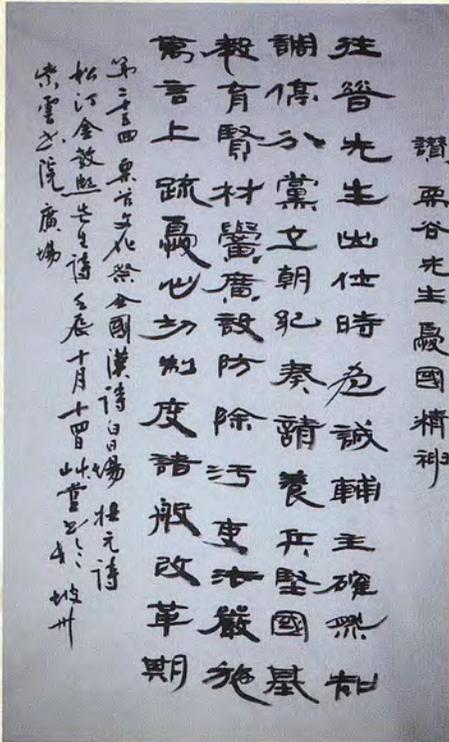
●●● 광일중 2학년 윤 서 희

閏寒來暑往
餘來暑往秋收
歲律呂收冬
陽藏

坡州光一中學校二年尹棲喜

讚栗谷先生憂國精神

松汀 金教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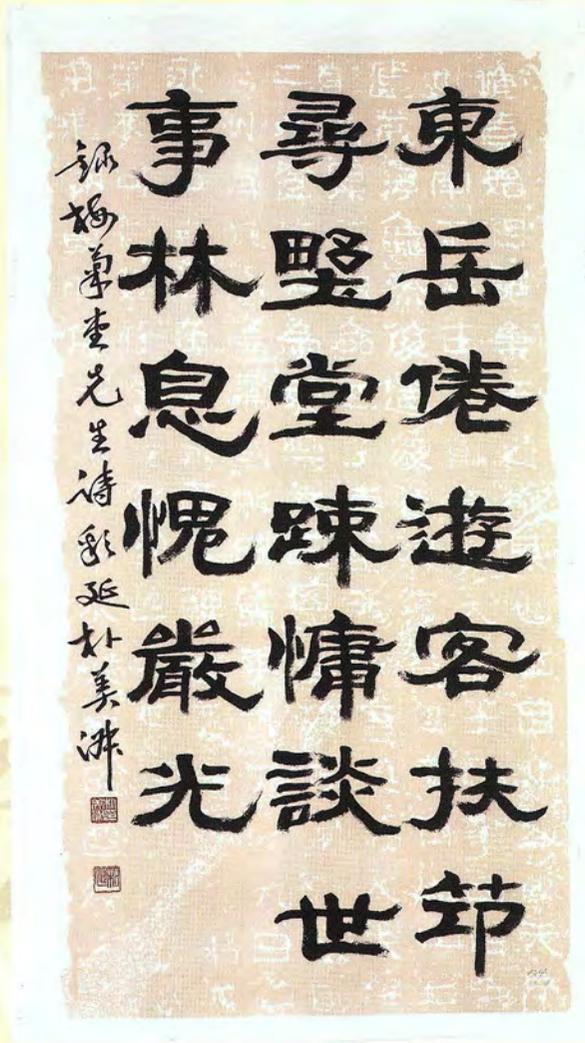
往昔先生出仕時	왕석선생출사시
盡誠輔主確然知	진성보주확연지
調停分黨立朝紀	조정분당입조기
奏請養兵堅國基	주청양병건국기
教育賢材覺廣設	교육현재황광설
防除汚吏法嚴施	방제오리법엄시
萬言上疏憂心切	만언상소우심절
制度諸般改革期	제도제반개혁기

지난 예전 선생께서 벼슬에 나아갔을 때
정성을 다해 임금을 보좌한 것 확연히 알겠다.
분당을 조정한 것은 조정의 기강 세움이요
양병을 주청한 것은 나라 기초 견고히 함이라
현재를 교육하려 서당을 널리 설치하고
오리를 방제하여 법을 엄히 시행했다.
만언상소에 근심이 간절하고
모든 제도의 개혁을 도모했네.

올곡문화제 올곡서예대전

대 상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박 미 숙



❶ 파주문화원 문화가족 모집

• 향토문화 보존계승과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하는 파주문화원에서는 파주지역 문화 발전과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계신 문화가족을 모집합니다.

파주문화원 문화가족이 되시면 각종 문화원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파주문화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❷ 향토사 자료 수집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과 향토문화의 자료를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해당 자료 : 고문서, 전적류, 문집류, 고지도, 문중보관문서, 교지류, 일반향토자료, 행정자료, 교육자료, 유적, 전설, 민담, 민요, 지방유래, 전통놀이 그 외 각종 사진류 및 영상자료 등

❸ 파주문화 연구 원고모집

“좋은 책은 좋은 원고에서 나옵니다”

매년 발간되는 「파주문화 연구」에 기고해 주실 참신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 집필 장르 : 자유선택 (파주의 역사와 문화 관련 내용)
- 집필 분량 - 특별기고 : A4 5장 이상 - 향토문화연구 : A4 3장 이상 - 문화사랑방 : A4 2장 이상
- 원고 마감 : 매년 10월 말일
- 보내실 곳 - E메일 접수 : pajuc@hanmail.net
 - 우편접수 :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운정행복센터 행정동 2층
 - 방문접수 : 파주문화원 사무실
- 문의 전화 : 031-941-2425, 031-948-2688
- 원고 보내실 때 유의점
 - 가. 출판물로 발표되지 않은 신작이 좋습니다.
 - 나. 작품 말미에 반드시 소속과 성함 등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연락처나 핸드폰 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2012년 제26호
파주 문화

인쇄일 : 2012년 12월
발행일 : 2012년 12월
발행인 : 우관제
발행처 : 파주문화원
파주문화연구소
(031)941-2425
인 쇄 : 승림디엔씨
(02)2271-2581

